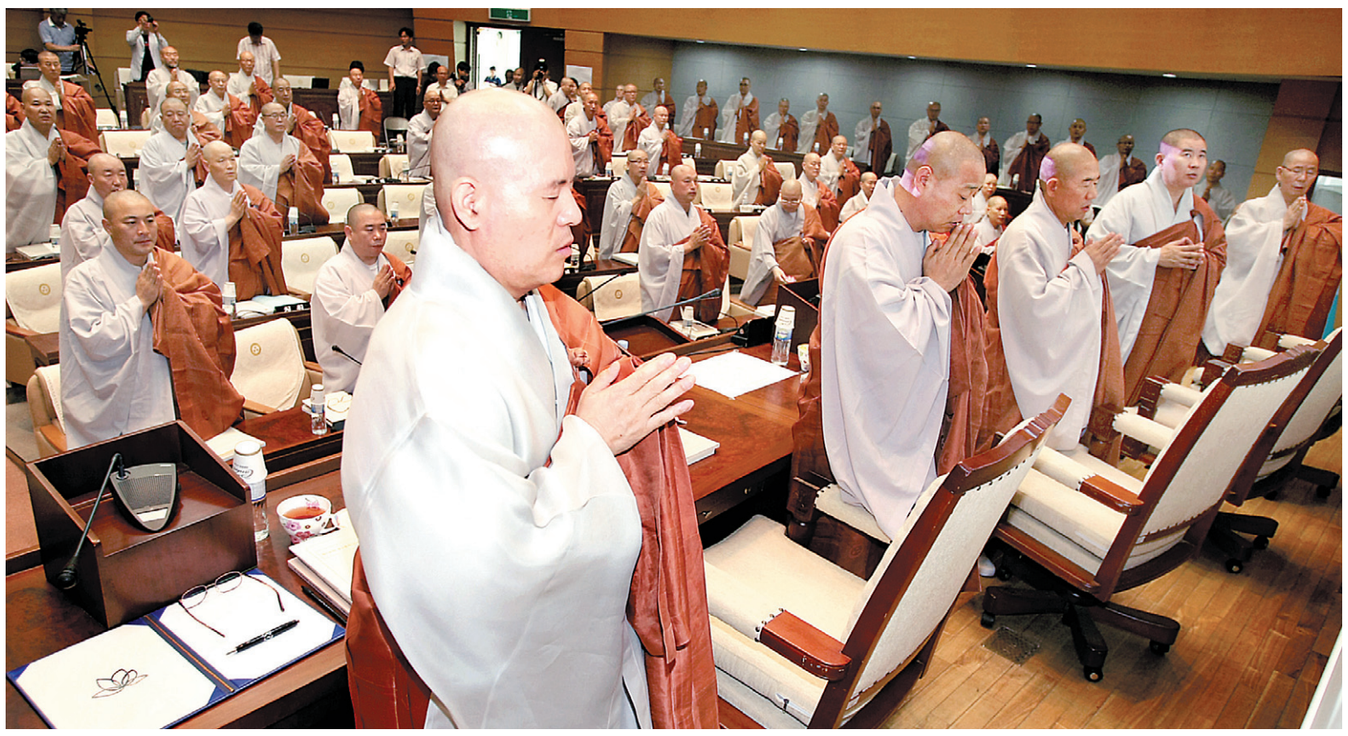


시로 읽는 성보순례
그가 흰 햇빛 속을 걷네
국보 제47호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통일시라시대 ▶2면

현대불교

분노는 법의 다리를 부순다.
성내는 마음을 버려라.
자비로 그것을 다스려라.
「정법염처경 제1권」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5월 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894 호 2012년 6월 27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단이 190회 임시회에 앞서 삼귀의를 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쇄신법안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사진=박재완 기자

사찰 사부대중 운영·재정 투명화

조계종 중앙종회 190회 임시회… 쇄신입법 만장일치 의결

사찰 운영에 대한 사부대중 참여가 명문화 됐다. 조계종 일선 사찰에서는 불전을 제외한 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시스템 활용이 추진된다.

조계종중앙종회(종회의장 보선)는 6월 21일 제190회 임시회를 열고 총무원장 발의로 제출된 △'종무원법' 일부 개정안 △'사찰운영위원회법' 전문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 △'예산회계법' 일부 개정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일선 사찰들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사찰운영위원회가 기존 협의 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격상됨에 따라 조계종 사찰은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사찰운영위를 구성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찰 예산, 결산 △특별 불사와 수익사업 승인 신청 △사찰 부동산 매각, 임대, 사용승낙, 증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한 승인신청 △신도의 상벌 △사찰 자체 감사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징계조항도 새로 삽입됐다. 운영위원회법을 위반했을 경우 종무원법 상 징계를 받게 되며, 해당 사찰에서는 행정 제재를 할 수 있고, 민형사상 조치도 가능해졌다.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에 따라 일선 사찰 예산회계 원칙들이 명문화 됐다. 재정사고 등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사찰은 전문회계사를 통한 감사를 시행해야 하며, 사찰등급조정 규정상 24등급 이상인 사찰은 일반직 종무원을 두고 경리회계 종무원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회계처리는 총무원이 지정한 전산 프로그램 도입이 의무화되며,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과 영수증 발급을

사찰운영위, 심의기구 격상
영수증 발급·신용카드 도입도
선거법 제정… 공영제 추진
의원 불징계권 삭제 아닌 축소

통해 사찰 재정 투명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은 별도 통장에 교구본사와 공동예치하게 해 사찰 재산을 투명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

총무원장선거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교구종회의원선거법은 선거법 제정으로 통합됐다. 이 에 따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공명선거위원단이 구성되며 겸직이 금지된 직급의 소임을 보고 있는 후보자는 후보 등록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사찰분담금을 2년 이상을 체납하게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징계조항도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선거법 위반 행위 징계를 받을 경우 형량과 관계없이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해당 금품 10배의 벌금도 부과된다.

이들 법안 통과로 총무원은 1차 쇄신계획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재정 투명성 제고, 사부대중 공의,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쇄신 계획의 기조가 모두 법제화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쇄신법안과 더불어 종도들의 기대를 모았던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 삭제는 축소에 그쳤다. 종회의원들은 집행부 감시를 명목으로 불징계권을 다룬 종헌 개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시켰다.

삭제를 반대한 종회의원들은 "불징계권을 통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을 할 것이 없다. 종단의 올바른 견제를 위해 소신 있게 발언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해 여론과의 온도 차가 상당함을 보여줬다.

이번 종회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의 의사 개진이 활발했다는 점이다. 특히 19년만에 이뤄진 종헌 개정에 있어서 비구니 스님들은 "종단 주요 소임의 자격 요건을 '비구'가 아닌 '승려'로 조문을 고치고, 교육원장이나 포교원장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라"고 거침없이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세민스님 사직에 따라 공석이 된 재심호계위원에는 정만 스님을, 종헌개정 및 종법재개정특별위원에 삼회 스님과 일관 스님이 각각 선출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성명서'와 '창조론 계열이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진화론 부정에 대한 시정성명서' 채택과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정상화 촉구' 및 '불교닷컴 종단 출입금지 및 광고금지 결의'를 일괄 통과시키고 회기를 단축해 6월 22일 폐회했다.

한편, 조계종 쇄신법안 통과에 대해 불교계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은 6월 22일 발표한 환영 논평에서 "조계종중앙종회 제190회 임시회에서 제1차 쇄신법안이 통과된 것을 모든 청년불자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법 사찰 파문…들끓는 불교계

조계종 비대위, 여야 양당 방문해 방지법 촉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조계종이 강경 대응에 들어갔다.

조계종 불교계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대오, 법광, 이하 조계종 비대위)는 6월 19일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을 차례로 방문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 공동위원장 대오 스님은 "최근 불법사찰 관련 검찰 조사결과 발표는 매우 부실하다. 진실 축소나 은폐 의도가 담겨 있다"며 "불법사찰은 헌법을 파괴한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라고 성토했다. 이어 스님은 "각 정당은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비대위는 6월 18일 첫 회의를 열고 중앙종무기관과 사찰에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출입이 통제하는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계종 비대위는 향후 대응책으로 △직영, 직할 사찰, 교구본사에 불법 사찰 규탄 현수막 게제 △민간인 사찰 방지법 제정 촉구 △청와대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청와대 시위에 대한 내용과 일정은 실무팀이 확정하기로 했다.

조계종 비대위는 국무총리실과 검찰에 불교계 불법 사찰 공개 요청



조계사 사부대중은 6월 20일 초하루 법회에서 훼불언론 〈주간한국〉을 규탄했다. 불교계의 불법사찰 관련 압박이 들불처럼 더 번지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사찰에 사정기관 출입 통제
현수막 게재 등 강경 대응
보고서 논란 '주간한국' 압박

과 불법 사찰 의혹 사례 접수(6월 20일~7월 10일)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비대위는 향후 이 같은 불교계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비대위는 대규모 규탄법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기존 6명이었던 위원을 1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결의했다.

일선 사찰과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조계사 호법위원회는 6월 22일 한국일보 사옥을 항의 방문해 이상석 한국일보 사장과 면담했다. 이날 조계사 호법위원회는 〈주간한국〉이 인용보도한 보고서의 진위와 이세용 조계사 종무과장에 대한 한국일보 종교담당기자의 협박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이상석 사장은 경위파악을 약속하면서도 "서로 감정이 격해져 생긴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조계사는 6월 20일 열린 초하루법회에서도 〈주간한국〉과 모회사 〈한국일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교사직무연수 : 경기율곡 2012-0129
교사직무연수 모집
"인성교육을 위한 셀프 리더쉽 과정"
교실의 행복
NAVER 교실의행복
모집대상 | 전국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종사자 전체
교육일정 | 2012년 8월 6(월)~8월 10일(금) (09:00~16:00, 5일간 – 총 30시간/학점 인정)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모집기한 | 2012년 7월 30일 (금) 수강료 | 7만원
신청방법 | 네이버블로그 "교실의행복" / www.hansi.org / hansi@hanmaum.org 로 신청 가능
문 의 | (재)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031-471-6926~7 * 월요일 휴무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894호 INDEX

종단 2
조계종 출가학교 250명 지원
태고종 종회 종단 부채 논의
종합 3
재정 공개 사찰 무엇이 다른가
문화 체험놀이로 여름방학 나기
시방세계 5
혜민 스님 마음치유 콘서트



불자세상보기 31
교과서 진화론 삭제 논란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www.hyunbulshop.com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47호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그가 흰 햇빛 속을 걷네

정영선

최치원 선생의 호랑이 붓이 생동해서
입적하신 진감선사
붓길 따라
먹빛 가사 두르고 폭설처럼 흰 햇빛 속을 걷네
꽃발으로 들어간 거북
몸이 아직 거북을 못 벗었는데
생전에 조실부모한 선사의 설움
당나라 소림사에서 구족계를 받는 길이었고
백성을 가르친 길이어서
묵묵히 돌비에 제 등을 주네

옥천사가 쌍계사로 이름 바꾼 진성여왕 원년
'해동고진감사선비' 우렁 우렁 세워진 날부터
기운생동 비문을 인 거북
용머리를 들고 제자리에서 엉금엉금
햇빛 광휘 속을 지나
노을 속으로 가고 있네
범패소리 아득히 선사께서 앞서 이끄시네

등껍질 벗고 하늘가에 닿을 거라네
하늘 사랑이 인간에 속속 스며서
사람들 모두 부처되어 세상 텅텅비는 날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정영선 시인은… 1995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장미라는 이름의 돌멩이를 기지고 있다〉, 〈콩에서 콩나물까지의 거리〉등

'청년' 출가학교 열기 뜨겁다

7월 1일 개원 조계종 출가학교 250명 지원 '눈길'

조계종교육원(교육원장 현응)이 오는 7월 1일부터 9일까지 미황사에 개원하는 청년 출가학교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관심이 가히 폭발적이다.

6월 22일 출가학교 지원자를 마감한 결과 250명이 접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들의 한국 최고 수재들이 모인다는 KAIST, 서울대 재학생을 비롯해 화가 지망생, 의대생 등 이력도 가지각색이다.

30~40명을 정원으로 생각했던 조계종교육원은 '행복한 고민' 중이다. 20대 청년들이 출가에 대해 폐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내부 패러다임을 여지없이 부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이력서를 받아보니 20대 청년들이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의외로 깊게 하고 있었다"며 "서류 심사와 e-mail 인터뷰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대의 멘토로 구성된 우수한 강사진과 전액 무료라는 파격적 지원도 20대 청년들을 산사로 이끌었다. 실제 이번 출가학교에는 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미국 햄프셔대 교수 혜민 스님, 조성택 고려대 교수, 고미숙 고전평론가 등이 강사로 참여해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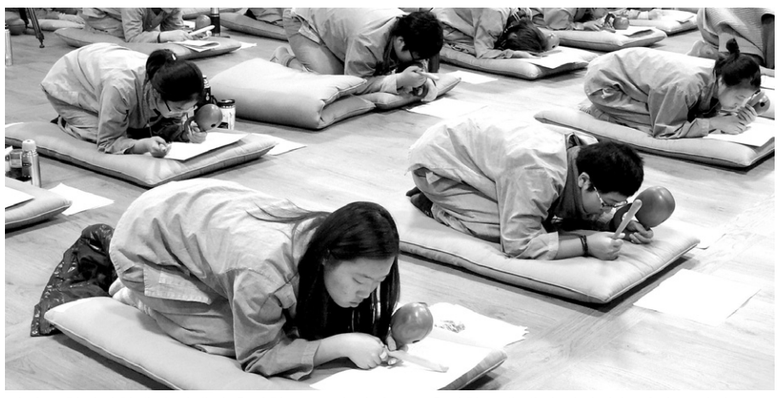
연수국장 진광 스님은 "한 자리에 모으

우수 강사·무료 지원 등 요인
명문대생·의사·화가 등 이력 다양
소수정예 출가제도 고민해야

기도 힘든 우수 강사진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출가학교는 20~30대 출가자가 급감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제 4교구본사 월정사의 단기출가학교의 경우 2004년부터 5년간 수료자 1천 3백명 중 9%에 달하는 100명 정도의 인원이 출가했다.

6월 14일 열린 출가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도 출가학교를 주목했다. 이날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성찰이 이뤄질 수 있는 '출가학교'를 개설해 출가의 본래 의미를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활인선원에서 진행한 출가학교. 종단 안팎으로 출가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문 스님은 "현재 종단 주도로 한 출가학교 개원이 준비 중에 있다. 틀이 잡히고 경험이 축적되면 모든 교구본사에서 출가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원 역시 종단이 운영하는 출가학교가 정착되면, 각 교구본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섭 스님은 "'출가'를 공통분모로 각 사찰이 가진 특성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시적인 분위기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출가자 확대라는 당장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소수 정예의 인재가 산문에 들어오는 것도 시급하다"며 "출가자 감소는 고령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현 세태를 잘 파악해 출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종회, "종단 부채 공청회서 논의"

6월 18일, 전승관서 제 109회 임시종회 개최

태고종이 전승관 건립시 받았던 국고보조금 중 미정산 10억원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청산키로 했으며, (사) 태고종 중앙회 명의로 된 부채는 공청회를 개최해 논의키로 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산)는 6월 18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109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종도고충처리위원회 상정 및 폐기 건 △종단 긴급 현안건 △종단부채 책임 및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조사 보고건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첫 안건으로 발의된 '종도고충처리위원회 설치건'은 반대 의견이 제기돼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회기 때 상정하거나 폐기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 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중 미정산 10억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 일정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산하자는 원론적인 합의만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사)태고종 중앙회 명의로 된 부채는 차후에 공청회를 열어 책임 소재 및 진상규명을 논의키로 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 도산 스님이 종회서 발의하고 있다.

조계종 교역직 인사 잇달아

호법부장 정안,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원명 스님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6월 22일 오전 호법부장에 정안 스님을 임명했다. 정안 스님은 6월 21일 중앙종회 제190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호법부장에 임명동의됐다.

스님은 임명동의 후 "사부대중을 외호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자승 스님은 같은 날 오후 자성과 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에 원명 스님을, 국제선센터 선원장에 법오 스님을, 국제선센터 총무국장에 도일 스님을 임명했다.

신중일 기자


정안 스님


원명 스님


법오 스님


도일 스님

관조스님 사진 '디지털화'
조계종·문도회 MOU 체결

관조 스님 사진 20만컷이 디지털로 보존된다. 조계종 총무원과 관조 스님 문도회(회장 승원)가 6월 21일 MOU를 체결 불교문화사진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조계종은 사진작가인 관조스님의 방대한 유작 사진을 디지털화해 영구 보존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문화부 진명 스님은 "80년대 관조 스님이 운문사에 들렀을 때 사진 가방을 들어드리며 스님의 고단한 작업을 옆에서 지켜본 바 있다. 불교문화를 고스란히 담은 스님의 작품들은 불교 원형 자료로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제8차 대표자 대회 및 제7대 임원 개편대회

한국불교의 최대 연합교단인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는 23년전 일붕 서경보 존자님께서 창회하여 2012년 2월에 정부로부터 정식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현재 한국불교계 130여 종단이 가입된 명실상부한 한국불교 최대 연합교단으로써 회원간 한결같은 단합된 마음으로 한국불교는 물론 세계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꺼이 회원으로 동참해 주신 각 종단 종정 큰스님 이하 종단 대표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 문 단

수석고문	대한불교 조계선종	만옹	석도일	종 정 큰스님
고 문	(사)한국불교 정토종	지산	김 노	이사장 큰스님
고 문	(사)한국불교 삼론종	석봉	전석파	종 정 큰스님
고 문	(사)대한불교 선종	효담	박호영	이사장 큰스님
고 문	(사)민족불교조계종	대곡,법보	정가우	종 정 큰스님
고 문	대한불교 임 제 종	용화	나인식	종 정 큰스님
고 문	대선불교 조 계 종	동산	문용호	종 정 큰스님
고 문	대한불교 천 지 종	일공	정정수	종 정 큰스님
고 문	대한불교 달마선종	현광	김용익	종 정 큰스님
고 문	대한불교교화선종	혜명	석혜명	종 정 큰스님
고 문	세계불교 법 륜 종	법광	강영수	종 정 큰스님
고 문	한국불교 원각종	혜철	이병출	종 정 큰스님
고 문	한국불교 일광종	혜우	원종택	종 정 큰스님
고 문	한국불교 조계종	정암	박우렬	종 정 큰스님
고 문	현대불교 조계종	만공	김연수	종 정 큰스님
고 문	도 솔 천 유 마 종	무해	김길수	종 정 큰스님
고 문	교 단 용화불교	청강	김범열	종 정 큰스님
고 문	한국호국불교 조계종	혜륜	이윤식	종 정 큰스님

총 재 단

명예총재	(재)한국 대승불교 여래종	인왕	신판석	종 정 큰스님
총 재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의륜	서주범	본회이사장큰스님
부 총 재	대한불교 대원종	정허,	안신풍	종 정 큰스님
부 총 재	대승불교 조계종	법각,지오	장무송	창종주 큰스님
부 총 재	임제불교 조계종	적진,지암	김영홍	종 정 큰스님
부 총 재	대한불교 해탈조계종	대광	문진열	종 정 큰스님
부 총 재	(사)한국불교 조계종	대봉	이종수	총무원장 큰스님
부 총 재	대한불교 불광종	청원	박수웅	종 정 큰스님
부 총 재	(사)대한불교율사 조계종	청파	안종억	(종정대행) 큰스님
부 총 재	국제선불교 조계종	목탁,혜은	상경찬	종 정 큰스님
부 총 재	세계불교 평화종	고명	김춘석	종 정 큰스님
부 총 재	대한선불교 조계종	용담	김무홍	종 정 큰스님
부 총 재	대한불교 조계선종	혜원	김창관	종회의장 큰스님
부 총 재	한국불교 미륵선종	혜일	윤중희	종 정 큰스님
부 총 재	대한불교 위앙종	위산,등운	박인혜	종 정 큰스님
부 총 재	대한불교 해동종	송산	이종완	총무원장 큰스님
부 총 재	대한불교 무량종	혜안	정동식	종 정 큰스님
부 총 재	선불교 조계종	석대응		종 정 큰스님

회 장 단

회 장	(사)대한불교 원각조계종	청운	박청운	종 정 대종사
상임부회장	(재)한국근본불교 조계종	용주	권용운	종 정 대종사
수석부회장	한 국 불 교 대 불 종	만주	조성수	총무원장 대종사
수석부회장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청학	송원진	총무원장 대종사
수석부회장	대 한 불 교 선 각 종	정암	마승희	총무원장 대종사
수석부회장	총 남 불 교 조 계 종	청암	도한수	종 정 대종사
수석부회장	(재)한국불교 조계종	보현	서만득	총무원장 대종사
부 회 장	한 국 불 교 자 비 종	해광	전충열	총무원장 대종사
부 회 장	한국불교 대승 법사종	지일	박상갑	종 정 대종사
부 회 장	한 국 불 교 반 야 종	지법	한재환	총무원장 대종사
부 회 장	호 국 불 교 호 예 종	법진	신승도	총무원장 대종사
부 회 장	한국불교 구산선문회	법장	최재호	총무원장 대종사
부 회 장	회 천 법 계 천 일 종	법혜	박수종	총무원장 대종사
부 회 장	한국불교 전법 조계종	일웅	김철우	총무원장 대종사
부 회 장	불교단체 극락선원	도천	박갑수	선 원 장 대종사
실무 의장	국제불교 조 계 종	법천	유일수	총무원장 대종사
총무 이사	대한불교 총연합회	혜철	이상진	법 사
사무 총장	대승 불 교 달 마 종	법왕장	김소부	대 표 대법사
사서 실장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무애	조현종	종정사서 스 님

법인이사회

이 사 장	의륜	서주범	대종사
이 사	청운	박청운	대종사
이 사	만주	조성수	대종사
이 사	현오	성부경	대종사
이 사	무일	금숙희	스 님
감 사	도광	천명섭	이 사
상임이사		이상진	이 사

공 동 의 장 단

대한불교 달마선종 정병환 일법 종정 / 대한불교 법연종 석조연 종정 / 한국불교임제정종 김재호 택봉 총무원장 / 대승불교 법왕종 최복수 정산 총무원장 / 호국불교 효예종 신승도 법진 총무원장 / 미주불교 불국종 김금타 한불 종정 / 한국불교 미륵종 윤우호 송정 총무원장 / 한국불교 금강종 정용준 법천 총무원장 / 대한불교 반야종 조윤심 종정 / 세계불교 평화종 김지봉 도암 총무원장 / 대한불교 대승종 윤영구 일오 총무원장 / 해동불교 평화종 이창배 청암 종정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김정길 경원 이사장 / 대한불교 조계종 선불교 김재연 법륜당 도깨비 원장 / 한국 생활불교 포교종 대 표 법정화 황숙하 / 세계불교 일화종 종 정 황정 나명국 / 한국불교 선덕종 종 정 각화 신영식 / 한국불교 법보 조계종 총무원장 고석 최연일 / 대한불교 용화선종 총무원장 경원 전춘자 / 대한불교 불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안 서일종 / (사)대한불교 해동종 부총재 송산 이종완 / 대한불교 상락원 총무원장 정오 최정한 / (사)세계불교 문화교류연맹 종 정 혜명 허 범 / (사)국제과학영농기술개발연구소 종 정 혜명 허 범 / (사)대한불교 조계종 종 정 혜명 허 범 / 대한불교 연화종 종 정 동원 김복연 / 대한불교 용화세계 미륵종 종 정 월단 김숙희 / 대한불교 일월종 총무원장 대원 최진동 / 세계 불교 법사종 종 정 대하 하순성

세계불교 해동 화엄종 종 정 성인 석월담 / 통합불교 아미타종 총무원장 법안 이기욱 / 대한 호국불교 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주광석 / 대 한 불 교 유 심 종 종 정 법일 김정일 / 대한불교 도생 조계종 종 정 청오 최사불 / 대한불교 도생 조계종 총무원장 억조 김익현 / (사)한국불교 극락 조계종 총무원장 은곡 조병남 / 대한불교 관음성종 총무원장 관행 금강종 / 대한불교 여래 대명종 총무원장 법정 이근원 / 대 승 불 교 달 마 종 총무원장 혜광 문동춘 / 대 한 불 교 대 성 종 종 정 대성 김영기 / 현 대 불 교 미 륵 종 총무원장 원공 유명곤 / 해동불교 임제 조계종 총무원장 혜륜 백선권 / 한국불교 전통 조계종 총무원장 혜봉 김일석 / 대한불교 참수행 정각종 총무원장 덕정 이형덕

한 국 불 교 내 외 종 총무원장 청담 윤문봉 / 대 한 불 교 정 법 종 종 정 법정, 덕암 석덕암 / 대한불교 지법 태고종 종 정 지법 반동환 / 대한불교 호연총회 대 표 호연 최윤상 / 한 국 불 교 해 원 종 종 정 해원 박의석 / 한 국 불 교 연 화 종 종 정 연화 김점자 / 대 한 불 교 의 성 종 종 정 청산 석의성 / 대 한 불 교 금 강 종 종 정 혜원 김명철 / 대 한 불 교 금 강 종 총무원장 효봉 김상필 / (사)세계불교 미륵종 종 정 전인 석전인 / 세계불교 국제연맹 재단 조계종 종 정 도룡 엄상섭 / 세 계 불 교 세 심 종 총무원장 범홍 유경남 / 현대불교 각원 조계종 종 정 구암 이봉영 / 대한불교 본원 조계종 종 정 해광 김순칠 / 한국문화건강진흥원 종 정 범부,운담 홍권표

명 예 총 재 인왕 신판석
총재겸이사장 의륜 서주범
회 장 청운 박청운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정재 낭비 막아…포교활성화 신도증가

재정공개 사찰 무엇이 다른가

앞으로 조계종 사찰들은 1년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사찰 운영에 있어 사부대중 공동 참여를 주요 골자로 한 사찰운영위원회법이 개정됐다. 이로써 사찰운영위원회는 기존 협의기구에서 심의 의결기구로 격상된 셈이다.

조계종중앙종회는 6월 22일 제190회 임시회를 열고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앞서 6월 7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재정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한 제1차 종단 쇄신계획을 발표했다. 이렇듯 조계종 내부서는 사찰 재정 공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느때보다 높다. 하지만 조계종 사찰 중 일찍부터 사찰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재정 투명성을 실천한 사찰들이 적지 않다. 이 사찰들의 공통점은 '재정공개' 원력을 세운 주지 스님의 적극적 의지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입을 모은다. 투명한 재정공개는 재가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참까지 이끌어내며 신도수 증가 등 사찰활성화는 물론 포교확대로까지 이어진다는게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사찰재정을 공개한 사찰들을 살펴봤다.

대표적인 곳은 잠실 불광사다. 2000년 이전부터 월 1회 씩 한 달간 사찰 재정을 공개하고 있다. 신도단체협의체인 '명등회의'를 통해 한다. 재정공개에는 50여 신도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며 사찰교무행정 프로그램인 '가람지기'서 월계표를 출력 배포한다.

불광사는 특히 2003년 종교단체가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되며 굳이 세금 부과

불광사, 외부회계 감사 실시
신도회 참여 '사찰운영위' 관리
소속감이나 주인의식 고취

나 회계감사를 받을 법적 의무가 없지만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단행했다. 또한 그 내역도 모두 신도들에게 철저히 공개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주지 지정 스님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제1회 투명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남 봉은사도 재정 공개라면 빠지지 않는 투명성을 자랑한다. 봉은사는 2007년 명진 스님이 주지를 맡았을 때부터 도입했다. 현재 직영사찰 전환 이후에도 계속 중이다. 봉은사 신도들이 사찰 재정과 관련된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첫째는 국장 스님, 종무원 팀장급, 신도회 부장단(회장 부회장 부장급)까지 참여하는 1주일에 한 번 있는 종무회의서 재정문제까지 포함된 사찰운영의 모든 안건이 의결된다.

신도 재정공개는 한 달에 한 번 신도회 임원이 사찰확대회의에 참여해 주지 스님, 국장스님, 종무원 등과 함께 법왕루에서 재정·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PPT 자료를 활용해 세부항목까지 상세히 공개 한다. 봉은사는 아직까지 외부회계 감사를 받은 적은 없지만 감사 시 조계종 총무원서 전문가들이 파견돼 회계장부를 확인한다.

봉은사 강민수 홍보실장은 "재정 공개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신도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재정 규모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원 법안 스님이 주지로 있는 종로 구기동 금선사는 20년 전부터 운영위를 구성해 재정을 신도와 사중에 자연스럽게 공개하고 있다. 사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해 신도들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신도회 임원, 스님들을 포함해 총 23명이다.

주지 법안 스님은 "사찰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 사찰 재정의 효율성이 분명히 높아진다"며 "무엇보다도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으니 불사를 방만하게 할 수 없으며, 또 짜임새 있게 사찰이 운영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천안 성불사도 2000년부터 사찰운영위를 운영하며 사찰 재정을 100% 공개하고 있다. 특히 사찰 통장 관리의 경우 도장은 스님이, 통장은 신도회가 관리하도록 해 투명한 재정관리는 물론 스님과 신도들 간의 신뢰감이 두터운 것이 자랑이다.

이외에도 부천 석왕사는 사찰운영위원회가 별도 없으나 10년째 수입지출항목별로 초하루나 정기법회에서 주지 스님이 신도들에게 발표한다. 3년 전부터 재정 공개를 시작한 화계사는 사찰운영위가 관리하며 화계사보에 두 달에 한 번씩 내보낸다. 광명 금강정사도 1991년부터 월 1회 사찰운영위원회를 열어 재정 공개를 한다. 강남포교원, 삼선포교원, 성남 정토사 등 일찍부터 재정을 공개하고 있는 사찰들은 포교에도 남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재가불자들에게 사찰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의식을 높여 줌으로써 포교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6월 9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이하 불교스카우트) 창단 고불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7개 조계종 교구본사를 비롯한 전국 42개 사찰의 청소년 1400여 명이 참가했다. 한편, 포교원은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정식 인가받은 불교스카우트창단을 계획하고 있다.〈사진 위〉

이밖에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정념 스님)는 6월10일 강릉여자고등학교에서 '2012년 강원도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문화재지킴이 발대식 및 한마음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회장 정념 스님을 비롯해 낙산사 주지 무문 스님 등 강원지역 스님들과 강원파라미타 회원 800여 명이 동참했다.〈사진 아래 좌〉

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6월 9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금산 대둔수련원에서 파라미타 전국 간부학생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 행사는 간부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특강, 명상,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사진 아래 우〉

박재완·이은정 기자

"뼈를 깎는 노력, 제도 쇄신 이뤄낼 것"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 봉행… 자승 스님 다짐

조계종조 도의국사 추모다례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쇄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茶禮)'에서 추모사를 통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성과 쇄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청정계행을 위한 구조와 제도에 대한 쇄신을 뒷받침 할 것"이라며 쇄신안의 구체적인 실천 의사를 밝혔다.

이날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국사께서 선의 씨앗을 심어 선향이 만리에 가득해 금일에 이르렀다"며 "눈푸른 납자로 나투시어 그 명주가 다시 천개 만개 되게 하소서"라고 청정가풍이 다시 떨쳐지기를 기원했다.

이와 함께 다례에서는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의 행장 소개와 조계종 어장 동주 스님의 집전하에 거불, 청혼 등이 진행됐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헌다하고 있다.

으며 호계원장 법등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헌향, 포교원장 지원 스님의 헌다, 헌화 등이 이어졌다. 조계사 대웅전에는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자승, 교육원장 현응, 포교원장 지원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해 도의국사의 수행가풍이 되살아나기를 함께 발원했다.

글=노덕현 · 사진=박재완 기자

이기흥 중앙신도회 회장 단독입후보

제25대 신도회장 7월 6일 선출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제25대 중앙신도회장 선거후보 등록을 6월 18일 마감했다. 이번 중앙신도회장 선거후보에는 이기흥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

중앙신도회는 7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5대 회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회장은 2007년 체육인불자연합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는 등 불교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이은정 기자

항일운동가단체, 김종필·MB 공개 질의

6월 21일 기자회견… 한일 협정 재협상 촉구

운암 김성숙(태허스님)기념사업회가 주축으로 있는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회장 김원웅)와 한일협정국민행동(상임대표 청화)은 6월 21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한일협청 체결 47년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필 씨와 이명박 정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김종필 씨가 공화당 사전조직과 운영 자금으로 일본에게 6천6백만 달러를 받았다는 미 CIA 문서(1966년 3월 18일자)의 내용 등에 대해 진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에게도 △박정희-김종필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비밀정치자금△김종필-오하라 메모 작성 경위 △대일청구권 액수의 비밀 결정 등 해외 기밀 기록 발굴 등을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 체험놀이로 여름방학 보내자

파라미타,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마련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파라미타는 7월 23~26일 경주 남산 일원에서 '제15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연합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양시킬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불국사·석굴암 등 사찰문화탐방을 비롯해, 연등, 연필만들기, 활쏘기 등 전통문화체험활동이 진행된다. 또 팀빌딩 게임, 플레쉬몹, 명상체험, 1080배 등 공동체놀이와 신행활동과 명사 초청 특강, 백일장, 음악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7월 24일~8월 2일 초·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유럽 4개국 탐방에 나선다. 학생들은 파리, 이탈리아, 스위스, 바티칸시국을 방문해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학생들은 각 나라 도시별 독도알림이로 활동하며 자원봉사활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파라미타 산하시설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이동명)에서는 7월 14일~10월 13일 매주 둘 째, 넷 째 토요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킴이'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받은 후, 선정릉, 헌인릉 등에서 지역 문화재 지킴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 수련관에서는 7월 14일, 28일 오후 3시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체험 나래꿈터'를 운영한다.

이밖에 파라미타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을 모집해 7월 1일부터 지킴이단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문화재청과 함께 실시하는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학생들이 직접 지역 내 문화재를 현장탐구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절) 49재 영가천도** 행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찰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종 정	운송 (양산 상북면 청운사)	**이 사 장**	혜운 (진주 봉래동 봉광사) (이사진)	**총 무 원 장**	유심 성도 (부산역 관음정사)
중앙원로의장	대웅 (부 산 당감 봉주암)	**중앙종회의원**	범주 (양산 중부 몽불사)	**중앙종회의장**	일봉 (경주 강동 안계 관음사)
중앙원로 의원	무진 (경 주 횡용 용수암)		수경 (김해 진영 백련암)	**포 교 원 장**	운암 (의령 봉수 문황사)
중앙비구니회장	범우 (부 산 부암 백광사)		무불. 진우. 진여. 진설. 혜덕. 법광	**교 육 원 장**	법기 (양산 원동 백림사)
중앙문화원장	무향 (천수바라무, 살풀이)	**총 무 국 장**	관음	**감 사 원 장**	청수 (양산 상북 청수사)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대구 약사사)	**총 무 과 장**	청곡	**부산종무원장**	범중 (부산 장전 법전사)
총 무 부 장	정무 (부산 해운대 재송 청운암)			**대구종무원장**	의광 지현 (대구 평리 약사사)
규 정 부 장	수연 (부산 금정 부곡 천왕사)			**사천종무원장**	무무 현수 (사천 향촌 연지암)
재 무 부 장	묘향 (부산 망미 반야라마)				

전국종도님, 재가법사 입종을 보살행으로 환영합니다.

종교승가 護國佛教 曹溪宗 website : bbnr.or.kr

총 본 산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산 36번지 청운사 **총 무 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부산역앞 / 관음정사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교 육 원 : 양산 원동 백림사. (사)대한불무도 연맹원장 : 수연 051)516-4494, (사)보성노인대학학장 : 진공 051)465-3697 **부설단체 :**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시신및장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신라불교미술관

일 주 문



통도사 장학금 전달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6월 20일 경남체육고 2학년 펜싱 박상영, 경남체육고 3학년 유도 배슬비 등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범어사 여름불교학교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7월 23~25일 범어사에서 '신나는 범어사 어린이여름 불교 학교'를 개최한다.



수덕사 어린이 캠프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7월 28~30일 수덕사 어린이 스스로 캠프를 연다. (041)330-7700



쌍계사 여름한문학당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7월 26~31일 하동 쌍계사 및 인근 문화체험장에서 어린이 여름 한문학당을 개최한다.



자비나눔 기금 전달

서울 노적사 주지 종후 스님은 초하루 법회에서 모연된 자비나눔기금 230만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다.



염지관 명상수련회

명상상담연구원 원장 인경 스님은 6월 29일~7월 1일 용인 법륜사에서 '인경스님과 함께하는 염지관 명상수련회'를 진행한다.



제6회 영어 담마 캠프

비로자나국제선원장 자우 스님은 8월 3~6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제6회 자우 스님의 '영어 담마 캠프'를 실시한다. (02)6012-1731



종로노인복지관, 초코파이 전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6월 19일 논산훈련소 호국 연무사를 방문해 한달 동안 모은 성금으로 구입한 초코파이 200박스를 전달했다.



미얀마 초등학교 지원

조계종 비구니스님 모임 마하회 회장 일진 스님은 6월 14일 청도 운문사에서 미얀마 제야아웅 마하 초교 건립 기금 1억 400만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제11회 사회복지봉사 표창

이석진 불교상담개발원 자비의전화 상담원은 6월 21일 제11회 전국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불교 환경문제 관심 가져야"

진월 스님, 세계불교도우의회 부회장 선출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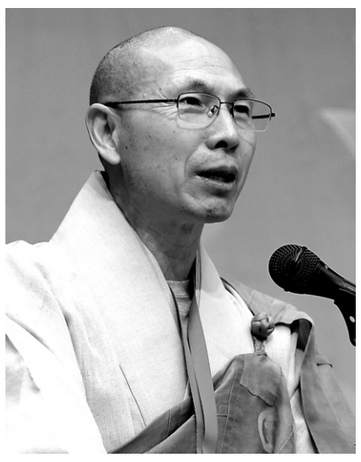
전 세계 불교인들이 모여 화합을 다지는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가 6월 16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도우의회는 여수 엑스포와 더불어 한국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였다.

특히 6월 20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학과 교수 진월 스님(사진)이 세계불교도우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월 스님은 지난 2000년부터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2002년부터 WFB 상임이사, 현 조계종총무원장 국제특보로 활동하며 불교계를 대표하는 국제 업무를 도맡아 왔다.

또 지난달 5월 29~6월2일 태국 방콕에서 85개국 1천6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유엔 베삭절(UNDV)에 한국대표로 참석했으며, 동시에 개최된 국제불교대학협회(IABU) 총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출된 바 있다.

진월 스님은 부회장 선출소감에 대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책임감이 커졌다. 이번 WFB대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인의 기대에 부흥하는 한국불교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며 "세계평화문제 등에 한국불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WFB 한국대회는 '21세기 불교 생태환경사상과 수행'을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석학들이 모여 관련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스님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불교도 이에 뜻을 함께하고 생태관련 문제에 관심을 두고 포교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WFB 환경위원회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WFB는 단순히 불자들만을 위한 친목도모행사가 아니다. 앞으로 불교가 세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고민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종교가 돼야 한다. 이번 부회장 선출로 계기로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불교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진월 스님은 향후 4년 임기 동안 세계불교도들의 우의를 위해 활동한다.

한편 WFB는 1950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세계불교지도자들이 모여 창립한 뒤 현재 전 세계에 걸쳐 150여개 지부가 있는 불교 최대 국제기구다.

현행 불기 및 오색 불교기를 제정, 통일하는 등 불교 세계 일치와 협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불교문화학과, 동명대 대표학과로 육성"

설동근 동명대 신임총장 계획 밝혀

"인재 불사가 가장 큰 불사라고 생각한다. 총장 4년의 임기동안 불교문화학과를 적어도 동명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설동근(사진) 前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6월 13일 제7대 동명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설 총장은 취임 소감에 대해 불교문화학과 육성을 주저없이 말했다.

"재가불자로서 한국불교 발전에 큰 디딤돌을 놓으신 강석진 초대 이사장님의 뒤를 잇고자 마음을 내었습니다."

설 총장은 "1970년대 한국 산업의 근대화와 수출산업을 주도했던 故강석진 회장님의 근면성과 창의성, 봉사정신을 이어 받아 창의적인 인재, 산업 실용 인재 양성으로 발현시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설 총장은 "3년 전 불교문화학과가 생기는 걸 보면서, 그분의 유지가 열매를 맺는구나 했다. 하지만 불교문화학과가 학교 평가에 걸림돌이 되고 이어 학과 존폐위기가 닥치는 것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설 총장은 "교육감과 교과부 차관의 경험을 살려 학과가 지속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해 동명대의 자랑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설 총장은 이날 불교문화학과 육성을 과제로 꼽았으며 그 시작으로 학비지원을 제시했다. 학과 신설 당시 학교 측에서 계획한 '장학금제도'가 미비해진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부산불교연합회, 부산불교연합신도회와 협약을 맺고 장학금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총장은 이어 불교문화학과의 질적 향상을 언급했다. 학승들의 강연을 비롯하여 불교교과목과 맞는 범위 내에서 다른 대학교 교수진들의 겸임도 재고하고 있다. 이어 동국대와 동일한 군법사의 특전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재직 중에 석·박사 학위를 딸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설 총장은 "부처님은 사람으로서 가치를 열어 보이신 분"이라며 "학생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 총장은 "모든 대학의 공통 문제가 학생 수와 취업문제"라며 "남과 같이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자 설 총장은 매일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며 주말마다 해운정사와 옥련선원을 비롯한 근처 사찰을 찾아 108배를 하며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동명대는 1970년대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했던 동명목재를 모기업으로 하는 대학으로, IT특성화와 산학협력의 결과로 10년간 '1·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 선정됐다. 지난 3월에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출처: 교과부)에 추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사)대한불교 종단총연합회 임원개편

제8차 대표자 대회 및 제7대 임원개편대회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총재 의륜, 회장 청운)는 6월 15일 평창동 킴스호텔에서 '제8차 대표자 대회 및 제7대 임원 개편대회'를 개최했다.

100여 종단대표가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회장 청운 스님(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여러 고문님들을 받들고 의륜 총재님과 부총재단 및 부회장 여러분들과 합심해서 본회를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재 겸 이사장인 의륜 스님은 "한국불교 연합교단인 종단총연합회는 23년 전 창회해 금년 2월에 정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 현재 130여 종단이 가입돼 있다"며 명실상부한 한국불교연합교단으로서 합심 단결해 한국불교는 물론 세계 불교발전에 힘쓰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임원진 소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향후 연합회의 과제, 9월 연합법회 등이 논의됐다. **노덕현 기자**



종정협의회 대전 지역 성금 기탁

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석월인, 이사장 석지산)는 6월 14일 대전시장실에서 염홍철 시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입금했다. 전달식에는 종정협의회 월인 회장과 지산 이사장, 석대응 상임이사, 석혜우 종정, 석진공 종정, 서병열 사무총장과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 시청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종정협의회는 매년 모금한 일정 금액을 불우이웃돕기에 정기적으로 기부해 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이익선 씨,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불교TV '열린마당' 진행을 맡고 있는 이익선 아나운서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의 홍보대사로 나선다.

이익선 아나운서는 6월 15일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이 씨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홍보대사까지 하게 되어 더 뿌듯하다"며 "앞으로 주변 사람들은 물론 TV와 라디오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장기기증을 올바로 알려내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나은 기자**

세계불교초대법왕 일붕 존자

봉 탄신 98주년 및 원적 16주기 추모 대법회 행

신록이 짙어 가는 계절에 일붕문도님 여러분들과 귀빈 여러분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일붕존자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항상 깃들기를 합장 기원 드립니다. 근대 세계불교사에 한 획을 그어 놓으신 우리의 스승님 일붕 서경보 존자님은 세계불교 법왕청을 설립하시고 초대법왕을 역임하였으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과 대학선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경주 불국사 주지, 국가보위 입법위원, 평통자문위원, 유엔전권대사(N.G.O), 일붕사상교양선집(10권)을 비롯하여 1240여 종류의 책을 저술, 임진각 등 전국주요 명소에 8백여개의 평화통일 기원시비건립, 문학, 철학박사 등 126개의 박사학위를 건국대학, 대구대학, 충남대학 등 국내외 유명대학교에서 받으셔서 기네스북에 3관왕을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시고 1996년 6월 25일(음력 5월 9일) 오전 11시 40분에 세연을 다하시고 우리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에 국내에 주석하고 계신 일붕존자님 제자 1만여 명이 매년 동참하여 추모제와 함께 탄신일을 봉축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탄신일과 열반일이 같은 날인 것은 세계에서 단 한분으로 성인중에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공사 다망하시더라도 하루쯤 시간을 내셔서 일붕문도(은,법,조카,손상좌 포함)는 물론 인연있는 모든 불자님께서는 동참하셔서 일붕존자님을 다시한번 추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하시고자하시는 모든 소원이 일붕존자님의 가피로 성취되시기를 다시한번 기원 드립니다.

일 시 : 불기 2556(2012)년 6월 28일(음, 5월9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례제, 11시- 탄신 및 추모 법요식

장 소 :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
(서울 용산구 효창동 255번지 효창공원 내)

문 의 : 02)355-0093 문도회 / 02)777-0959 일붕신문사

* 점심공양제공(프라자호텔에서 준비), 주차장 완비

명 예 회 장 무찰. 지산. 학암. 도기
회 장 의륜 대변인 법천 이 사 담화
상임부회장 용주
공동수석부회장 지공. 동봉. 화엄. 송산. 천강. 청운
공동부회장 만주. 무애. 법장. 도천. 영수

서울지회장 덕산 부산지회장 삼주 대구지회장 일웅 울산지회장 청호 대전지회장 영봉
경북지회장 해동 경남지회장 청파 전북지회장 향운 충남지회장 택봉 충북지회장 정일
제주지회장 대성 경기남부지회장 대명 경기북부지회장 법천 비구니회장 보현

기획위원장 법왕자 김소부 사무총장 이붕 서병열 사무장 상광

사단법인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서울 은평구 녹번로 6가길 7호 (송림사 내) /전화 02)355-0093 일붕문도중앙회

행복의 열쇠는 '고마움'… 보는 각도 바꾸자

조계종 국제선센터, 혜민 스님 첫 '마음 치유 콘서트'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you were a tender And callow fe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follow~(9월 그 무렵을 기억해요. 당신이 상냥하고 젊었던 무렵을. 기억하세요. 차례차례, 차례차례.)"

브로드웨이 뮤지컬 'The Fantasticks'의 수록곡 'Try To Remember'가 클래식 기타와 바이올린 선율과 함께 조계종 국제선센터 대웅전을 수놓았다.

노래의 주인공은 바로 18만 팔로워의 멘토, 미국 햄프셔대 종교학과 교수 혜민 스님. 잔잔한 스님의 노래는 이내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혜민 스님이 이날 부른 노래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한달여 간 전국에서 열리는 스님의 '마음치유 콘서트'의 시작을 알렸다.

일요일 늦은 오후임에도 대웅전은 발디딜 틈이 없었다. 정원인 4백 명은 이미 매진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당을 찾은 사람들까지 말 그대로 장사진을 이뤘다. 대부분이 스님의 저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을 읽고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치유하고자 모인 사람들이다. 개중에는 천주교, 개신교 신자도 꽤 참가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위로 받고 싶어는 지를 단적으로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노래를 마친 스님이 만면에 미소를 띠우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 학기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제가 최근 쓴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알아보는 사람이 많으면 어쩌지 걱정도 내심 했습니다. 헌데 공항에 내렸더니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구요.(웃음) 살 책이 있어서 광화문 교보문고를 갔는데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관련 매대에 계신 분들도 못 알아봤습니다.(웃음)"

스님 자신의 일화는 바로 수행자 특유의 성찰로 이어졌다.

"우리는 너무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정작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삶, 자신의 삶을 누구의 이목도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살다보면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그것을 극복하라고 강요하지만 그럴수록 스스로를 내려놓고 생각하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치유방식 신선, 법당엔 웃음꽃
노래와 치유가 하나된 야단법석
종교 떠나 대중 5백여 명 운집

본격적인 치유의 시작. 혜민 스님이 전하는 치유 방법은 독특했다. 누구의 고민을 듣는 게 답을 해주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스스로가 고민을 돌아볼 수 있게 했다.

먼저 스님은 앞줄과 뒷줄 마주보게 했다. 그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고 주문했다.

처음에는 친한 고교 동창생과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라했고, 이내 최근 고마운 사람에 대해 말해보라고 했다. 청중들은 어색하다가도 금방 친한 친구처럼 근황을 묻고, 고마운 사람을 칭찬했다.


마주앉아 손을 맞잡은 청중들. 청중들은 혜민 스님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고민을 쏟아내고 풀었다.

법당은 웃음꽃이 넘쳤다. 사람들이 대화를 마치자 스님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이뤄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행복의 열쇠는 '고마움'입니다. 이런 모든 인연들을 고마워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돌아 앉힌 스님의 주문은 좀 더 세밀해졌다. 이제는 마주보고 있는 사람을 한국 최고의 심리 치유사라고 생각하라고 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불편하고, 답답했으며, 억울했던 심정을 쏟아내라고 말했다. 또, 남은 모르고 자신만 아는 상처, 트라우마를 이야기해보라고 권유했다. '상처를 쏟아내고 맞서라'는 주문이다.

처음에는 머뭇거렸던 사람들도 이내 마주 앉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들어줬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사람들의 표정은 진지함에서 안타까움, 웃음 등 다양한 감정들을 보이기 시작했다. 몇몇 청중은 눈물도 보였다.

활발했던 이야기가 잦아들자 스님은 대중에게 서로의 두 손을 마주잡으라고 했다. 그리고 독백하듯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당신의 아픔이 치유되길.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당신이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를 잊고 행복해지길."

청중들은 스님의 말을 따라하며, 그간의 회한과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냈다. 혜민 스님의 치유는 이내 희망과 서원으로 넘어갔다. 3년 후 오늘 만날 친구에게 그간 이뤄졌던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말해보라는 것이다.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것. 그것이 희망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스스로의 덫을 내려 놓고 희망을 이야기해보십시오."

콘서트 형식을 빌려서 일까. 치유 중간 중간, 간간히 음악을 즐기는 시간도 이어졌다. 안용욱 클래식 기타리스트와 김효린 바이올리스트가 협연한 헝가리 민요 '차르다시(Czsardas)'와 아일랜드 민요는 애잔하게 청중의 감성을 울렸다. 또, 故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따라 부르며 지나간, 다가올 날에 대해 성찰하기도 했다.

이 같이 독특한 혜민 스님의 마음치유에 대중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자신을 치유해 나가는 방식이 너무 신선했다는 것이다. 김장신(일심행, 61)씨는 "대부분 스님들과의 상담은 질의 응답일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다"며 "내 성장과정을 이야기하는 데 눈물이 났다. 나의 아픔을 돌아보고 스스로 보듬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권정순(감로화, 68)씨는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너무 좋았다. 젊은이들의 이야기와 고민을 듣고, 내 고민도 이야기하니 세대 간의 소통도 이뤄지는 거 같았다"며 "고민에 대한 일방적인 스님의 답변이 아닌 많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이를 치유한다는 게 매우 색다르게 다가왔다"고 밝혔다.

사실 '콘서트(concert)'의 어원은 '협주곡'을 의미하는 '콘체르토(concerto)'에서 비롯됐다. 협주는 누구 혼자가 도드라져서는 안된다. 다른 누군가와 조화를 이뤘을 때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혜민 스님의 '마음치유 콘서트'는 대중들의 고민을 악기로 삼아,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풀어내는 한편의 교향곡이었다.

즐비한 목동의 아파트 건물 사이로 하루해가 뉘엿 뉘엿 넘어가고 있다. 내일 또 다른 고민이 오겠지만, 법당을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환하기만 하다. 만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천근같은 삶의 무게를 지고 사는 그대여, 이대로 청안하시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Try to remember~', 마음 치유 콘서트의 시작은 혜민 스님의 노래로 알렸다.

"고민 있어요" 함께 나눈 이야기들

친구 관계 · 교육 문제… 여러가지 고민 쏟아내

6월 17일 진행된 혜민 스님의 '마음치유 콘서트' 대미는 서로에 대한 고민 상담이었다. 친구의 집착, 불면증, 자신의 기대에 따라오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실망감까지 다양한 고민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혜민 스님은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청중, '집단 지성'에게 해결책을 구했다.

임아정 씨는 20년 지기 친구가 너무 일방적으로 자신의 상황만 생각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친구에게 불편하다고 이야기해보았지만 그때 뿐이라고 했다. 이에 이용숙 씨는 친구와 거리를 두라고 충고했고, 진성아 씨는 친구가 여자면 남자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관심에서 벗어나라는 재치있는 제안을 했다.

임 씨의 고민에 대해 혜민 스님은 "모든 관계에는 기대치라는 게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 한다. 관계에 휘

청중들 다양한 해결책 제시
혜민 스님 "관계, 난로 대하듯"

둘려서는 안된다"며 "인간관계는 난로처럼 해야 한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하라"고 조언했다.

제자들이 자신의 교육 방향을 따라오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는 일선 교사에게는 또래 학생이 날카로운 답변을 제시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세은 양은 "무한 경쟁, 입시 위주의 교육시스템에서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안된다"면서 "학생들에게 공부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을 포기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가려고 한다는 청소년에게는 따뜻한 격려가 이어졌다. 연인보 씨는 "대학 진학의 꿈을 접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게 도전이겠나, 젊은 날의 만용이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혜민 스님은 "진정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회에서 정해진 길을 간 사람은 없다. 되려 정해진 길을 벗어났다"며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 용기는 매우 어렵다. 무슨 일을 하던지 그 일이 나의 천직이고 운명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6월 추천선물

행운과 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 42수진언 그림 족자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대유불교 시리즈
① 옴! 그림으로 푼 천수경 ② 예언의 허와 실 ③ 꿈! 마음의 열쇠
④ 꿈과 마음의 비밀 ⑤ 마음의 달 1,2 ⑥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⑦ 42수진언 족자 ⑧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신간)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법 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그린, 레드』 사찰용(65x150cm) 100,000원
가정용(45x120cm) 70,000원

-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 한쪽 벽면을 장식할 수 있는 블라인드 (150x230cm) 제작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주시고 손 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입문의 : 대유학당 (02) 2249-5630



42수진언 족자 (그린)

입금계좌 국민은행 807-21-0290-497 (예금주 :윤상철)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다양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daeyou.net
NAVER 대유학당 검색 네이버에 "대유학당"을 검색해 보세요.

고즈넉한 산사에서 인생의 '짝' 찾아요

'산사의 싱글파티' 이색 템플스테이 마련
고양시 흥국사, 11월까지 월 1회씩 6회 진행

"결혼 적령기에 남녀가 만나 결혼관을 이야기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 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 · 여 · 30세)

"지친 마음을 채우며,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스님의 독경과 특강이 마음 속 찌든 때를 정화해 줘 삶의 활력을 얻어 가는 것 같다." (정○○ · 남 · 33세)

치솟는 물가와 집값, 취업난, 무한경쟁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결혼적령기를 넘긴 미혼남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흔히 삼포세대(연애 · 결혼 ·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 불린다.

이런 사회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저출산 · 고령화를 막기 위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과 고양 흥국사(주지 대오)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젊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6월 16~17일 템플스테이 '산사의 싱글파티'를 개최한 것.

보건복지부 후원사업으로 지정된 이번 행사는 경기도 고양시 흥국사에서 '참소중한 인연공동체'를 주제로 열렸다. 참가 인원은 남자 6명 여자 13명. 부모님 권유로, 혹은 바쁜 회사생활로 인연을 만날 수 없어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기 위해 참가한 이들이 많다. 대부분 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30대로 서울을 비롯해 울산, 제주도 등 멀리서까지 찾아온 참가자도 있었다.

도착한 참가자들은 수련복을 지급 받은 뒤 흥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찰 예절을 배웠다. 이어 간단한 자기소개 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황수경 동국대 명상상담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연인 · 부부간의 올바른 관계형성 및 결혼관에 대해 설명했다.

황수경 교수는 "흔히 사랑을 말할 때 좋아하는 감정에 대해서만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 식었다' 라는 표현을 한다"며 "사랑하다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의 내 · 외적인 조건이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아픔을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사랑할 때는 서로 잘나고 좋은 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 보여주고 감싸

보건복지부 후원사업으로 시행
20 · 30대 젊은층에 인기
불교로 올바른 결혼관 심어줘

주면서 소통을 해야한다"며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제행무상(諸行無常)' 을 알고 자비로운 마음을 상대를 대하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저녁공양과 휴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팀을 이뤄 림보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게임을 한 뒤 차 · 와인을 마시는 티파티를 가지며 진솔한 얘기들을 나눴다.

다음날 아침 새벽예불과 108배를 마친 참가자들은 '불교의 올바른 결혼관 및 가족관' 을 주제로 한 대오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6월 16~17일 고양시 흥국사에서 열린 '산사의 싱글파티' 에서 황수경 동국대 명상상담학과 교수는 '사랑은 서로 존중하고 마음의 성장을 돕는 아름다운 나눔' 을 주제로 강연했다.

〈보왕삼매론〉의 '마음다스리는 글' 을 들려준 대오 스님은 "참나를 발견하고 나의 가치를 찾아야 상대방의 가치도 발견해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다. 참나를 깨달으면 궁극적으로 지혜 · 자비심을 키워 모든 인연에게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 현실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결혼과 연애를 포기하려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결혼과 만남은 그런 의미에서 참나를 찾는 수행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참가자의 대다수가 좋은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진(남 · 33)씨는 "불교는 아니지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 울산에서 왔다. 사랑과 심리에 관한 특강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때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효은(여 · 31) 씨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참여했는데 스님의 법문과 특강을 들으며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전반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위로도 받고 나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도 가져 더 많이 얻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첫 선을 보인 '산사의 싱글파티' 는 젊은이들과 결혼적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인기가 좋아 올해로 벌써 8회째를 맞는다.

대오 스님은 "결혼을 약속한 커플이 생기는 등 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 산사의 싱글파티가 종교를 초월해 젊은 미혼남녀들에게 건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불교를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9번째 행사는 7월 12~13일 흥국사에서 열릴 예정이며 오는 11월까지 매월 1회씩 6회에 걸쳐 진행된다. (02)723-5101

고양 흥국사=이나은 기자

노숙인들, 산사에서 소통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백담사서 노숙인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주년 사업 일환으로 6월 18~20일 인제 백담사에서 노숙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소통 그리고 나눔 템플스테이' 를 진행했다.

18~20일까지…10주년 사업 일환

사회 소외계층인 노숙인들이 산사에서 세상과 소통하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6월 18~20일 2박 3일간 강원 인제 백담사에서 노숙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음의 치유를 위한 '소통 그리고 나눔 템플스테이' 를 개최했다.

템플스테이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사회통합과 치유' 라는 취지 하에 서울시와 서울시립노숙복지시설 '보현의집' 이 함께 참여했다.

행사가 열리는 백담사는 이번 템플스테이를 위해 '심리극(연극치료)' 과 '가족 세우기' 를 특별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첫째 날 진행되는 '심리극' 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상실감과 소외감에 빠진 문제들을 수용하고,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진행된 '가족 세우기' 는 자신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 관계가 단절된 문제점과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가족의 존재감과 역할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2박3일간 예불과 참선, 108배, 발우공양, 운력, 지혜명상, 3보 1배 등 사찰의 일상을 체험하며 마음의 평안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템플스테이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법진 단장스님은 "올해 템플스테이 1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라는 목적 아래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단은 앞으로 템플스테이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행복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업단은 오는 10월까지 전국 109개 운영 사찰에서 노동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춘 템플스테이 체험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스마트폰으로 '법화경' 듣고, 보고

'우리말 법화삼부경' 어플리케이션 출시

일상생활 속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경전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법화경'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어플은 운주사에서 출판된 〈우리말 법화삼부경〉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번 어플이 한 재가불자에 의해서 제작됐다는 점이다. 안진보(연동산업 대표 · 44)씨는 혜조 스님이 만든 '법화삼부경 MP3' 를 듣고 '법화경'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

안 대표는 " '법화삼부경' 은 인생에 새로운 자극제가 됐다. 혜조 스님이 현대인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어플을 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신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어플을 제작하면서 기술적 · 재정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고 고백했다. 원력을 세우고 어플로 제작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안 대표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 지지해 주는 사람들도 많았다. 불교콘텐츠 연구개발 모임 미디어우빠야(회장 김영수)와, (주)다나의 최대종 대표의 힘이 컸다"고 말했다.

이번 어플은 (주)로드피아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주)다나가 디자인을 담당했다. 현재 어플은 안드로이드용으로만 제작돼 아이폰에서는 구동이 안 된다. 라이트 버전에서는 '서품' 만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안 대표는 "점차 플레이스토어나 앱마켓에서 구입해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법화경' 어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삶의 진정한 가치와 참된 마음의 평화를 찾길 바란다"며 "이번 계기로 더 많은 불교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어플로 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청소년 위한 선禪 명상 테라피

7월 22일부터, 골굴사 화랑 수련회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들의 심신치유를 위한 선(禪) 명상 테라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골굴사(주지 적운) 선무도 화랑사관학교는 초 · 중 · 고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화랑 수련회를 7월 22일~8월 25일 개최한다.

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컴퓨터 게임,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학생들에게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를 통해 심신 안정을 도와준다. 프로그램은 선요가, 선무술, 선기공, 선명상 등을 통해 마음을 안정화 하고, 불교 강의와 호신술, 승마, 국궁수련, 108배, 운력 등으로 인성함양을 고취시킨다. 또 다도, 난타, 판소리, 춤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밖에도 원어민 영어 강사 직접 지도하는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캠프' 와 성지순례도 함께 진행된다.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은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이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고, 약해진 마음을 다스려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054)775-1689

이은정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종 정 홍산 현불
총무원장 자량

입종안내

◆ 입종구비서류

○ 승려, 법사, 사암등록 신청서 1부
○ 주민증 앞 뒤 복사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암 사진 (안 · 밖)

○ 총본산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 수월사
○ 종정스님 주석 사찰 : 전북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567-1 관음사
○ 총무원 : 전화 063)583-8807 / 팩스 063-584-4153 / Mobile 010)6478-1569

종정 큰스님의
법성게 친필휘호 보급 안내

사업장이나 집안에 법성게를 걸어두고 해인도를 소지하고 있으면 일체만법이 성취되고 모든 장애가 소멸되며 일체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신묘한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큰 스님의 달마도가 들어 있는 법성게 휘호는 신묘한 氣가 있습니다.

※ 달마도도 보급합니다.

○ 보급가 15만원
○ 계좌 : 농협 351-0247-1334-03 (예금주 : 우리불교조계종)
○ H · P 010-6478-1569

〈족자〉



법성게 38×145㎝

해인도 10.5×17.5㎝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인터넷 중독 상담으로 치료해요

교계 청소년수련관 10여 곳 중독 치료 서비스 진행

00씨(55세, 남)는 26살인 딸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준비를 한다면서 하루종일 인터넷만 하며 극심한 편집증적 증세를 보이자 직접 상담센터를 내방해 상담을 5회 받았다. 상담을 거부하던 딸도 2주 전부터 상담을 받으며 변화의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김모군(중1)은 인터넷 게임과 음란동영상을 자주봤다. 인근 복지관에서 자가진단 척도를 한 결과 고위험군 진단을 받자 6회에 걸친 인터넷예방 집단상담을 받았다. 이후 김군은 음란동영상을 안보고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경기도와 연계해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술치료 및 통합치료로 인터넷 중독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 인터넷 · 게임 중독된 어린이 · 청소년 6만 8000여 명

어린이 ·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과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 과다사용 문제로 위험상태에 있거나 이용에 주의가 필요한 중독 위험군이 6만 8044명으로 집계됐다고 5월 30일 발표했다.

또한 서울시는 6월 14일 21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10대 청소년 고민 1위는 '인터넷 게임 중독' 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터넷중독에 빠지면 시간 감각이 없어져 시간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대인관계 및 학업 · 업무성과가 저하된다.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 컴퓨터 사용시간을 놓고 가족과 갈등을 일으키고, 폭언과 공격적 행동을 하는 등 반항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심할 경우 자기조절 실패로 인한 좌절감 등 우울감이 악화되기도 한다.

◇ 불교계 복지관 시 · 도와 연계해 중독 예방 프로그램 운영

전동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장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2009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사후 대책을 확대한 결과"라며 "하지만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학생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맞는 정신적 측면을 고려한 심화된 상담기법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국 시군 단위로 촘촘하게 설치된 186개 청소년상담센터나 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불교계 복지관 및 어린이 · 청소년 수련관도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수안)과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관)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인터넷사용이 가능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를 파견해 인터넷중독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실시 한 뒤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한다.

학생과 학부모 등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보령시청소년지원센터는 7월 27~29일 초등학생과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치유캠프 'e-세상 밖의 놀이터' 를 실시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몰두하다보니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기 관 명	프 로 그 램	전 화
구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실 운영	(02)838-1318
목동청소년수련관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02)2642-1318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서비스, 개인 상담 실시	(02)764-3524
달마학교지역아동센터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실시, 중독 관련 상담실시	(02)462-2289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집단 치료교육 및 상담실시	(031)989-2526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집단 치료교육 및 상담실시	(031)201-8300
보령시청소년지원센터	인터넷중독치유캠프(7월 27~29일), 집단 상담실시	(041)936-5710
아산시청소년지원센터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집단상담, 기초수급자 대상 방문상담	(041)532-2000
화엄지역아동센터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집단 치료교육 및 상담실시	(043)223-9995
구덕청소년수련관	인터넷 중독 수준별 상담,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안내	(051)240-4681
금정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인터넷 중독 상담 및 대안활동 프로그램	(051)581-2072
선원지역아동센터	인터넷 중독 안전교육 실시	(054)791-4943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집단상담, 통합미술치료, 음악치료실시	(051)405-5224

인터넷문화 바로알기 특강, 미술치료, 숲활동 등이 그것들이다.

아산시청소년지원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상담교사가 직접 방문해 1:1 개인면담을 한다.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은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합미술, 음악 등 다양한 치료기법을 활용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상담하고 있다.

◇ 중독, 불교적 해결 방법은?

인터넷 ·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2009~2010년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캠페인' 을 진행했다.

김정아 파라미타 기획팀장은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고쳐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목표와 동기 부여가 있으면 자기조절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현재 파라미타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주는 코칭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진영 동대부여고 교법사는 "인터넷 · 게임 등 중독에 걸리는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뚜렷한 동기나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불교사상에 입각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와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 조절력을 갖추게 돼 학업에도 열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명상상담연구원장 인경 스님은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인터넷 · 게임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다"며 "알아차림과 공감명상은 아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경 스님은 불교계는 "인터넷을 대신할 건강한 놀이문화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삶의 가치와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거제도 완주로 의지 다져

중증장애인시설 반야원, '걸어서 거제일주' 진행


중증장애인 11명이 6월 11~15일까지 거제지역 113㎞를 완주했다.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생겼어요."

성인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걸어서 거제도를 완주하는 행사가 열렸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반야원(원장 정련 · 내원정사 주지)은 시설에 거주하는 성인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6월 11~15일 '제2회 걸어서 거제일주' 를 진행해 성공리에 마쳤다.

행사에 참가한 장애인 11명과 교사 2명은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반야원을 출발해 거제, 고현, 옥포, 장승포, 구조라, 학동, 해금강, 저구, 율포 등 거제시 명소와 관광지 113㎞를 완주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련 스님은 "참가자들은 땡볕의 무더위와 소나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완주했다"며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성인중증장애인들에게 '무엇이든 도전하면 된다' 는 자신감과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반야원은 향후 성인지적장애인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의지력을 키울 수 있도록 거제 · 고성 · 통영지역 종주, 지리산 종주, 제주올레길 종주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055)632-1854

이나은 기자

경락마사지로 보살행 실천하세요

조계종 복지재단, 사암오행골기경락 수강생 모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이 제7기 사암오행골기경락 자원봉사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불교자원봉사 초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7월 2일~8월 27일 매주 월 · 수요일 오후 1~4시 전법회관 6층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사암오행골기경락 창시자인 정담 스님의 지도로 ▷골기경락 이론 및 실기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기술 ▷골기경락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 ▷활동처 자원봉사 체험 등 14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은 수료증을 받게 되며, 장애인 및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골기경락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해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골기경락 교육모습

'사암오행골기경락' 은 2008년부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전문화된 교육으로 2012년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주최한 '2012 재능나눔 프로그램' 에 선정되기도 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전화 또는 전법회관 6층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24년째 보훈가족에 장학금 전달

은평구사원聯, 제24회 호국영령 기원대법회 봉행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순국선열한 선조들을 기리고 보훈가족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 · 삼천사 주지)와 조계종 은평구협의회(회장 원담 · 수국사 주지), 은평구청불심회(회장 최명숙)는 6월 15일 은평구청에서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 를 봉행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이 행사에는 성운 스님, 김우영 은평구청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촛불봉정, 헌화가 진행됐으며 진관사, 수국사, 심택사 합창단의 음성공양과 중앙대 채향순 무용단의 추도 무용으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성운 스님은 법어에서 "중생심으로는 행복한 곳에 이를 수 없다. 이웃을 위한 봉사와 복지활동은 중생심을 버리는 데 좋은 방편이자 행복의 문으로 가는 길"이라며 "사부대중 모두 자비나눔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매년 대법회를 준비하고 은평구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 여러 스님과 불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서로 신뢰하고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가 보훈가족 자녀와 모범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어서 보훈가족과 모범공무원 자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8명에게 24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사원연합회 모범 신도 40명에게 구청장 표창이 수여됐다.

성운 스님은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는 복지 · 포교활성화를 위해 군부대, 교도소, 복지관 등에서 이웃을 도왔다"며 "그곳에 종사하는 모범공무원 가족과 보훈단체 유가족, 및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성운 스님은 "사원연합회를 통해 불교가 사회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효사 육임활용서 CD프로그램 大大 할인 판매

– '발전적 결심' 으로 한시(限時) 출고 합니다 –

◆ 육임활용 주요품목 ◆

• '효사비결' CD프로그램	120만원	정가 650만원(육임 당면사 일생사 / 띠별 성부 확정 / 종합)
• '군자수첩' CD프로그램	40만원	정가 103만원(육임부분 분개 장착)
• '고귀명수' 全 6권(휴대용 · 탁상용)	80만원	정가 350만원(육임운명판단법)
• '육임산책' 통권 / 全 6권(휴대용 · 통권)	50만원	정가 250만원(육임당면사 / 신수비결)
• '육임래정비법' 2011 증보판	15만원	정가 35만원 (왜 왔는가? 항목별 성부 단정)
• '육임풍수' 2011 증보판(통권 · 휴대용)	10만원	정가 25만원 (육친 / 좌향적시 / 묘지속 전경 / 후손 영고 등)

◆ 육임학습 주요품목◆

• 효사육임강론 上下	15만원	정가 45만원(육임종합학습서)
• 효사육임 1년 신수비결	8만원	정가 15만원(1년 월별 신수 / 가족 전체 길흉 등)



"최종품입니다. 더이상 변경하지 않습니다."

大大 할인기간

2012년 6월 25일 ~ 7월 6일 까지 (12일간)

"구입하신 후 효과성을 위해 지방도 직접 방문,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 효사 –

육임나라주식회사 02)738-8680

wwww.taotemple.net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 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
국 민 006001-04-236454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간편성이 보장된 이 시대 최고의 상담친견용 활용서 및 CD프로그램입니다.

“자녀교육은 그 자체가 바로 불교 수행”

‘가정에서 시작하는 불자의 길’

듀크대 불교공동체 지도법사-수미 런던 (Sumi Loundon)

바쁜 일상 속에서 육아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6월 16일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서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불자의 길’을 주제로 명상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국제선센터가 가족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초청강연이다.

이날 특강에는 듀크대 불교공동체 지도법사인 수미 런던(Sumi Loundon)이 강사로 나서 명상을 통한 자녀 교육법과, 가족 간 갈등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6월초 방한한 수미 런던은 “자녀를 교육하는 일은 그 자체가 바로 불교적 수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집중해야 하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불교 가르침을 자녀교육과 가정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해 강연했다. **정리=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자녀 양육 힘든건 ‘나’ 못버려서다

어느 한국인 할머니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되는 것은 보살이 되는 거야”

저는 첫 아이를 낳고 아이를 끊임없이 보살펴야 한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30분이 멀다 않고 잠에서 깨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 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보살’처럼 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맘 편히 명상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아이를 돌보면서 명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였습니다. 그러다 첫 아이가 6개월이 됐을 때 깨달았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만이 불교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양육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불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라고 자신의 이름이 불려 지기보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려 지게 됩니다. 자녀가 생긴 후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누구 엄마’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힘들어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보다는 ‘타인’의 욕구에 더 마음을 쓰고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급히 먹지 않고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 ‘마음챙김’으로 연결되게 되더군요. ‘나’ 자신을 통제하고 아이에게 집중하다 보면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고 ‘마음챙김’ 수행의 토대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자기 자신 속에 내재된 지혜의 통찰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무한애정 쏟아야

부모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보살도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할머니·할아버지들처럼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쏟아줘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네가 내 딸이어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자녀들만 핸드폰을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계속 핸드폰에 신경을 씁니다. 아이를 돌볼 때에는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무조건 ‘하지마’ ‘안돼’ ‘조심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짜 그 상황이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상황인지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꼭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콜중독자이면서 폭력도 일삼았습니다.

저의 어머니 또한 외할머니한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모가 어린시절 돌아가시자, 외할머니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저는 아이를 한 번도 때려 본 적이 없지만, 어느 날 아이가 밥을 먹다 흘리자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순간 아이가 저를 굉장히 무서워했지요. 밥을 흘린 것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아이를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식교육은 그 자체가 바로 수행입니다. 아이들이 불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는 씨를 뿌려줘야 합니다. 당장 아이가 어떤 성과를 보이지 않아도 믿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해 낼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저는 아이가 등교 전에 반드시 아이를 안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과정을 통해 안정을 얻게 되지요. 아이는 등교 전, 자신이 오늘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할 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게 되고, 마음속에 안정을 얻게 됩니다.

되도록 집안에서는 비디오, 컴퓨터, TV 등은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고요함을 심어주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끄러운 요소들이 배제되면 부모와 아이는 좀 더 친밀하게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아버지들의 행동에 더욱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을 할 때 주의할 것은 절대 아이들에게 강요해선 안 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명상이 성적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적향상을 이유로 아이에게 명상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 하게 되면 아이 스스로는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알기 위함보다, 너를 위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행복할 때 자신이 더욱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침에 예불을 간단히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초와, 향 공양을 올리고 목탁도 칩니다. 이는 저희 부부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아이들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제 아들은 혼자서 명상도 합니다. 불교를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이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요다를 보고 따라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라스트 에어벤더’ ‘아바타’ 등의 만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때론 이런 미디어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보살’이 되자
자기 중심 벗어나야 좋은 부모
아이에 집중할때 ‘마음챙김’ 상태
아이 돌볼때는 핸드폰 멀리하길

불교적 삶 살도록 씨 뿌려줘야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라
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 중요
‘성적향상’ 명상광고 보고 놀랐다



수미 런던은 ‘가정에서 시작하는 불자의 길’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불성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자녀를 위한 자비명상을 실시하고 있다.

자비명상하면 가족들 긍정적 변화

부모들은 자주 ‘내가(당신이) 자유롭게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번뇌·집착 벗어나 편안히 잘 살 수 있길 발원합니다’라고 반복해서 마음으로 되뇌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자비명상’을 하게 되면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려워 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상대의 이름을 넣고 되뇌이면 더욱 좋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황홀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나의 감정을 바로보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화나는 일을 계속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 자녀와 가족들이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워 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미 런던(Sumi Loundon)은…

2001년 하버드대학 신학대학원 불교학 및 산스크리트어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윌리엄스대학과 하버드대학 재학 당시 불교학생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졸업 후 배리불교학연구센터(Barre Center for Buddhist Studies) 부소장을 지냈으며, 국제불교지도자단(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Ministers)에서 계를 수지했다. 현재 듀크대학 불교공동체 지도법사로 활동 중이며, 듀럼불자가족회도 지도하고 있다. 저서로는 남편과의 인연을 담은 〈수미, 일미를 만나다〉, 〈청바지를 입은 부처〉, 〈붓다 그 첫 만남〉 등이 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일반 마이크 V-620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정서치유를 위한 승마훈련과 禪무드라 명상 테라피’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함월산 선무도총본산 골굴사의 선무도 화랑사관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치유를 위해 제 41회 (21년전통) 여름계절 학기를 개최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1.「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와 심신치유 프로그램 2. 승마 정서치유와 호연지기
3.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 언 제 : **2012년 7월 22일 ~ 2012년 8월 25일 (5주간)**
※ 모 집 인 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0-15시 입산. 토요일 12시 하산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 련 회 비 : 1주 - 49만원 / 2주 - 90만원 / 3주 - 110만원 / 4주 - 13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수건·필기도구·운동복·운동화·모자·개인 컵 등(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 접수 및 문의 : TEL 054)775-1689 / 054)744-1689 / 홈페이지: www.sunmudo.com
※ 환불규정 : 입소당일 취소는 하루수련비(7만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교육프로그램 : 1. 건강회복·심신단련 :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2. 호연지기 :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
3. 심성정화 : 108배, 참선, 운력, 텃밭가꾸
4. 정서치유 : 명상테라피, 선무드라 테라피, 상담치유, 미술테라피, 무용테라피, 전통음악테라피(판소리,전통악기),생태체험치유
5. 교양수업 : 문화관광(성지순례, 박물관) 원어민 영어회화, 불교강의와 한문교육, 다도



1500년 전통사찰·연인원 4만명(외국인 템플스테이 6천명)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선무도 화랑사관학교

25년간 불거진 '보조 사상' 논쟁 재조명

6월 30일, 보조사상연구원 100회 특집 월례 학술대회

수행실천운동인 정혜결사로 한국불교의 기틀을 세운 보조국사 지눌 스님(1158~ 1210년).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연구해 널리 알린 보조사상연구원 정기 월례학술대회가 100회를 맞는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 법산 스님)은 6월 30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00회 특집 정기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쟁점으로 본 보조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보조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하며 불거진 논쟁들이 다뤄진다.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보조 지눌 스님이 한국불교에 전한 가르침을 되새기자는 취지다.

학술대회 제1주제에는 이병욱 고려대 교수의 '성철 스님은 왜 보조선을 비판했는가'가 진행된다. 제2주제로는 동방대학원대 교수 인경 스님의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공존할 수 없는가', 제3주제로는 박건주 전남대 교수의 '〈절요사기〉와 〈간화결의론〉에서의 간화선 법문과 그 문제점'이 발표된다.

특히 이병욱 교수는 먼저 발표된 '성철스님은 왜 보조선을 비판했는가' 발표논문에서 성철 스님이 〈선문정로〉와 〈한국불교의 법맥〉에서 지눌 스님의 사상을 비판한 내용을 살펴보고 타당성에 대해 검토했다.

이 교수는 "성철 스님은 〈한국불교의 법맥〉에서 보조 지눌 스님이 〈간화결의론〉에서 활구 참구할 것을 말하면서도 교학적 이해에 의한 깨달음을 지지하였다고 비판했다"며 "그러나 보조 지눌 스님은 활구참구 외에도 교학에 의한 수행을 포용한 것으로 두 스님 간의 방편을 인정하느냐 않하느냐 태도의 차이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방편을 인정하지 않는 순수한 선종을 주장한 성철 스님에 비해 보조 지눌 스님은 유연한 입장에서 방편을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계에 돈점논쟁 바람 일으켜
성철의 보조선 비판 검토
간화선과 위빠사나 공존 모색
보조 간화선 진위 다뤄져

이 교수는 여기에 더해 "성철 스님이 보조 지눌을 비판한 것을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수행론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수행론은 돈오점수, 돈오돈수, 위빠사나 수행 등을 모두 포용하는 것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경 스님도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공존' 논문에서 보조 〈수심결〉에서 사띠 수행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정념의 부분을 강조한 점과 원나라 중봉 스님이 사띠수행을 간화선 화두수행의 기초로 삼은 점을 들어 "사띠가 없으면 화두 참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건주 교수(전남대)는 '〈절요사기〉와 〈간화결의론〉에서의 간화선 법문과 그 문제점' 논문에서 "진각혜심 스님은 보조 스님이 입적 수개월 전 저술해 입적 후 간행한 〈절요사기〉에서 교묘히 간화선 법문을 위조해 끼워 넣었다"며 "간화선을 최상 선법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나 사실은 보조가 그런 법문을 펼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고려 무신정권 하 의도적으로 펼쳐진 간화선 번창 운동은 당시 여러 정치사회적 상황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조사상연구원은 1987년 2월 창립 25년간 22회의 국내외 학술대회와 100회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창립 당시 송광사 주지였던 현호 스님이 이사장을, 법정 스님이 원장을, 故 이종익 · 심재룡 교수를 비롯해 법산 스님 권기종 길희성 한기두 박성배 로버트 버스웰 등 한국불교학 대표학자들이 발기인으로 동참했었다. 연구원은 1990년대에는 돈점논쟁 주역으로 교계에 깨달음의 토론 열풍을 불러왔으며 이는 성철선사상연구원 개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 교계 최초 학진등재지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학), 박영재 교수(서강대), 임승택 교수(경북대) 등 국내 보조사상 전문가 등이 그동안 토론회를 통해 배출된 학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송광사 국사전에 있는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진영

금강대 개교 10년 한중일 교류

중국 런민(人民)대 · 일본 도요(東洋)대와 공동연구 진행

금강대(총장 정병조)가 개교 10주년을 맞아 중국 런민(人民)대, 일본 도요(東洋)대와 함께 동아시아 불교학술교류를 추진한다.

금강대는 6월 22일 서울 을지로입구 페럼타워에서 중국 런민(人民)대 · 일본 도요(東洋)대와 '불교의 동아시아적 변용'이라는 대주제 아래 향후 10년간 매년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비롯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첫 학술대회로 6월 22~2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주관 하에 '동아시아에 있어서 불성 · 여래장 사상의 수용과 변용'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인도에서 기원한 불성 · 여래장사상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수용되는 과정과 그 변용의 양상에 대해 다뤄졌다.

이어 22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SK 허브빌딩에서는 3개 대학 대표인 정병조 금강대 총장, 일본 다케무라 마키오(竹村牧男) 도요(東洋)대 총장, 중국 양훼이림(楊慧林) 런민(人民)대 부총장의 대담이 진행했다.

대담에서는 세 대표는 △불교의 동아시아에서의 수용과 변용에 대한 입장 △인문학으로서의 불교학의 위치 △현대사회와 미래에서 불교, 불교학의 역할 △미래 대학의 사회적 역할 등을 논의했다.

정병조 총장은 "중국 인문사회과학을 주도하는 런민(人民)대와 125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 도요(東洋)대와 공동 연구 진행은 불교가 동아시아에 전래되어 3개국에서 번창했던 7~8세기 불교의 연대를 다시 되살리는 의미가 있다"며 "동아시아가 다시금 세계불교학 연구의 중심축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정병조 총장(가운데)과 중 런민대, 일 도요대 총장이 협약을 맺고 밝게 웃고있다.

'근현대불교사연구모임' 발족한다

7월 17일…무크지 발간, 한일공동세미나 등 사업 전개

일제시대 한국불교를 비롯해 근현대 100년의 한국불교를 집중 연구하는 학술모임이 발족한다.

근현대불교사연구모임 발기인들은 6월 19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7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근현대불교사연구모임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에는 이사장에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부이사장 법산 스님(보조사상연구원장), 상임이사에 포교원장 지원 스님, 이사에 진관, 지원, 송묵, 법상, 도관, 묘광 스님이 참여한다. 연구소장에 진관 스님(문학박사)을 축으로 책임연구진에 차차석 교수(동방불교대학원대학교) 진철문 박사(철학)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발기인들은 "근대 불교 100년사의 역사연구를 통해 한일 불교 역사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조선 개화기 이전의 조선불교 △조선개화기 선불교의 태동과 재가불자들의 역할 △고종 시대 이후 조선불교의 활동 △도성출입금지 해제의 역사성 △일본불교계의 조선 포교당 설치 △조선총독부 시대 조선불교 등을 연구과제로 꼽았다.

진관 스님은 "근현대불교와 관련된 무크지를 발간하며, 한일 불교 공동세미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일제 강점기 불교계 항일운동 조명

불교사회硏 6월 29일, 3개 주제로 학술토론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6월 2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한국 호국불교 전통의 재조명'과 '조선시대 의승군 연구'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의 연장선상이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한국불교 전통으로 전해온 호국불교가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양상과 그 역할을 조명한다.

먼저 이동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1920~30년대 진보적 불교계 인사들의 민족운동'을 통해 진보 불교인사들이 북경지역 한인민족운동을 주도했음을 밝힌다.

이어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불교의 민족운동'을 통해 3 · 1운동 이후의 불교계 민족운동 흐름을 고찰한다.

또 한금순 제주대학교 강사가 '1910년대 불교계의 동향과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을 통해 3 · 1운동 이전의 불교계 항일운동을 다룬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최초의 항일운동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종립대학 간 학생 및 학술교류 한다

동국대 · 금강대 등 5개 대학 참여의사 밝혀

불교 교육과 연구에서 협력과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된 불교종립대학 총장협의회(회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가 6월 18일 종립대학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정병조 금강대 총장, 김명권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 배도순 위덕대 총장 등 불교종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원대학 총장들은 △학생(대학원생 및 학부생) 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교육과정 및 방법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교직원 상호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의 공동 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 교환 △시설물의 상호 이용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대학교육과 연구의 전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회원대학 본부장들은 '학점교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교환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립대학 학생들은 최대 1년간 교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불교 종단 간 협력을 비롯해 종립 대학 간 교류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7월 12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7월 13일(금요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부교육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송광사·선암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순천시, 6월 11일 등재 위원회 구성

한국 정신문화의 산실이자 불교문화의 보고인 전남 순천 송광사와 선암사의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6월 11일 전남 순천시는 "송광사와 선암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세계유산 등재의 선행과제인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 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올 11월까지 이 잠정목록 신청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잠정목록 등재와 함께 ▷조계산 생태문화 자원에 대한 조사 ▷조계산 불교문화의 사상 및 문화유산적 가치 등에 대한 학술조사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계산과 송광사, 선암사의 보존 관리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지난 2월 선암사를 방문해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사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논의는 지난 2월부터 사찰조경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5월 10일 문화재청 주관으로 개최된 세계유산등재 추진 대상 발굴 세미나서도 조계산 사찰군이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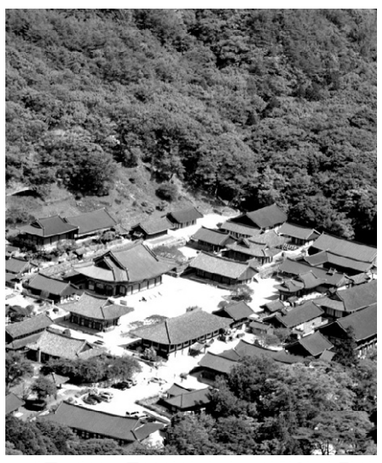
조계산은 해발 884m로 산세가 험준하지 않으며 낙엽활엽수로 덮여 있어 계절마다 자연의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명이 수백년 되는 상수리, 동백, 단풍, 밤, 느티나무, 산벚나무 등이 울창한 자연경관 속에 한국 불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송광사…16국사 배출한 승보종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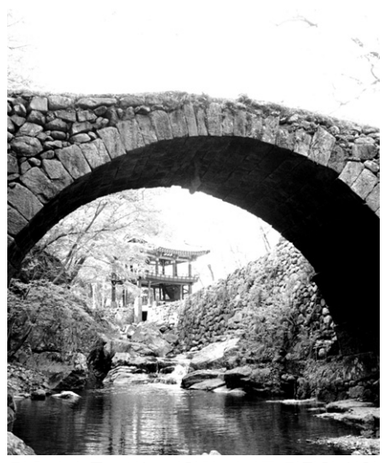
선암사…3천여 동산 문화재 보유

송광사, 선암사가 자리하고 있다.

송광사도 신라 혜린대사 창건이후 보조국사를 비롯한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의 종찰로 116여 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송광사 국사전 등 35점의 지정문화재와 2만여 점의 동산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불교의 대표적 사찰이다.



조계종 제21교구본사이자 승보사찰인 송광사 전경



건축미가 돋보이는 아치형 다리를 간직한 선암사 승선교

또한 선암사는 백제시대 아도화상이 창건한 사찰로 31본산의 하나이며 현재 46여 동의 건물과 3000여 동산 문화재를 보유한 태고종의 총본산이기도 하다.

순천시는 조계산 송광사·선암사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 외에도 낙안읍성 문화유산과 순천만(서남해안 갯벌) 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도 함께 추진 중이다.

순천시의 한 문화재 관계자는 "송광사와 선암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많은 국보급 문화재들이 많이 보유돼 있어 충분히 세계 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많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향림사 목조여래좌상 16세기 조성

향림사, 문화재 등록 추진 예정

광주 향림사에서 소장중인 목조여래좌상〈오른쪽 사진〉이 과학적 분석 결과 16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향림사(주지 혜향)와 충북대 산학협력단은 6월 17일 향림사가 보관중인 목조여래좌상에 대한 조사보고서에서 "지난 2월부터 연륜연대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실시한 결과 1552~1617년 사이에 벌채된 목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충북대 연구팀은 불상에 사용된 목재의 재질을 분석하기 위해 수종분석과 연대를 밝히기 위한 연륜연대 및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실시했다.

불상의 각 부위별로 미세편을 채집한 후 실시된 수종분석에서 몸체와 복장구는 소나무류(적송류)로, 수인은 버드나무속으로 식별됐다.

또 불상의 밑면에서 4개의 나이테를 채취해 고정밀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실시한 결과 향림사 불상은 1552년~1617년 사이에 벌채된 목재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림사 목조여래좌상은 천운 스님이 모셨던 원불로, 지난 1973년 순천 무량사 김법륜행으로부터 인계를 받았으나 당시 복장물이 없는 상태라 복장불사와 개금을 하였다고 한다.

불상은 높이 54㎝으로 결좌부좌를 취하고 있으며, 살찐 얼굴에 치켜 뜬 눈, 곧게



뻗은 코, 살포시 다문 입에서 미소를 머금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인상을 하고 있다. 착의법은 오른쪽 어깨를 노출한 편단우견(偏袒右肩)의 약식으로 통일신라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이다. 특히 왼쪽 어깨를 따라 앞뒤로 둥글게 말린 대의 자락이 길게 늘어지고, 복부사이에 펼쳐진 폭이 넓은 옷주름은 16세기 중후반 불상의 보편적 특징을 갖고 있다.

향림사 부주지 법원 스님은 앞으로 "천운 스님이 보관했던 서적과 함께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향후 전시회나 박물관 대여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친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맑고향기롭게 광주지부 창립 15주년 음악회 개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맑고향기롭게 광주모임이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지부장 고현)는 7월 7일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대강당에서 범능 스님, 김병조(방송인),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 청심행 등이 출연한 가운데 광주지부 창립 15주년 기념 및 공양나눔의 집 개원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공양나눔의 집은 지난 6월 11부터 시범운영하는 지역 봉사활동 공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인근에 80여 평의 공간을 마련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0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1000원의 식대로 점심을 공양하고 있다.

행사에는 '이등병의 편지' '가을우체국 앞에서'를 작사, 작곡한 김현성이 이끄는 밴드인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이 출연하여, 법정스님의 산문집을 읽고 만든 음반 '무소유의 노래'를 선보인다. 또한 노래하는 스님 범능 스님과 방송인 김병조씨가 출연하여 법정 스님과의 인연을 이야기로 풀어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머같은 지리산 살려내야"

생명평화결사 6월 17일부터 '지리산 살리기 운동' 펼쳐

최근 댐건설과 케이블카 시범사업 유치로 논란이 된 지리산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 적극 대응에 나섰다.

'생명평화결사'는 6월 15~17일까지 실상사 대중방과 지리산 인근에서 '지리산의 품에서 모든 생명들이 춤추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지리산 생명평화 순례학교를 열었다.

이날 지리산 순례학교에는 김경일 생명평화결사 위원장, 이병철 前 귀농운동본부 본부장, 이병채 남원문화원장, 우두성 구례문화원장, 최화연 지리산생명연대 사무처장, 김광철 지리산종교연대 목사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생명평화결사는 이번 행사에서 "2001년 국민운동으로 막아냈던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함양군과 정부의 계속된 밀실야합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리산 일대 4곳 지자체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며 "어머니 같은 지리산을 생명평화운동의 성지로 지켜낼



생명평화결사는 6월 16일 지리산 노고단에서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반대하고, 용유담을 명승지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생명평화결사는 지리산 종교연대(상임대표 해강)등 지리산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100일 동안 지리산 둘레길과 마을길을 걸으며 지리산에 깃든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평화를 기원하고 지리산댐 건설계획 백지화와 용유담 명승지정을 촉구하는 '지리산 살리기 운동'을 펼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리산댐(문정댐)은 경남 함양의 용유담 하류 3.2km 지점에 건설예정으로 댐 높이 141m(50층 높이) 총저수량 1억7천만 톤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홍수조절용으로 발표됐으나 지리산 공동연대는 식수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용유담이 모두 수몰되는 것은 물론, 구산선문 최초가람인 남원 실상사 1km앞까지 물이 들이차게 된다. 이밖에 벽송사, 서암, 금대암, 영선사 등의 진입도로인 남원~산청구간의 60번 국도가 수몰돼 사찰의 고립이 우려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음식으로 자연평화 지켜내자

전북불교시민연대 사찰음식 강좌 개설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유통과 더불어 건강한 음식 소비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찰음식 강좌가 전주에 최초로 개설돼 인기를 끌고 있다.

전북불교시민연대(공동대표 유지원외)는 구 도청 (사)한국음식문화협회 강의실에서 지난 5월 강좌를 개설하고 7월까지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총 18명의 수강생이 신청해 사찰음식에 담긴 철학적 의의 등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메뉴선정은 자연(사찰)음식의 특징을 가진 식재료와 제철 농산물, 현대인의 건강, 식생활에 적합한 메뉴인 △두부소박이 △전통 떡 △표고버섯 우엉밥, 들깨탕 △연근김치, 늙은 호박전 △우엉잡채, 더덕장떡 △연잎 밥 △천연 조미료 만들기, 여름건강간식 △감자옹심이, 표고버섯 탕수육을 선정해 이론과 함께 조리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사진은 자연음식연구가인 혜각 스님과 백희정씨, 자연평화식당을 운영하는 유지원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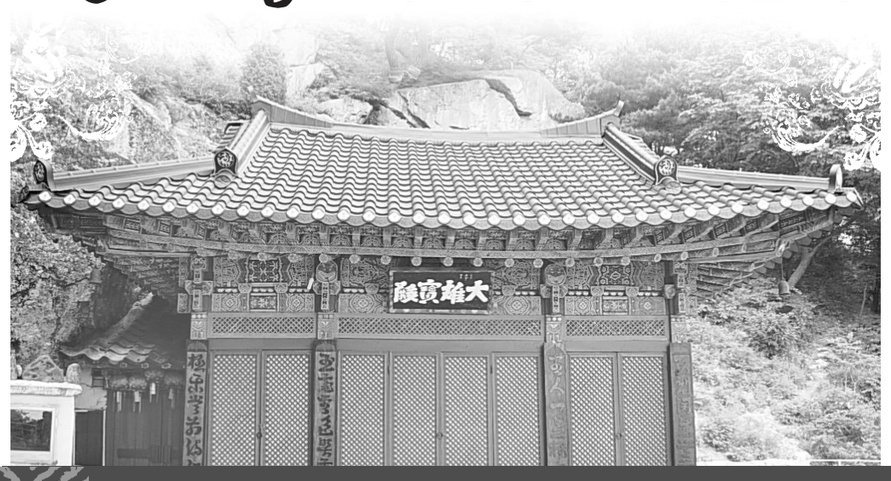
유지원 대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취지를 살려 일반인들이 생활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친 생명 평화적 자연음식을 보급하고 알리려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연음식 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사찰음식은 단순히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자연친화적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철학이 담겨있다"며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 앞으로 봄가을로 나뉘어 정기적으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빈그릇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으며 강좌가 종료된 후에도 선방이나 사찰을 찾아 대중공양을 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고민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

법륜 스님, 부산 KBS홀 강연에 인파 몰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의 즉설즉문 강연이 6월 16일 부산 KBS홀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은 ‘2012년 희망 세상 만들기 전국 시, 군, 구 강연회 여름 100회 강연’의 67번째 강연이다.

법륜 스님은 강연 시작에 앞서 “우리 인생 얘기를 해보자. 친구가 친구에게 얘기하듯 그렇게 얘기하며 재미있게 놀다 가자”라고 밝히며 명쾌한 즉설과 특유의 재치로 청중들에게 웃음과 박수를 이끌어 냈다.

부처님 가르침을 알기 쉽게 현대적 언어로 풀어 설명하는 법륜 스님의 설법은 남녀노소, 종교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개인 고민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며 구수한 사투리를 섞어 자칫 경직될 수 있는 강연 분위기를 유머로 풀어내는 재치도 빼놓을 수 없다.

법륜 스님은 30대 후반의 아들이 장가를 안가서 속탄다는 질문에 “아들이 장가가는 것은 아들이 결정할 일로 대신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정말 그것이 걱정이라면 아들이 60에 가까운 나이에도 장가가지 않는 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라고 답해 폭소를 유발했다. 이어 법륜 스님은 “그저 건강히 지내는 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위로했다.

법륜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

“사람마다 신체구조에 대한 열등감을 가

아들 장가 안가, “나도 안가”
건강에 감사하면 걱정 사라져

지고 있는데, 신체는 좋고 나쁨이 없으며 작다고 못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일 뿐이며 그것이 바로 ‘공(空)’입니다.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라 착각할 뿐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 삼라만상의 만 가지 번뇌가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법륜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즉문즉설을 통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 즉 사실상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며 “이것이 곧 반야심경의 ‘공(空)’을 이해하고 삶의 지혜로 삼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3000명 입장 가능한 이날 행사에는 5000여명의 인파가 몰려 강당 안은 가득찼다. 강당 안에 입장하지 못한 참가자들은 통로와 바닥에 앉아 복도에 설치된 TV를 통해 강연을 들었다.

한편, 최근 안철수 원장의 멘토로 알려지면서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법륜 스님의 이번 여름 강연은 5월 1일 울산서 출발해 100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여름강의 회향 법석은 8월 20일 저녁 7시 부산 KBS홀에서 개최된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법륜 스님의 강연에서 참가자들은 스님과 웃고 울으며 그동안 가슴의 응어리를 풀었다.

‘노인 학대인식의 날’ 부산 곳곳서 효 행사

6월 15일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EAAD)을 기념해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시 동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제7회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기념식’이 6월 15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노인의 대처능력 향상으로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16개구·군 각 단체 노인일자리사업단과 함께 박호국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장, 손상용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이광영 국가인건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을 비롯한 700여 명이 참석했다.

前조계종 포교원장으로 현재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혜총 스님은 “60~70년 격동의 한국을 이끈 주역인 70~80대 분들이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재앙”이라며 “사회가 노인의 안전과 더불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공동협력하기 위한 ‘실버인권지킴이단’과 ‘실버스마일 사업단’ 발대식이 진행됐으며 노년기 정신건강에 대한 특강과 실버밴드공연 등 다채로운 기념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다음날인 16일에는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분포복지회와 함께 해군작전사령부의 후원으로 부산환경공단남부사업소에서 저소득 독거어르신 300여 명을 모시고 ‘어르신 효 큰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큰잔치는 두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잊혀져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노령화 사회, 독거노인시대에 소외받는 어르신을 위로하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혜총 스님이 노인사진전을 둘러보고 있다.

(사)부산불교포럼, 수불 스님 초청법회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회장 허인구)이 6월 19일 코모도 호텔에서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초청 법회를 열었다.

허인구 회장은 “불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 자체”라며 “한국불교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부산에서 불교지도자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자포럼의 책임이 막중하다. 부산을 대표하는 모범적인 재가불자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불 스님은 법문에서 “지도자 포럼 회원들이 현재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 더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수사 주지 유정 스님, 이윤희 부산불교연합 신도회 회장을 비롯한 15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지역 불자 기업인과 행정기관 관계자들이 연대해 2006년에 창립한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은 부산지역 불교 학술 행사와 대학생 불교 단체를 후원해 오고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생명나눔 부산 본부… 백일장 열어

장기기증 결연과 환자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펼쳐온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선암사 주지)는 6월 16일 부산연합회교육관에서 부산시 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제 5회 생명나눔 시·산문 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나라의 기둥이며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생명의 꽃, 장기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깨닫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개최하고 있다.

본부장 원범 스님은 “본 행사가 인간의 생명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고 청소년들의 생명나눔 문화를 정착시키며 이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등부 주제는 ‘고민, 대화’, 고등부주제는 ‘뿌리, 달빛’이었으며, 부산광역시장상을 비롯한 10개 부분으로 나누어 시상되는 이번행사의 결과 및 시상은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지역소식

월드승가회 독도수호수륙대제 봉행

공익법인 월드승가회(회장 무송)가 주최하고 독도수회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독도수회국행수륙대제가 경북도청 독도수호팀의 후원으로 지난 6월 6일 경북 포항 호미곶에서 봉행됐다.

월도승가회 사무총장 법봉 스님은 봉행사에서 “신라불교는 ‘통일불교’, 고려불교는 ‘호국불교’, 조선불교는 ‘구국불교’라고 칭하는데 이시대의 불교는 무엇으로 정의하여 물려줄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지금 대한민국의 불교는 ‘수호불교’로서 국권을 수호하여 영토를 지키는 것이 곧 불교를 수호하는 바탕이 됨을 명심하자”고 당부했다.



공익법인 월드승가회는 건국열사 및 애국지사 추모, 한국전쟁 참전유엔군 전사장병 위령 및 참전부대 위문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세상을 향기롭게’ 사무소 개소식

(재)세상을 향기롭게(이하 세향기) 법인사무소 개소식이 6월 8일 해운대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세향기 법인설립추진위원회 대표 정여스님(前 범어사 주지)은 “끼니를 거르는 어려운 이웃,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아파하는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며 “국내외의 어려운 이웃을 따뜻한 손길로 감싸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설립취지를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화산 스님, 범어사 금강암 암주 정만 스님,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 김영종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임혜경 부산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여여정사와 여여선원의 200여 신도들이 참석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대구 불광사, 여래불 이운 7일 기도 법회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장 돈관)는 6월 20일 동방 약사여래대불 이운 7일기도 법회를 봉행했다. ‘고통 받는 이에게 마음의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밝은 빛이 한량없이 많은 세계를 두루 비추고 거룩한 모습으로 장엄하되 모든 중생들이 저와 같이 되기를 기원’하는 약사여래 12대원을 발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직지사 노인요양원 미소동 개원

‘직지사 노인요양원’(경북 김천시 대항면)이 건물 한 동을 증축했다. 6월 19일, 직지사 노인요양원은 지상 3층 연면적 2천 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증축건물 ‘미소동’ 개원식을 가졌다.

이번 직지사 노인요양원 ‘미소동’ 증축에 따라 기존 수용인원 50명에서 98명으로 대폭 늘렸다. 현재 직지사 노인요양원은 66명의 중증 질환자 어르신이 입원중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불교방송 문예마당 개최

대구불교방송과 대구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함께 주최하는 제8회 ‘꿈이 있는 문예마당’이 6월 23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 ‘월곡역사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기와 글짓기, 4컷 만화 그리기와 디지털카메라 사진촬영 등 4개 분야로 나눠 열렸다. 대구불교방송은 심사를 거쳐 우수작 300여점을 선정한 뒤 다음달 7월 10일 대구불교방송 홈페이지(www.dgbbs.co.kr)를 통해 발표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010-3565-2462 혜오원장 스님
  총무원 팩스 070-4187-4747
  종정사서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사서실장 : 석대자비) (사무총장 : 석능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겸
부 회 장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원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종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비구니원
원로의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총무부장 석도현 교무부장 석능현
재무부장 석종률 문화부장 석법륜
포교부장 석해안 감사부장 석수진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종단발전협의회
회 장 석우암 부회장 석원명 총 무 석현종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이사진 및 정회원 수시모집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름같이 걷다보니 법향에 젖어드네

⑤ 북한산 '흰구름길' - 화계사와 삼성각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여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 그 생동감 자체에 행복을 느끼게 된다. 북한산 둘레길은 번잡한 도심에서 가까운 싱그러운 초록의 호젓함이 남아있는 곳이다. 몸의 감각을 열고 호젓한 둘레길을 걸으며 숨을 가다듬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됨은 물론이다.

북한산 둘레길 3구간은 흰구름길이란 이름이 붙어있다. 거리 상으로는 4.1km. 먼 거리는 아니지만 막상 걸어보면 '아! 등산하는 분위기인데?'라는 생각이 든다. 둘레길을 오르다 보면 서울 아래가 한눈에 들어온다. 흰구름이란 명칭이 이 때문에 붙어있음이랴. 600년 한양 도읍지를 품에 안고 펼쳐진 길을 따라 걷다보면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서울의 옛이야기도 돌아볼 수 있다.

흰구름길이 시작되는 이준열사묘역 입구는 수유역 1번 출구에서 강북01번 버스를 타고 통일교육원에서 내리면 된다. 반대쪽인 북한산생태숲은 길음옆 3번 출구에서 1014번과 1114번 버스를 타면 된다.

흰구름길의 길들은 다소 좁지만 중간중간 성철 스님의 법어록 같은 명구 푯말이 있다. 3구간 시작점에는 2010년 개장한 북한산 둘레길 탐방안내센터가 있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북한산 둘레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살필 수 있으며 필요한 모자나 두건 같은 기념품도 구입할 수 있다.

본격적인 둘레길은 통일교육원 옆 샛길을 진입하면서 부터다. 국내 유일의 통일교육기관인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철문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아무래도 길 자체는 조금은 삭막한 느낌이다. 옆에 쳐진 철조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택 담장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뒤로 펼쳐진 울창한 숲이 계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발길을 이끈다.

3구간 둘레길 왼편으로는 주택가가 가까이 있어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및 휴계시설이 잘 정비돼 있다. 산내음 가득한 주변에서 마을주민들이 체육시설물에서 몸을 움직이며 어르신네들은 게이트볼장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

길을 계속 걷다보면 화계사 일주문이 빼꼼히 머리를 내민다. 화계사 역시 일주문 바로 앞까지 주택가는 이어진다. 학교도 인근에 있는데 평일 오후 수업을 마칠 시간이었나보다. 아이들이 화계사 앞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조용한 둘레길의 모습과 대비된다.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숭산 스님의 제자인 미국인 현각 스님이 쓴 이 책 한권으로 더욱 세간에 많이 알려진 화계사다. 화계사는 1522년(조선 중종 17년)에 신월선사가 창건했다. 고려 때 법인 대사 탄문(法印大師 坦文)이 화계사 인근에 보덕암을 세우고 오랫동안 법등을 이어왔는데, 신월 선사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 짓고 절 이름을 화계사라 명했다.

화계사가 창건된 조선시대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던 시기였다. 흥미로운 점은 불교 탄압 정책에도 실제로 왕실에서는 불교를 믿었다는 것이다. 화계사는 1618년(광해군 10년)의 큰 화재와 오랜 세월로 인해 건물이 퇴락하자 이듬해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시주로 재건됐다. 왕실의 비호 아래, 절의 특색을 살리면서 발전해온 화계사는 흥선대원군의 원찰이라 불릴 정도로 흥선대원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866년(고종 3년) 사찰이 다시 퇴락하자 흥선대원군의 시주로 중창됐는데 그래서인지 조선후기 명필로 알려진 흥선대원군의 흔적을 화계사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 1933년에는 한글학회 주관으로 이희승, 최현배 등 국문학자 9인이 화계사에 기거하면서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집필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숭산 스님에 의하여 시작된 국제선원의 산실인 화계사는 1991년 대적광전을 창건하고 4층에 국제선원을 개원해 외국인 스님들이 현재도 용맹정진하고 있다. 현재 숭산 스님의 제자로 국내외에서 수행과 포교에 힘쓰고 있는 스님들은 현각 스님(미국), 대봉 스님(미국), 무심 스님(미국), 청안 스님(헝가리), 현문 스님(폴란드) 등이 대표적이다. 안거 기간이어서일까. 스님들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화계사 대웅전 앞 느티나무 그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다시 발길을 재촉해 화계사 왼편의 둘레길을 걸었다. 화계사 일주문을 바라보고 가는 길에서 왼쪽은 둘레길 오른편은 칼바위 능선과 그 아래 자리한 삼성암으로 가는 길이다.

내려가는 길보다 올라가는 길이 더 많은 느낌이 들었다. 3구간은 이렇게 조금씩 위로 올라간다. 전망대까지 치면 전체 구간 중에서 고도가 제일 높다고 한다.

역사 만나고 인물 만나는 코스
성철 스님 어록 등 명구 푯말 눈길
숭산 스님 원력 서린 화계사 지나
칼바위 아래 삼성암서 한숨 돌려

오랜만에 마주하는 내리막. 내리막도 역시 짧게 끝나지 않는다. 한참을 걸어내려가야 하는데 돌로 된 계단이 단정하게 잘 배치되어 있다. 아니 벌써? 바로 흰구름길 종착점인 빨래골공원지킴터다. 속옷 빨래터란 이름은 궁에서 궁녀들이 이곳까지 빨랫감을 들고와 빨래를 했다고 해 붙은 것이다. 계곡이라고 부르기에 좁은 개울이지만 넓은 평지가 있어 당시 궁녀들 여럿이 모여 빨래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았을지 추측만 된다.

3구간 둘레길은 화계사와 빨래골공원지킴터가 그나마 평지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근처에 가게 같은 것은 없으니 사전에 음료수 등은 준비해야 한다.

보이는 돌로 만든 계단이 3구간의 끝을 알린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돌들이 앙증맞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푯말이 길을 걷는 이들의 눈을 머물게 한다. 중간중간 명언명구들과 돌무더기 등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다. 한편으로는 둘레길을 만든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듯 싶기도 하다. 다소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빨래골공원지킴터에서 북한산 쪽으로 발길을 옮겨 기도도량인 삼성암으로 향했다. 화계사에서도 왼쪽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600M 가량 오르면 갈수 있는 곳이다.

다시 오르막길을 걸어 도착한 삼성암은 북한산에 우두커니 솟아있는 칼바위 아래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운문사 사리암과 함께 대표적인 독성기도도량인 삼성암은 역사가 긴 편이 아니다. 1872년(고종 9년)에 고상진(高尙鎭)이라는 거사가 창건했다.

산이라는 커다란 자연 아래 삼성각은 점하나를 찍고 있었다. 길을 걷다보면 어느새 날은 저문다. 삼성암에서 화계사로 이어지는 길에 한 스님이 바삐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 보았지만 이내 스님은 사라졌다.

해남 미황사 설봉 스님(1678~1738)은 이런 자유의 노래를 불렀다.

떠다니는 구름이 온 곳이 없듯
가는 곳 자취가 없네
구름이 오고 가는 것을 살펴보니
다만 하나의 허공일 뿐이네

떠다니는 구름이 온 곳이 없듯 스님이 가는 곳도 자취없이 길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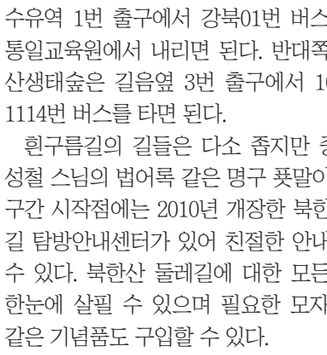
산행코스 (4.1km 2시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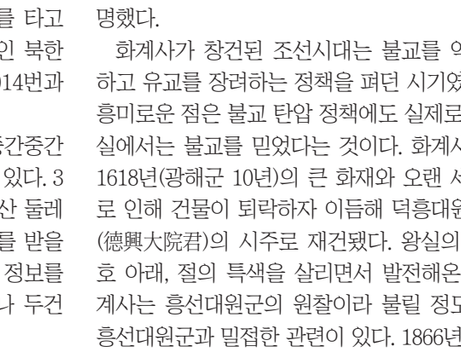
통일교육원~정자~화계사~전망데크~구름전망대~빨래골공원지킴터~북한산생태숲앞(배드민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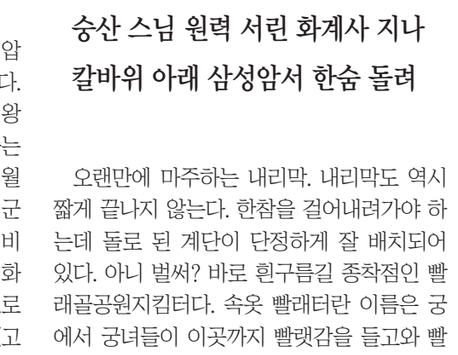
교통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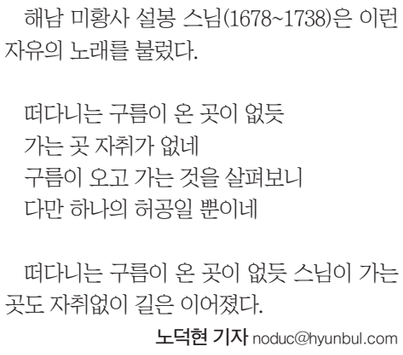
통일교육원(이준열사묘역입구)-지하철4호선 수유역 1번출구~01번마을버스-종점하차(통일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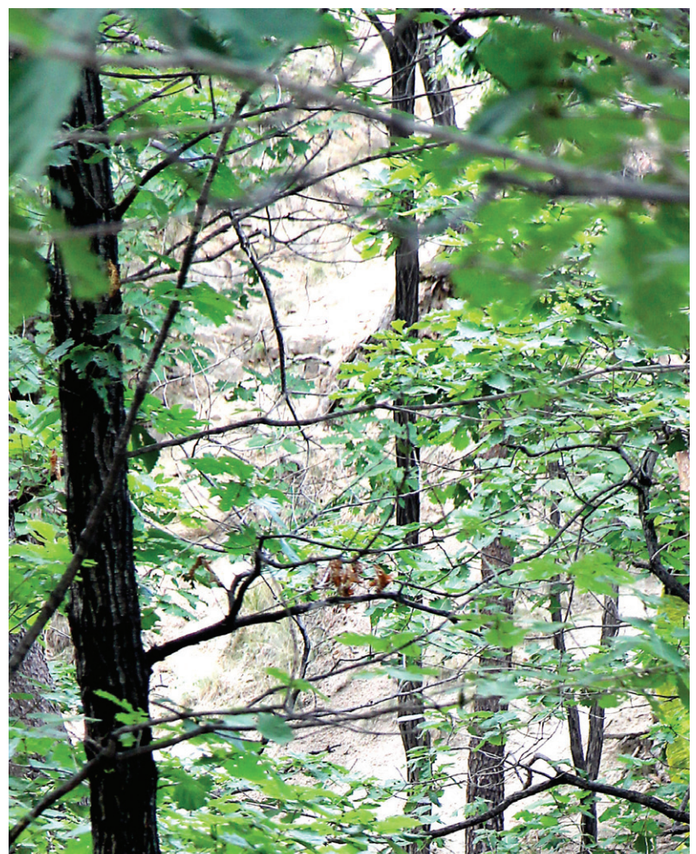
북한산생태숲앞-지하철4호선 길음역3번출구~버스1014,1114번종점, 북한생태숲앞


나반존자 기도처 삼성암 독성각


곳곳에 성철 스님 법문 등 명구 푯말이 있다.


외국인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화계사의 범종루.




삼성암에서 화계사 가는 길을 한 스님이 걷고 있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ǿ×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ǿ× 34㎝


육각초 7.0ǿ× 34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화 大 9.5ǿ× 11㎝, 연화 中 9ǿ× 10㎝, 연화 小 7ǿ× 6.5㎝


밀납연화 小 7ǿ× 6.5㎝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백목향,목향


향수림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기행 (15)

일곱 부처님 탄생한 까삘라성을 가다

까삘라성 두고 벌이는 네팔 · 인도 고고학계 논쟁

일행은 룸비니 북서쪽에 있는 틸라우라꼬트(Tilaurakot)로 간다. 까삘라성을 답사하기 위해서다. 물론 일부 고고학자는 룸비니 남서쪽 14.5km의 거리에 위치한 인도의 삐쁘라하와(Piprahwa)에 까삘라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학설은 1975년 이후부터 제기된 것이었다. 그 이전에는 누구나 네팔의 틸라우라꼬트에 고대 까삘라성이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다.

틸라우라꼬트가 고대 까삘라성이라고 주장한 최초의 고고학자는 1896년 룸비니에서 아쇼까왕 석주를 발견한 훨러다. 그는 현장과 법현의 순례기를 참고하여 발굴작업을 한 결과 틸라우라꼬트가 고대 까삘라성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V.A.Smith)는 두 구법승 중에서 법현은 인도의 삐쁘라하와를, 현장은 네팔의 틸라우라꼬트를 까삘라성으로 기록하고 있다며 분리해서 지적했으며, 데이비드(T.W. Davids)는 틸라우라꼬트가 고대 까삘라성인데 성이 파괴된 이후 삐쁘라하와에 새로운 까삘라성을 건설했다는 이색적인 설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까삘라성은 하나일 텐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유혹이 있다. 삐쁘라하와에 있는 스투파에서 1971년에 출토된 사리함 투껑에 '이것은 사까족 붓다 세존의 사리용기로서 그의 형제, 자매, 처자들이 모신 것이다' 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1973년 동쪽 승원터에서 발굴된 테라코타 인장자국에서 '옴 데바프트라 승원, 까삘라왓투 비구 승가' 라는 명문이 찍혀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네팔의 학자들은 인도의 삐쁘라하와에 까삘라성이 존재했다는 학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비록 네팔의 틸라우라꼬트의 성터에서 결정적인 명문이 출토되지는 않았지만 성채의 흔적과 법현이 기록한 거리를 참고해서이다. 인도의 불교 유적지를 발굴하는 곳마다 현장의 〈대당서역기〉를 교과서처럼 활용해왔지만 까삘라성의 위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만은 법현의 〈불국기〉가 더 대접받는 셈이다.


까삘라성에서 만난 노수행자는 성을 지키는 것을 수행으로 여기고 있다.

까삘라성 동문 밖 슛도다나왕 · 마야부인 스투파

어쨌든 일행은 틸라우라꼬트를 가고 있는 중이다. 그곳에 슛도다나왕과 마야부인의 스투파가 있다고 하니 더욱 흥미가 느껴진다. 이번에는 몇 번 간 적이 있는 인도의 삐쁘라하와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 현장은 〈대당서역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까삘라왓투국은 주위가 4천여 리다. 빈 성이 여남은 개 되고 이미 황폐함이 심하다. 왕성도 퇴락하여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그 안의 궁성은 주위가 14, 5리 된다. 벽돌을 쌓아 만들었는데 기초는 아직도 높고 견고하다. 황폐한 지 오래 되어 사람들도 드문드문 살고 있다.'

버스가 서문 입구에 멈춘다. 성 입구에 농가가 몇 채 있고 한 농가에서 시골아낙이 짜파티를 구워 팔고 있다. 배가 부른지 먹고 싶은 마음은 나지 않는다. 서문을 지나니 원두막 규모의 조그만 힌두사원이 하나 보인다. 그리고 그 앞 궁성 터에 네팔의 노수행자가 보인다. 5년 전에 만나 동문까지 안내해 주었던 그 노수행자다. 나는 노수행자에게 합장의 예를 표하고는 마음을 내어 보시를 한다. 안경 속의 눈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그시 감고 있는 모습이다. 까삘라성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노수행자에게는 오롯한 수행이리라.

현장의 기록에 의하면 싯다르타 태자의 일화가 전해지는 장소에도 반드시 스투파가 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만 간추려보면 이렇다. 싯다르타 태자가 요즘말로 얼짱, 몸짱이었다는 기록이다.

'성 남문에 스투파가 있다. 태자가 사꺄족의 청년과 씨름을 하고 코끼리를 내던진 곳이다.'

사꺄족의 청년이란 데와닷따이다. 데와닷따가 싯다르타 태자와 씨름을 해서 지고 난 뒤, 분한 나머지 성 밖에서 싯다르타 태자를 태우려고 마중 나온 코끼리를 죽여 길을 막아버린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길에 모여들자 이복동생 난다가 죽은 코끼리를 치우려고 끙끙대다가 싯다르타 태자를 만나 전후 사정을 얘기했다. 그러자 싯다르타 태자가 죽은 코끼리를 불끈 들어 성 연못 저편으로 던져버렸는데 그 자리에 구덩이가 파여 상타갱(象墮坑)이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일화다.

태자가 12세 때 농경제에 참가하여 흙 속의 굼벵이가 새의 먹이가 되는 약육강식의 장면을 보고 괴로워하면서 잠부나무 그늘로 가 선정에 든 바 있는데, 그 자리의 스투파도 현장은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뒤 죽림정사에 계실 때 까삘라성을 방문한바 부처님이 머물렀던 니그로다수 동산에도 스투파가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성 남쪽 3, 4리 니그로다수 동산에 스투파가 있다. 아쇼까왕이 세운 것이다. 석가여래가 정각을 얻고 나서 부왕에게 설법한 곳이다. 슛도다나왕(정반왕)은 여래가 유훅하는 마군을 항복시키고 정각을 이룬 뒤 곳곳을 돌아다니며 교화하고 있음을 알고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 예를 다하여 마중 나갈 수 있도록 원했다.(중략) 왕과 종신들이 부처님을 경배하자 부처님은 그들과 함께 니그로다 승가람에 머물렀다. 그 옆 멀지 않은 곳에 스투파가 있다. 여래가 큰 나무 아래서 동쪽으로 향하여 앉고서 이모(마하파자파티)에게 금란가사를 받은 곳이다. 이와 나란히 있는 스투파는 여래가 여덟 명의 왕자와 오백 명의 사꺄족 청년을 득도시킨 곳이다.'

까삘라성 주변의 스투파들은 대부분 아쇼까왕이 조성한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하는 기록이다. 이를 보아도 아쇼까왕이 부처님을 얼마나 흠모하였는지 짐작이 간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쇼까왕이 부처님의 전 생애를 제자의 마음으로 샅샅이 들여다보고 감동에 겨운 나머지 스투파나 석주를 조성했다는 사실이다.

현장이 까삘라성에 갔을 때도 성의 동남쪽 귀퉁이에 있는 정사에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출가한 사문(沙門)의 모습인 사문유관상(四門遊觀像)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고 보면 사문유관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싯다르타 태자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 같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사문유관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까삘라성 동문 밖에 있는 슛도다나왕 스투파(왼쪽)와 마야부인 스투파(오른쪽). 부처님 부모님의 묘소지만 초라하다. 규모로 보아 아쇼까왕이 건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 인근 세워진 아쇼까왕 석주
부처님 생애 대한 흠모 느껴져
칠불사상 까삘라성 중심 전파
슛도다나왕도 깨달음 얻은 곳

답사일행은 동문 밖으로 나가 왼편으로 난 길을 따라 걷는다. 5년 전에 왔을 때는 보지 못했는데, 최근에야 동문에서 15분쯤 걸어가면 슛도다나왕과 마야부인의 스투파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던 것이다. 이따금 농기구를 든 농부들과 마주친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힘들어 보이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둡지 않다. 주어진 삶의 무게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윽고 농로 끝에 슛도다나왕과 마야부인의 스투파가 나타난다. 그런데 부처님의 부모님 묘소치고는 초라하다. 규모로 보아 아쇼까왕이 조성한 것 같지는 않다.

슛도다나왕 득도처에 세워진 아쇼까왕 석주

일행은 다시 아쇼까왕 석주를 찾아 나선다. 역시 현장의 〈대당서역기〉를 안내받는다.

'성에서 남쪽으로 오십여 리를 가면 옛 성에 이른다. 스투파가 있다. 사람 수명이 6만세 때 끄라꿋찬다(구류손불, 과거칠불 중 네 번째)가 탄생한 성이다. 여래가 깨달음을 얻은 뒤 아버지를 만난 곳이다. 스투파에는 여래의 유신사리(遺身舍利)가 들어 있다. 앞에 높이 30여 척 되는 돌기둥이 세워져 있다. 위에 사자상이 조각돼 있고 옆에는 적멸의 사적이 적혀 있는데 아쇼까왕이 세운 것이다.'

또, 이 과거불이 탄생한 곳에서 동쪽으로 삼십여 리를 가면 낡고 큰 성에 이르는데 그 성 안에도 스투파가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사람 수명이 4만세 때 까나까무니(구나함모니불, 과거칠불 중 다섯 번째)가 탄생한 성으로 동북쪽 멀지 않는 곳에도 또 다른 스투파가 있는데 슛도다나왕이 깨우친 곳이며, 북쪽에도 스투파가 있는데 여래의 유신사리가 들어 있고, 그 앞에는 높이 20여 척의 아쇼까왕 석주가 있다는 기록이 눈길을 끈다. 그러고 보면 아쇼까왕은 부처님이 슛도다나왕을 만난 곳에도, 슛도다나왕을 깨닫게 한 곳에도 스투파와 석주를 조성했다는 것인데 새삼 아쇼까왕의 진지한 순례와 열정적인 믿음에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진다.


까삘라성 서문. 싯다르타 태자는 까삘라성 서문 밖에서 인간의 죽음을 보고 번민했다.


니그리하와 아쇼까왕 석주에 그려진 공작새. 공작새는 마우리아왕조를 상징하는 새였다.

일행은 틸라우라꼬트를 떠난 지 잠시 후에 벌판에 내린다. 니그리하와(Niglihawa)라는 곳이다. 아쇼까왕 석주가 부러진 채 보호각 속에 누워 있다. 이 석주의 명문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자비로운 삐야다시왕(아쇼까왕)은 왕위에 오른 지 14년에 꼬나까마나부처님(구나함모니불)의 스투파를 먼저의 크기보다 두 배로 증축하였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20년(추정)에 이곳을 방문하여 참배하고 돌기둥을 세웠다.'

그러니까 일행이 서 있는 장소는 과거칠불 중 구나함모니불이 탄생한 옛 성이며 부처님이 부왕인 슛도다나왕을 깨우치게 한 장소이다. 아쇼까왕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투파를 크게 중축하고 석주를 세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 보아 아쇼까왕 시대에 이미 과거칠불 사상이 까삘라성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었고 또한 사까족에게 신앙의 대상이었다고 믿어진다. 동강난 석주에 그려진 공작새가 이채롭다. 공작새는 마우리아왕조를 상징하는 국조(國鳥)였던 것이다.



글=정찬주 · 사진=아일선

능화스님의
불교무용 마스터 과정 모집

불교의식 가운데 범패는 진리를 노래하고, 불교무용인 작법무는 진리를 춤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문화예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을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능화스님을 모시고 불교무용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불교무용 마스터 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불교무용 마스터 과정 특강
※특강일시 _ 2기 : 2012년 7월 9일~7월 25일
3기 : 2013년 7월 8일~7월 24일
※강의시간 _ 매주 월 · 화 · 수요일 14:00~18:00
※강의장소 _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일산)
※수 강 료 _ 기당 120만원
※교 수 진 _ 능화스님(예능보유자), 인화스님, 전경화, 박은하
※교육대상 _ 제한없음, 무용전공자, 스님
※교 재 명 _ 능화『한국의 불교무용』,『다게나비춤』,『천수바라춤』
※강의내용 _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특 전 _ 수료후 인천무형문화재 범패와작법무 이수평가 시험 응시자격부여 (응시자 전원 가산점 부여)

불교무용 및 불교실용의식
※개강일시 _ 2012년 9월 3일(월) 14:00, 16:00 (서울)
2012년 9월 6일(목) 14:00, 16:00 (일산)
※강의장소 _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 일산)
※수 강 료 _ 1학기 40만원
※교 수 진 _ 능화스님, 인화스님, 전경화

한국전통무용
※개강일시 _ 2012년 9월 4일(화) 13:00 (입문반)
2102년 9월 4일(화) 15:00 (전문반)
※강의장소 _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일산)
※수 강 료 _ 1학기 40만원
※강의내용 _ 한국무용기초, 입춤, 태평무, 장고춤
※강 사 _ 박은하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edulife.dongguk.edu
서울 T. 02-2260-3728~3730
일산 T. 031-961-5322~3

범패와작법무보존회
http://www.nunghwa.org
T. 032-884-8904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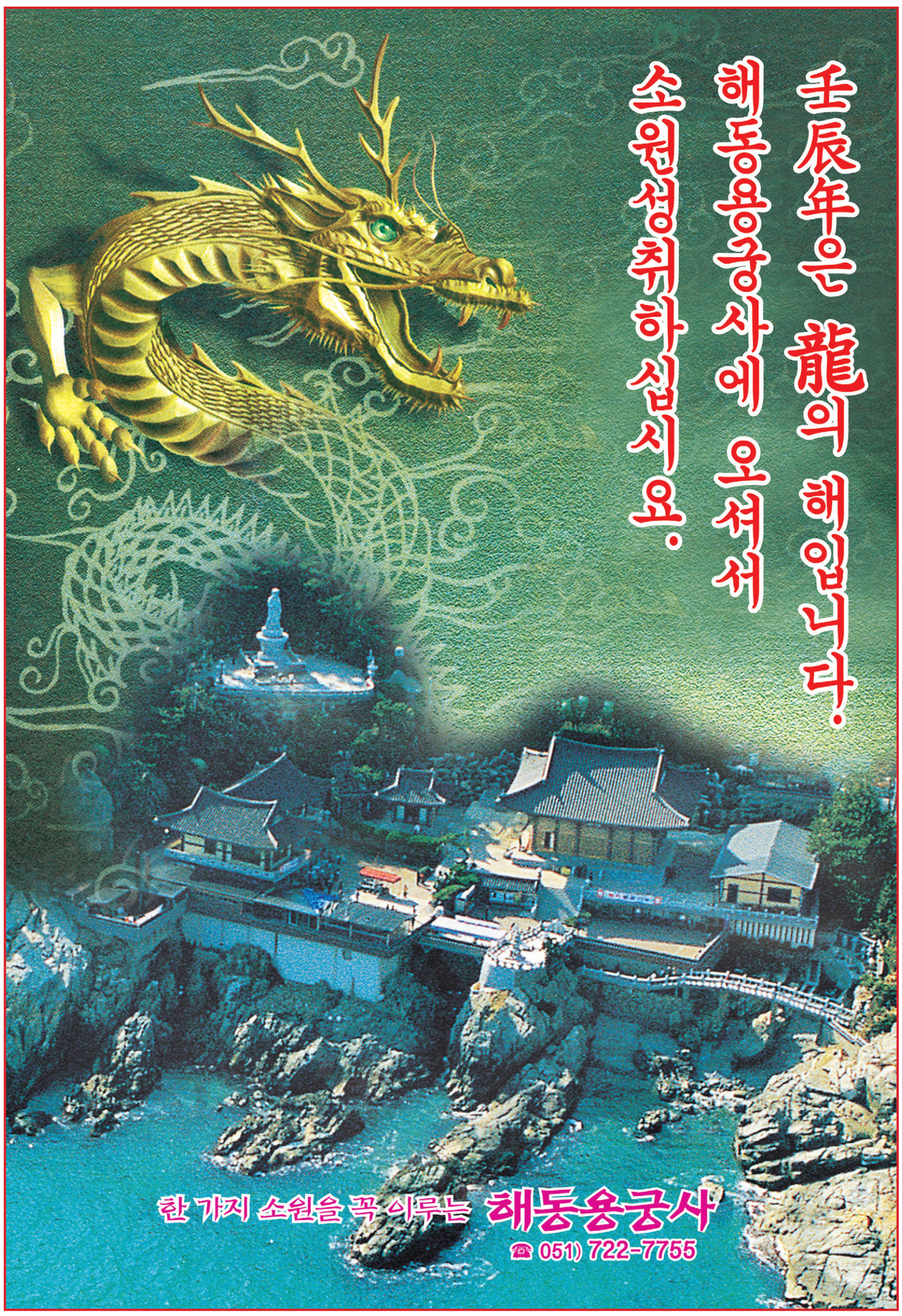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찰 '호법장생'이 마을수호 기능으로 변질



벽송사 목장승(경남 민속자료 제2호) 2기는 불법수호를 위한 신장상으로 1910년경 만들어졌다. 이들은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현재 경상남도 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돼 있다.



장승

장승은 나무나 돌로 만든 기둥의 윗면에 신이나 장군의 얼굴을 새기고, 몸통에는 그것에게 부여한 역할을 나타내는 글을 쓰거나 새겨서 길가에 세우는 일종의 신상이다. 이것은 위협적인 수호신장(守護神將)이거나 진압신(鎭壓神) 또는 노신(路神) 등의 기능을 가지게 되며, 민간에서 오랫동안 친숙하게 생각하여 가까이 한 하나의 주물(呪物)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장승은 법수(法首) 혹은 벅수, 장생(長柱, 長生)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장승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구분하여 보면, 첫째로 선인의 얼굴을 새긴 원시공동체의 신앙대상물로서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온 부락수호와 방위수호기능을 가진 법수 혹은 벅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신라, 고려시대부터 있어온 사찰의 산천비보 장생표(長生標)가 있으며, 세 번째로 읍락의 비보, 성문수호나 사찰의 호법 또는 노표, 경계표, 금표로서의 장생(長柱)이 있고, 네 번째로 기자장승, 안내장승, 시국장승 등이 있다.

사찰입구에 장승을 세우는 전통은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에 세워진 장승들로는 보림사장생표주(寶林寺長生標柱), 운문산선원장생(雲門山禪院長生), 통도사비보장생표(通度寺裨補長生標), 통도사국장생(通度寺國長生), 도갑사장생(道岬寺長生), 안악연등사장생표(安岳燃燈寺長生標)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장생으로 표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장생이 신선사상의 장생불사(長生不死)에서 차용된 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신라, 고려시대에 사찰입구나 주변에 만들어 세운 장승들은 대체로 국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것이거나 도선이 세운 비보사찰과 연관되어 만들어진 것들은 비보나 방위표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억불숭유정책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게 되면서 신라, 고려시대에 유행하던 장생표의 설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단지 사찰의 청정법역을 지키는 호법장생(長柱)이 만들어져서 사찰의 입구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 형태는 이전의 기둥형, 비석형, 돌무더기형에서 선인이나 귀면같은 얼굴을 가진 우상형(偶像形)으로 변화된다.

초기에 만들어진 호법장생은 불법수호가 주된 임무였으며, 기둥에는 방생정계(放生定界: 순천 선암사 목장승), 호법선신(護法善神: 순천 선암사 목장승), 가람선신(伽藍善神: 하동 쌍계사 목장승), 외호선신(外護善神: 하동 쌍계사 목장승), 호법대신(護法大神: 함양 벽송사 목장승), 금호장군(禁護將軍: 함양 벽송사 목장승) 등과 같이 경내의 청정함이나 사찰수호를 염원하는 명문이 새겨졌으나, 점차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 예천 용문사 목장승, 나주 운흥사지 석장승, 남원 실상사 석장승), 하원주장군(下元周將軍: 상주 남장사 석장승),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 나주 불회사 석장승), 삼원대장군(三元大將軍: 예천 용문사 목장승), 주장군(周將軍: 나주 불회사 석장승, 영암 쌍계사지 석장승), 당장군(唐將軍: 영암 쌍계사지 석장승) 등과 같이 중국의 장군이름이나 옹호금사축귀장군(擁護金沙逐鬼將軍: 실상사 석장승), 금귀대장(禁鬼大將: 해남 대흥사) 등과 같이 벽사에 관련된 명문을 새겨 넣었다.

사찰입구에 만들어 세운 호법장생들은 시간이 갈수록 불법수호라는 고유의 기능으로부터 변질되어 마을수호, 방위수호, 산천비보 기능을 가진 법수, 장생 등과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장승에 새긴 명문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등 일반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며, 세우는 장소도 사찰이 위치한 마을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찰 가는 길에 만들어 세운 장승 가운데에서 함양 벽송사의 목장승과 남원 실상사의 석장승은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이 장승들은 역사성 및 조형성 등으로 볼 때,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벽송사 목장승 2기는 불법수호를 위한 신장상으로 1910년경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며, 현재 경상남도 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본래는 절 들어가는 길에 좌우로 세워져 있었으나 지금은 보호각 안에 나란히 세워놓았다. 왼쪽에 세워진 장승은 '금호장군'이라고 음각되어 있는데, 머리부분이 불에 타 없어져 버려 온전한 형태를 볼 수 없으나 둥글고 큰 한쪽 눈이 남아있어 대강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다. 몸통에 '호법대신'이라고 음각되어 있는 오른쪽 장승은 그 형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이 장승은 길쭉한 머리에 왕방울 눈과 커다란 주먹코가 특징인데, 언뜻 보기에는 무서워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해학적이어서 친근해 보이기까지 하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장승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실상사에는 중요민속자료 제15호로 지정된 석장승 3기가 있는데, 3기 모두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원래는 4기가 있었으나 큰물이 나서 1기가 떠내려갔다고 한다. '대장군'이라고 새겨진 장승의 대석에는

장승, 수호신장과 비보 기능 갖춰
신라때부터 사찰 입구에 장승 세워
벽송사 목장승, 실상사 석장승 대표적
조형물 취급 배제 본래기능 찾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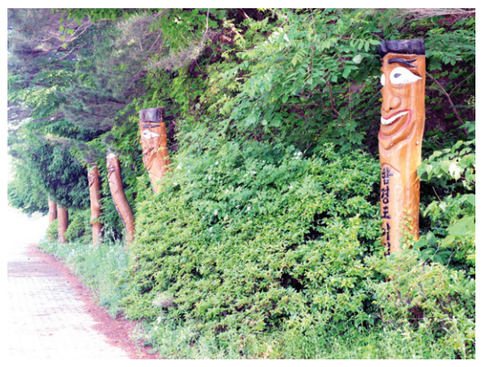
1725년에 세웠다는 명문이 있어 이 장승들의 조성연대를 알 수 있다. '상원주장군'이라고 새겨진 장승은 둥글고 큰 눈이 툭 튀어나오고, 유난히 큰 주먹코가 특징적으로 보이는데,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 자세히 보면 웃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머리에는 벙거지처럼 생긴 모자를 쓰고 있다. '대장군'이라고 새겨진 장승은 이마 중앙에 백호가 새겨져 있으며, 눈꼬리가 양쪽으로 치솟은 퉁방울눈에 주먹코, 위쪽으로 치켜 올라간 입꼬리가 특징이다.

'옹호금사축귀장군'이라고 새겨진 장승은 다른 장승들과 마찬가지로 벙거지를 쓰고 있는데, 다른 2기의 장승에 비해 눈꼬리가 양쪽 위로 약간 올라가 있으며, 적당한 크기의 주먹코가 균형있게 자리를 잡고 있다. 송곳니가 보여 약간은 위협적이기도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장승도 웃는 모습을 하고 있다. 실상사의 석장승 3기 역시 불법수호를 위한 신장상으로 보아야 하겠는데, 원래 4기가 있었다고 하면 사천왕처럼 동서남북 사방을 수호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최근에는 장승을 일반적인 조형물처럼 취급하여 장소성에 상관없이 아무 곳에나 세우거나 또는 많은 숫자의 장승을 조합하여 군식하기도 한다. 물론 장승이 한국성을 보여주는 대상이어서 장승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은 좋으나 장승이 가진 본래적 기능에 대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세우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끝〉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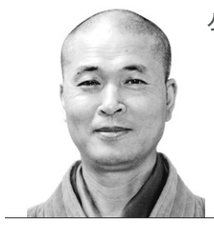
백장암 들어가는 길에 세워진 목장승



보림사 가는 길에 세워진 석상



실상사 석장승(대장군)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근원의 냄새를 맡는 방법

학승이 물었다. "나타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불보살이다."

問 出來底是什麽人 師云 佛菩薩

경전에, 부처님과 보살은 윤회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태어난 사람' 이라고 하지 않고 '나타난 사람' 이라고 한다.

중생의 성품은 본래부터 부처이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한다. 중생은 태어나 자기가 부처인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각종 죄악을 지으면서 업식을 쌓는다. 이 업식은 허공중에 생긴 공화(空花)와 같다. 중생은 공화를 사실로 생각하고 집착한다. 이로 인해 윤회하게 되므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생을 전변윤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보살이나 선사(禪師)는 스스로 우주의 주인이요, 스스로 만물의 근원임을 깨달아 아는 자이다. 즉 자기의 본질을 바로 아는 자이다. 그러므로 각자(覺者)들은 누가 뭐라 해도 자기의 길을 간다. 주체적 삶인 붓다의 길을 간다. 그 무엇에게도 이끌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 이것이 수행(修行)되면 공화(空花)에 속지 않고 다음생도 자기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불보살은 윤회하는 자가 아니고 출현하는 자이다.

학승이 물었다.
"영묘한 풀이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갈라진다."
학승이 말했다.
"냄새를 맡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서있기는 한데 마치 죽은 사람과 같다."
학승이 물었다.
"제가 화합하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사람이 와도 말을 걸지 말라."

問 靈草未生時如何 師云 嗅著即腦裂 云不嗅時如何 師云 如同立死漢 云還許學人和合否 師云 人來莫向伊道

영묘한 풀은 영묘한 자리에서 난 풀이다. 영묘한 자리는 근원을 말한다. 근원에서 난 풀은 근원이 표현된 것이다. 예컨대 불보살 자체가 근원을 표현한 풀이다. 불보살의 행은 근원의 풀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외 근원은 만물로도 나타난다. 새가 나르고 꽃이 피는 것 모두 근원의 표현이다. 뿐만 아니라, 선사가 표현하는 도의 세계도 모두 근원의 표현이다.

깨달음은 영묘한 자리에서 나온 한 조각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진리도 영묘한 자리에서 나온 풀이다. 수행자가 한 순간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데, 사람이 깨달으면 이것도 또 하나의 영묘한 풀이 솟아난 것이다. 깨달음의 풀이다.

조주 선사는 영묘한 풀의 냄새를 맡는 순간 두개골이 갈라진다고 말한다. 즉, 근원의 냄새를 맡은 자는 깨달음은 나중의 문제이고 곧 생명이 끊어져 죽어버린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 그 냄새를 맡은 자는 몸과 마음이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풀의 냄새를 맡고 죽지 않았다면 그것은 맡은 것이 아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도 풀의 냄새는 맡지 못했다. 다만 풀 냄새를 맡고 죽은 자는 똑똑히 보았다. 그것을 보고 냄새의 실체를 깨달았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죽지는 않았으나 가히 죽은 것과 같다. 죽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기 어렵다. 깨달은 자는 깨달음의 순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냄새를 맡지 않았을 때' 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이다. 이것은 더욱 정상이 아니다. 60~70년 육신을 운전하고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육신의 운전수로 살아가는지 모르고 산다면 산송장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렇다면, 냄새는 맡되 죽지 않는 방법이 있는가? 조주 선사는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보아도 자기가 맡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말해버리면 바로 그 순간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풀의 냄새를 맡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냄새 맡고 죽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19〉

삼학-②정학(定學)

색계의 정신통일 사선정은 定의 기본

계(戒)를 지키게 되면 심신을 조절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마음의 통일 상태인 정(定)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조신(調身)·조식(調息)·조심(調心), 즉 신체와 호흡과 정신을 조절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심신의 조절이 바로 계에 해당한다.

정의 의미는 '팔정도 정정(正定)' 에서도 언급했듯이 산스크리트어 삼아디(samādhi)를 번역한 말로, 정신통일의 뜻을 갖고 있으며 정(定) 선정(禪定) 적정(寂定) 삼매(三昧) 삼마지(三摩地) 등으로 한역됐다.

남방 빨리어 경전과 한역 〈아함경(阿含經)〉 등의 초기경전에서 정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삼학(三學)의 정학에서도, 팔정도의 정정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선정(四禪定)을 언급하고 있다. 사선정은 초기불교 이래로 정을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언급되는 정형적인 설명법이다. 이는 사선정이 불교에서 말하는 정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선정 또한 '팔정도 정정' 편에서 언급했듯이 정신통일의 네 가지 단계를 가리킨다. 사선정을 다시 간략히 언급하면, 선정에는 들었으나 아직 마음이 거칠고 미세한 작용이 남아있어, 보고 듣거나 추위와 더위 등의 인식이 일어나는 초선(初禪)단계, 마음에 거칠고[尋] 미세한 작용[伺]이 사라지고, 신근(信根)이 뿌리내려 정신통일이 한 단계 상승한 상태인 제2선(第二禪)단계, 고뇌가 사라진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경지인 제3선(第三禪)의 단계, 마음이 안락하다는 인식조차 멸해 마음은 미동치 않는 부동정(不動定)의 상태가 되는 제4선(第四禪)단계를 말한다.

하지만 사선정은 정의 기본이지 정학의 모든 것은 아니다. 불교는 중생이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영역을 세 곳으로 나눈 삼계(三界)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 삼계란 욕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를 가리키는데 욕계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며 음욕과 탐욕을 지닌 중생들이 사는 곳을 말하고, 색계는 욕계 위에 있는 세계로 음욕과 탐욕에서 벗어난 존재들이 사는 곳을 말한다. 무색계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세계이며 물질을 넘어선 세계로 고도의 정신적 세계를 가리킨다. 이 삼계에도 각각의 정이 존재하며, 이를 욕계정(欲界定)·색계정(色界定)·무색계정(無色界定)이라고 한다.

보통 사람이 일상에서의 정신을 집중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신통일이 아니며, 이를 '욕계의 범위에서 행하는 정신집중' 이라는 의미로 욕계정이라는 말을 쓴다. 사선정에 해당하는 진정한 정신통일은 욕계에서 벗어나 색계에 진입한 후에 가능한 정신통일법이다.

즉 색계에서의 정신통일이 사선정의 시작이며 이를 색계정이라고 부른다. 색계정 상태에서 더 나아가 무념무상에 가까운 상태가 되면, 이것을 무색계정이라고 한다. 즉 욕계에서의 정신통일이란 번뇌 속에 있는 중생의 깨달음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의 정신집중에 불과하다. 계를 행함으로써 이 욕계를 빠져나왔을 때 비로소 색계에 들어서 사선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색계의 정이 사선정이듯이, 무색계의 정에도 단계별로 구분돼있다. 무색계정은 공무변처(空無邊處)·식무변처(識無邊處)·무소유처(無所有處)·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로 나뉜다. 공무변처는 물질적인 존재가 없는 '공간의 무한성' 을 대상으로 하는 삼매로 일체의 물질적 형태를 떠나, 무변의 공(空)을 보는 정신통일 상태이다. 식무변처는 '인식작용의 무한성' 을 보는 삼매의 경지이다. 무소유처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체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비상비비상처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想)' 조차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 경지를 말한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부처님께서 의지처로 지명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맛지마 니카야 108〉

창업(創業)보다 수성(守城)이 어렵다. 수성의 책임을 부여받은 2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업자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이다. 왜 그럴까?

간절함에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왜 이토록 고생하면서도 이 길이 아니면, 다시 다른 길이 없음을 자각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수성의 대임(大任)을 부여받은 2세의 입장에서는, 그가 걸어야 할 길이 그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닌 것이다. 밖에서 주어진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온전히 깨달으신 부처님의 모든 자질을 갖고 있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한, 아난 존자의 고백에서 나는 한없는 솔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랑스런 아난이여!

얼마나 걱정스러웠을까? 부처님께서는 ---.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반에 드시고 나면 그 많은 제자들은 누가 또 건사할 것인가? 적지 않게 일어나던 분쟁은 또 누가 판결하여, 교단의 평화를 유지해 갈 것인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내심으로는 부처님의 속마음을 헤아린답시고 하고 있었던 이가 바로 비서실장 아난이었다.

그런 오해가 낳은 질문이, 부처님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누군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수성의 대임을 떠안을 제자를 누구 하나 미리 임명해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다. 오해하지 말자. 그 당시 직접 부처님의 방침을 전해들은 아난 스스로 이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열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의지처로 지명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일아 역,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175쪽)

그분 스스로의 단독결정으로 그런 의지처 역할을 할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으셨다면, 혹시 부처님께서는 민주적으로 승단의 중의(衆議)에 따라서 선임하라고 했던 것일까? 그런데,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승가에서 동의하고 많은 장로 비구들에 의하여 지명된 비구는 없습니다"라는, 아난의 거듭된 증언(證言)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도무지 부처님께서는 승단이나 교단의 장래에 대해서는, 그 인적 조직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듯 싶다. 오직 관심을 가진 것은 가르침, 법(法, dhamma)의 미래였을 뿐이다. 당신 없는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의 수행, 또 먼 미래에 태어날 중생들의 삶에 대해서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더욱더 당신을 대신해서 그들을 거두어줄 후계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려움을. 그래서 그러한 대임을 맡길 어느 한 사람의 후계자를 간택하여, 수성의 대임을 맡기시지 않으셨다.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하셨을지도 모른다. 그 대신에 그 일, 즉 제자들의 수행, 또한 먼 미래에 올 중생들의 삶이나 깨달음에 대해서조차 그 책임을 그들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다만 부처님께서 남겨놓으신 가르침과 계율이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그림 · 박구원

자주 모여서 가르침과 계율을 토론하고, 스스로의 삶이나 행동을 가르침과 계율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으리라 부처님께서는 믿으셨을 것이다. 가르침과 계율에 의지할 뿐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이리라.

또 하나, 의지처로 지명한 후계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 말씀에서는 교단운영에 관한 전언(傳言) 역시 담겨있는 것으로 읽힌다. 교단 전체, 즉 사방승가(四方僧伽)를 하나로 통어(統御)하는 권력자를 내세우기 보다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현전승가(現前僧伽) 단위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에 의지해 수행하라는 뜻으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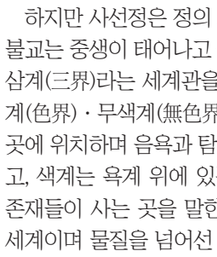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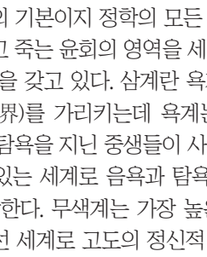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2〉

계율 연구 업적 대중포교로 회향

‘학문과 전법’ 하나로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



목정배 교수는 … 목정배 교수는 1937년 경남 사천 출생.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철학박사. 동국대 불교대학장, 불교대학원장과 불교문화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한국불교대원회 이사장, 한국불교학회장,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이다.
주요 논문은 〈의적의 보살계본소 연구〉 등 60여편, 저서는 〈삼국시대의 불교〉〈대승보살계 사상〉〈한국문화와 불교〉〈계율론〉〈계율학 개론〉〈한국불교학의 현대적 모색〉 등 40여권이 있다.

도심 시장통의 소음도, 쏟아지는 땡볕도 약수동에 위치한 법사원불교대학에는 닿지 않았다.

6월 20일 서울 약수동 대한불교법사회 법사원불교대학을 찾았다. 문을 열자마자 하얗게 샌 머리의 목정배 교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동국대 대학 강단에서 은퇴한 후 9년이 넘게 법사들을 지도하고 있는 미천(彌天)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76).

잔주름과 눈매, 굵은 손은 평생을 대학강단에 서온 연륜을 드러냈다. 그러한 생각도 잠시, 나이가 무색하게 악수를 하기 위해 잡은 두툼한 손에는 직필의 힘이 살아있었으며 주름사이에 번득이는 눈에서는 정광이 넘쳐흘렀다.

1980년대 목정배 교수의 강의는 발 디딜 틈이 없는 강당으로도 유명했다. 500명 수용의 동국대 중강당에 1500여 명이 모여 강의 시작 전 우르르 자리를 잡기위해 뛰어가는 모습은 강단에서 그의 위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1958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첫발을 디딘 후 그는 지금까지 40여 권의 저술과 60여 편의 논문을 썼다. 특히 계율 분야의 대가로서 수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후학들을 양성했다.

계율로 대변되는 그의 학문적 업적은 대중포교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삶 속에서 치열히 자기 자신을 완성하고자 하는 계율 정신이 대중포교로 발현된 것이다. 대학 1학년 때 이미 전국 각지에서 불교강연을 시작한 그는 불법홍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조직화 및 대중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대학생과 청년불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딸기밭 법회, 등산 법회 등을 이끌기도 했다.

또 80년대 초 〈아사달〉을 발간해 청소년 포교에 나섰으며 17년간 〈대원회보〉를 발간하기도 했다. 1988년에는 (사)대한불교법사회를 창립하고 부설 법사원불교대학을 운영, 현재까지 1200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법사를 품수했다. 97년부터는 〈법수레〉를 매월 발간하며 나이가 무색한 열정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짧은 강의라도 강렬한 메시지가 있었던 시원시원하고 유쾌한 그의 스타일은 대중예술에의 관심으로도 뻣친다. 수많은 시를 비롯해 특유의 붓 글씨체와 그림을 통해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목정배 명예교수의 전법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지키기 못할 계 받지 않겠다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목정배 교수는 6·25전쟁으로 부산에서 해동중과 해동고를 다녔다. 모태신앙으로 갖고 있었던 불교와의 인연은 이때 깊어진다. 바로 통도사 극락암에서 당대의 선지식인 경봉 스님을 만나면서 부터다.

중·고등학교 시절 부산 대각사 등을 다니며 부산불교학생회 활동을 한 목 교수는 출가의 기회가 생기기도 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였다. 삼소굴에서 경봉 스님은 목 교수에게 출가를 권했다. 천수경을 외우고 참선하고 있는 그에게 경봉 스님은 ‘이왕 왔으니 머리 깎고 중해라’고 말씀했다. 문제는 계를 받는 것이었다. 목 교수는 수계 당일날 도망쳐 나오고야 말았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오계 가운데 다른 것은 몰라도 살다보면 거짓말이 저절로 나오는데 불망어계를 어떻게 지키겠어?”

목 교수는 어린마음에 평소 스님들로부터 ‘거짓말하면 통도사 사천왕문의 금강역사가 와서 후드려 팬다’는 말이 떠올랐다고 소회했다.

고등학교 학창 시절 절에서 수행하다 다시 나왔으니 학교로 돌아가야만 했다. 목 교수는 해동고 3학년으로 복학하려 했으나 출가기간 동안 결석으로 인해 복학이 힘들다는 답을 듣게 된다. 다행이 불법과의 인연이 깊어서 인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당시 해동고 이사장인 박대관 스님(당시 통도사 주지)이 “다른 곳도 아니고 통도사 극락암서 공부했으니 허락하시오”라고 특별히 그의 복학을 지시한 것이다.

계율전공 1세대…참뜻 널리 펴
재가자 10선계 잘 지키면 훌륭한 삶

1988년 대원불교법사회 창립
현재까지 1200명 법사 배출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첫회 주도
“흐뭇한 ‘대작불사’ …지속되길 희망”

바른 신행 위해 世諦 불교운동 주창
“자기에게 빚지거나 부끄럽지 말자”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목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목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 진학에 대해 처음에는 마음에 없었다고 말했다. 목 교수는 당시 개설된 서울대 원자물리학과와 전액 장학을 제시한 조선대를 고민했다.

“수학과 물리, 철학을 잘했던 나는 물리공부를 위해 서울대와 조선대를 고민했었어. 그때 불교학이 우주철학을 품고 있어 물리학과도 상통한다는 조언을 들었지. 또 학비는 종립고등학교 졸업생이면 종비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해서는 종비장학과 학과 우수장학 수혜를 같이 받았다. 목 교수는 중·고등학교 때 헌책방을 다니며 일본의 불교서적까지 탐독한 상태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한글로 된 불교서적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신심을 갖고 선행학습까지 한 목 교수가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1958년 당시에는 김동화 박사의 〈불교학개론〉 외에는 모두 판서였어. 한 강좌 다해도 강의노트가 20페이지가 넘지 않았어. 공부하기가 수월했지”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한 목 교수는 이때 학비 외에 받은 장학금을 술 마시는데 썼다고 전했다. 목 교수는 3학년 때는 수원 용주사, 김천 직지사, 대구 능인고등학교 마산 추산동 포교당 등을 돌며 전국 순회강연을 하기도 했다.

이런 그를 아낀 스승이 바로 〈화엄학 개론〉을 쓴 김잉석 박사였다. 김잉석 박사는 화엄·구사·유식·삼론의 대가였다. 목 교수는 유식을 전공해 1964년에 〈근본 식 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시련이 닥쳐왔다. 김 박사가 타계한 것이다.

“어려움이 많았지. 나를 자기 제자처럼 생각하고 공부를 시키셨는데 돌아가셨으니…”

잠시 방황하던 그를 다시금 잡아 준 것도 불교 안에 있었다. 1965년 목 교수는 도선사에서 청담 스님을 만났다. 청담 스님에게 어려움을 토로하자 스님은 당신 명함에 ‘이 명함을 가져간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써주며 이한상 대한불교신문(現 불교신문) 사장을 찾으라 했다.

그 후 목 교수는 불교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당초 수요일 원고마감에서 교정 등을 담당했지만 강의시간을 제외하고는 신문사에 매일 출근했다.

1968년 전국신도회가 창립되며 전국신도회에서 잡지 〈법륜〉을 만들자 목 교수는 이 잡지 발간에도 참여한다.

초대 계율 전공 학자로

1969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조교로서 학교로 돌아온 목 교수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전임강사가 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년 후배까지 모두 강의 배정을 받았지만 목 교수만 강의배정을 못 받았던 시절도 있었다. 전환점은 71년 찾아왔다.

“71년 교과개편에 참여했는데 혜화전문학교까지는 있었던 ‘계율’ 과목이 동국대가 되며 없어서 이를 넣었지. 74년 ‘계율학’으로 과목이 신설됐는데 강의할 사람이 없으니 결국 나한테 돌아오더라고”

목 교수는 원효·승장·의적·태현 스님이 찬술한 〈범망경〉 주석서를 모두 섭렵하고 번역을 마쳤다. 〈의적의 보살계본소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목 교수는 동기 중 제일 먼저 전임이 될 수 있었다.

목 교수가 계율 전공자로 우선 생각한 것은 계율에 대한 인식변화였다. 당시에는 계율에 대해 ‘부처님 당시 승단 유지규범’ 정도로만 여겨져 왔다. 현시대에 맞지 않는 속박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했다.

목 교수는 강의시간마다 계율이야 말로 다른 굴레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목 교수는 계율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율학 개론〉, 〈계율론〉등 계율과 관련한 7편의 저술과 20여 편의 논문을 남겼다.

1999년 11월 제14대 한국불교학회 회장에 취임한 목 교수는 한국불교학회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장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목 교수는 특히 원만한 성격으로 많은 후학들이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예비스님) 모집

매순간 마음 살핌이 '계'



미천 목정배 교수의 삶은 학자이며 포교사이며 수행자의 삶이었다. 목교수는 경전과 논서 등을 공부하는 것은 모두 마음자리를 살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따랐는데 그의 역량은 2002년 개최된 한국불교학결집대회에서 드러난다.

한국불교학결집대회는 2001년 전국 30여 개의 학회 및 연구원과 전통교육기관들이 상호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불교학의 새 지평을 넓혀가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초대 대회장을 맡은 목정배 교수가 있었다.

1년의 준비 끝에 논문을 발표하겠다는 학자가 220명에 이르렀다. 일본, 중국, 미국, 방글라데시 등 6개국에서 50여 명의 외국인 학자들도 발표를 신청했다. 불교학결집대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외국학자의 참여 수도 늘었고 한국불교학의 대외적인 위상도 크게 높아졌으나 아쉽게도 2008년 대회를 끝으로 열리지 못하는 상태다.

동국철강 장경호 거사가 세운 남산 대원정사와의 인연은 목 교수가 퇴임 이후 법사지도에 매진하게 한 계기가 됐다. 당시 대원정사 불교대학 강사로 운허 · 영암 · 성수 · 탄허 스님, 김동화, 홍정식, 이기영 박사가 초빙됐는데 막내로 목 교수가 참가한 것이다.

"대원정사서 강의를 할 때 장경호 거사와 그 사모님이 항상 청강했는데 그 인연으로 대원불교대 학장도 해보고, 잡지 대원 편집인도 해봤지. 대원은 초창기 불교를 대중화 하고 생활화 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특히 재가자들이 다음날 올 버스토큰까지 챙겨주는 장거사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어요. "

이후 목 교수는 교수 퇴임 이후 대한불교법사회를

"나의 서원은 '삼귀의' 생활속 실천 오롯(佛) · 반듯(法) · 말끔(僧)하게"

이끌며 이당시 느낀 바를 재가자들에게 생활 속 지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펼치고 있다.

오롯하게 반듯하게 말끔하게

목정배 교수는 76세의 나이에도 매주 화 · 목 · 일 세 번씩 대한불교법사회에서 법회와 논강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전법활동을 펴고 있다. 매월 3~4째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부산, 양산, 대구 등으로 지방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목 교수의 이런 활동의 원동력은 바로 삼보에 대한 서원에서 나왔다.

목 교수는 먼저 원효 · 혜능 스님의 삼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삼보관을 소개했다. 목 교수는 "원효 대사는 불(佛)을 광명(光明), 법(法)을 정대(正大), 승(僧)을 화합이라 했다. 혜능 선사는 불은 각(覺), 법은 정(正), 승은 정(淨)이라 했다"고 말했다.

"깨달음과 맑음은 다름이 아니요. 머리를 깍으나 안 깍으나, 계를 받으나 안 받으나 평소의 삶이 부처님 삶처럼 이행돼야 하는 것이지요."

목 교수는 자신의 서원으로 '오롯하게(佛) 반듯하게(法) 말끔하게(僧)'를 들었다. 항상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올곧게 오롯하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다.

말끔하게는 무엇일까. 목 교수는 "일상생활이 말끔하느냐는 남에게 빚을 지지 않고 또 내 자신에게도 빚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부끄럽다는 말은 있지만 자기 부끄럽다는 말이 없듯 자기 자신에게는 하는 언행이 빚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드물다. 목 교수는 자신에 대한 참회 정신을 말한 것이다.

"자기 자신 맑게 살려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 일거수 일수족이 뚜렷하고 청정해야 합니다. 부처님 바른 법을 우리 생활에서 스스로 펼쳐야 불자라 할 수 있습니다."

목 교수는 승단의 말끔함을 재가에서도 펼치고 있다. 거사불교 재가불교에 새 이름을 붙여 세제(世諦)불교다. 현실세계에서 바른 불교 운동을 펴자는 의미다. 아침마다 좌선을 하는 목 교수는 "믿음은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항상 정진하는 마음으로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을 위해 화두를 들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목 교수는 "부처님 경전, 조사어록, 논서들을 보는 이유는 그 마음자리를 어떻게 찾았는가를 살피기 위함"으로 실천이 없다면 모두가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불자들은 10선계만 지켜도 훌륭히 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현재진행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글=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지공거사의 웃음



동국대 명예교수

신조어가 수 없이 쏟아지는 세상이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의 말을 알아듣기란 쉽지 않다.

언젠가 제자의 말이다.

"학생시절에 범생이었겠어요."

말뜻을 몰라 "그게 무슨 뜻이야"라고 반문 하였다.

"모범생"이라고 한다.

그저 "빙시레"

한 번은 머지않아 지공거사가 되겠다고 하기에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 하기도 하였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여지껏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학교에 출 · 퇴근 하였는데 이 지하철을 공짜로 탄다하니 기분이 묘했다. 우선 내 나이가 그렇게 많은가 고개가 갸우뚱 해진다. 세상에 내게 많은 것 싫다는 사람이 별반 없을 듯 하다. 그저 많으면 신나고 부러울 것이 없어진다.

연전에 한 학생의 말이 기억난다.

"교수님은 존경스럽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다니. 우리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더껑이가 앉았다.

"그래 교수가 강의와 연구를 열심히 해야 존경스럽지 지하철 이용한다고 존경스러울거야 있겠는가."라고 답변하고 만 일이 있다.

여기서 거사(居士)라는 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와 중국에서의 의미가 다르게 쓰이기 때문이다. 거사는 집에 사는 선비, 혹은 집에 사는 남자라는 뜻이다. 범어 gṛihapati 에서 온 말이다. gṛiha 는 '집'이란 뜻이고, pati 는 '집주인'이라는 말이다. 인도에서는 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던 부호이다. 자산가로 당시 제3계급인 바이샤 계급에 해당한다. 중국에서는 학덕은 높지만 관직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몇 일전 일이다. 여느 때처럼 지하철을 탔다. 차 내에서의 일이다. 경로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불현 듯 누군가의 우렁찬 음성이 들렸다.

"젊은이 앉아 갑시다."

처음에는 승객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려니 하고 흘려들었다.

재차, "젊은이 앉아 갑시다." 하였다.

그제서야 책에서 눈을 떼고 보니, 앞에 장승처럼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아마 내가 그 승객의 눈에 젊게 보였던 모양이다.

"이 자리는 몇 살부터 앉을 수 있습니까."라고 정중히 물었다.

"65 세"라고 하였다.

"그 나이가 훨씬 넘었는데요."라고 하니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

나이 보다 어려 보여 '젊은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기쁜 날이다. 웃음이 나왔다. 그 웃음은 박장대소가 아닌 입가의 잔잔한 미소였다.

불현 듯 호계교를 건너 던 은자(隱者)의 웃음이 오버랩 되었다.

여산의 혜원(慧遠)은 도연명을 초청하여 백련사(白蓮社)에 가입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혜원은 불교를 대표하고 도연명은 유교를, 육수정(陸修靜)은 도교를 대표하고 있었다. 혜원은 산책할 때 호계교를 넘지 않는다는 걸 엄수하였다. 그런데 도연명을 전송할 때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에 열중하다 무심코 그 다리를 넘어 버렸다. 그걸 알고서 세 사람은 껄껄 웃었다. 이 웃고 있는 장면은 '호계삼소도'(虎溪三笑圖)라 하여 중국 회화에 흔히 있는 화제(畵題)가 되었다.

중국이 낳은 최대의 시인 도연명에게는 칠현금을 하나 가지고 있었으나 줄이 하나도 없었다. 칠현금은 옛날 중국 악기로 매우 부드럽게 타서 마음이 조용하게 가라앉았을 때만 음악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술에 취하면 줄 없는 칠현금을 쓰다듬어 그 풍취를 내려고 하였다.

거사는 집에사는 선비, 남자
'호계삼소도', 중국회화의 '화제'
도연명이 도피한 것은 '정치' 뿐
〈귀거래사〉서 인간미 물씬 엿봐

"거문고 속의 풍취를 얻었노라. 어찌 줄로써 소리 내기를 애쓰랴"라고 하곤 했다.

세상에서는 그를 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 하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그가 도피하고자 한 것은 정치이지, 인생 그 자체는 아니었다.

〈귀거래사〉에서 인간애를 흠뻑 느낄 수 있다.

이미 마음이 육신의 종이 되었으니, 어찌 근심하며 홀로 슬퍼하리오.
이제야 누추한 내 집을 보고 기뻐 달려가니,
사내종은 반겨 맞이하고 애들은 문에 나와 기다린다.
정원에 세 오솔길은 황폐했으나 송국(松菊)만은 아직 그대로구나.
어린 것을 데리고 방에 드니 술이 있어 독에 가득하다.

소동파는 그의 화도시(和陶詩)의 말미에 자기는 도연명의 환생이라고 했다. 원중랑(袁中郎)은 소동파의 환생한 모습이라고 한다.

오늘의 주인공 지공거사는 누구의 환생일까. 잠자리에서 새소리에 귀 기울인다.





미국, 그들만의 불교 만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미국불교와 수행풍토 조명

미국 불자수가 증가하면서 아시아 불교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미국불교가 생기고 있다. 美 3대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시각으로 6월 17일 'What's an American Buddhist?(누가 미국 불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동양에서 전래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미국 불교와 수행풍토에 대해 조명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불자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종교조사 기관인 'American Religious Identification Survey'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에서 불교는 170%나 성장했다"며 "이 연구결과는 미국내에서 불교가 눈에 띄게 성장했음을 보여주며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불자들은 불교를 배우기 위해 스리랑카, 티베트, 베트남, 중국, 일본, 한국 등 다양한 아시아 불교의 전통들을 접하며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찾는다.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일본의 좌선 등 명상위주의 수행을 하는 불자가 있는가 하면, 팔정도의 삶을 따르며 오계(五戒)만을 지키는 삶을 추구하는 불자 등이 그것이다.

2500년 전 붓다가 보리수 나무아래서 얻은 깨달음이 왜 오늘날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일까.

워싱턴 포스트는 "불교는 어떤 대상을 신격화하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단순하고 보편적인 진리와 가르침을 전하기 때문"이라며 "북미에서 신성한 전통 종교를 새롭게 개발해 발전시키려 한다면 불교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1990~2000년 대 미국 불자 급증
미국인, 단순 · 보편적 진리 선호
염불 · 독경보다 명상 인기

실제로 미국인들은 아시아의 정신적 측면, 그 중에서도 불교가 성서위주의 종교보다 대조적인 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교를 더 선호한다. 美 종교사회학자 로버트 벨라는 "불교는 물질과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적 체험을 보여주고 자연에 대한 착취보다는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줘 서구인들이 경도되기 충분한 종교"라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동양에서 빈번히 행해지는 염불, 독경의식과는 달리 위빠사나와 명상수행 등이 미국 불교의 전형적 수행프로그램이 됐다는 점도 소개했다.


美 아이오와 주(州)에서 열린 '명상 공원 대중 법회'. 미국에서는 동양에서 빈번히 행해지는 염불, 독경의식과는 달리 위빠사나와 명상수행 등이 미국 불교의 전형적 수행프로그램이 돼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현상은 산스크리트어나 동아시아 언어로 행해지던 불교의 식이 점진적 의식의 확장을 위한 수행의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며 "미국인들이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만 제대로 수용한다면 그들은 다양한 방편의 수행법을 취사선택해 그들만의 합리적인 종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과한 채 미국만의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낸다면 결국 맹목적인 광신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불교문화에 덧붙여 생긴 또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새로운 미국 종교가 생기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이를 지나칠 경우 미국 불교는 아마도 900년 뒤 독실한 기독교 신봉자와 같은 또 다른 형태의 광신도를 만들어낼 것이고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은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濠, 스리랑카 공동체 '꿈' 꺾였다

맬버른의 나레 워렌 구의회 '불교명상센터 건립' 부결


호주 멜버른 교외지역 나레 워렌에 살고 있는 스리랑카인 공동체가 불교모임을 갖고 있다.

호주 맬버른의 교외지역 나레 워렌(Narre Warren)에서 살고 있는 스리랑카인 공동체의 꿈, '불교명상센터(Buddhist Meditation Centre)를 건립하겠다'는 서원이 꺾였다.

인터넷 미디어 캐시 위클리가 6월 20일 "나레 워렌 구의회가 스리랑카인 공동체의 숙원 사업인 불교명상센터 건립에 대해 주거지역과 가깝다는 이유로 불허했다"고 보도했다.

베브 헤스티(Bev Hastie) 구의원은 "건립 예정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완강했다"며 구의회 부결을 전하는 한편, "캐시 지역의 스리랑카인 주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기를 당부하고 싶다"며 "스리랑카인 공동체에서 대체 건립 부지를 선정하는 대로 구의회의 논의는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시 위클리에 따르면, 구의회 회의장에서 불교명상센터 건립을 찬성하는 방청객들은 기도하며 구의회의 결정을 기다렸고, 반대하는 방청객들은 '저밀도 주택은 찬성, 고밀도 사원은 반대(Low-density housing NOT high-density temple)'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이에 맞서는 등 뜨거운 양상을 보였다.

이에 앞서 스리랑카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비영리단체 마하메브나와 브하바나 아사프와(Mahamevnawa Bhavana Asapuwa)는 스리랑카인 공동체의 신행 및 수행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나레 워렌 북쪽 지역인 할렘가(Hallam Road)에서 18,000㎡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백인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을 감안, 사원(temple)이 아닌 불교명상센터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스리랑카인 공동체의 세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음', '교통 혼잡', '사생활 침해', '재산권(부동산) 보호'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달라이 라마-아웅산 수치 런던서 만남 가져



달라이 라마(Dalai Lama · 76 · 왼쪽)와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 68 · 오른쪽)가 최근 영국 런던에서 만났다고 휴스턴 크로니클(Houston Chronicle)이 달라이 라마의 공식 웹사이트를 인용, 6월 20일 보도했다.

달라이 라마는 19일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자신과 수치 여사가 19일 영국 런던에서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만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달라이 라마는 수치 여사에게 "당신의 용기를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했고, 이에 수치 여사는 "휴머니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대답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신라불교와 한국학의 대가

세계의 불교학자(22)

리처드 맥 브라이드
美 하와이 브링엄영대 교수



〈화랑세기〉는 신라중대의 학자이자 정치가인 김대문이 지은 책으로 화랑도와 신라 왕실, 귀족 간의 인맥 관계, 권력 투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조선시대부터 사라진 책으로 분류됐던 〈화랑세기〉는 1989년 갑자기 지방의 한 사람이 소장하고 있던 필사본(筆寫本)을 공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학계는 필사본에 대한 진위여부를 두고 10여 년간 논쟁의 주제거리로 삼았다. 그러다 1999년 진본설을 주창해온 이종욱 서강대 교수가 국역 역주본 〈화랑세기〉를 출간하면서 논란이 다시 부각됐다. 이때 국내 학계와는 거리가 먼 서구학자가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바로 리처드 맥브라이드(Richard D. McBride · 43 · 사진) 교수다. 그는 "〈화랑세기〉 필사본은 쓰다 만 한문소설"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현재 美 하와이 브링엄영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그는 아시아 역사 및 종교를 가르치고 있다.

'한문자료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맥브라이드 교수는 브링엄영대학에서 학부 · 석사과정으로 아시아학 · 한국학을 전공하면서 한자를 배웠다. 美 캘리포니아대 로스엔젤레스캠퍼스(UCLA)에서 신라 불교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맥브라이드 교수는 2007년 동국대에서 특별 초청강연 형식으로 '화랑세기에 대한 미국학자의 견해'를 발표했다.

그는 "〈화랑세기〉 필사본이 근대 한문학사상 중요한 위상을 누릴 수 있는 창작물이나 역사적 사실을 담은 사서는 아니다"라며 "이 책은 일제시대 쓰다 만 한문소설로 볼 수 밖에 없으나 위작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화랑집단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풍월주(風月主)를 비롯한 필사본 특유의 일부 용어들은 비슷한 시기 문헌에는 없고, 16세기 이후 조선시대 문헌에서만 나타나는 것들로 파악됐다"며 "당대 신라에서 필사본에 언급된 용어 개념을 쓰지 않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필사본은 사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맥브라이드 교수는 불교사 측면에서도 〈화랑세기〉 필사본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장보살과 미륵신앙의 경우 동시대 불교문화를 앞서 주도한 중국에서도 훨씬 후대에 나타났던 양상이 서술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라 불교의 신앙과 의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중국 불교에서 〈화랑세기〉의 시기인 6세기 지장 · 약사보살의 환생 신앙은 나타나지 않으며, 8세기 말에야 등장한다는 것이다.

맥브라이드 교수는 이런 내용을 2008년 하와이대학 논문집 '신라불교와 필사본 화랑세기'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처럼 맥브라이드 교수가 한국학과 신라불교에 매료된 것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989~90년 경상도 지역에 개신교 선교사로 왔다가 통도사, 불국사 등에서 스님들과 만나면서 신라 불교사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학부를 마친 뒤 1994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연세대 외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신라 불교사 저변으로의 천착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2000년 이후 美UCLA 대학에서 '불교신앙과 화엄사상'으로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신라 전제왕조사 쪽으로도 관심을 넓혔다.

선교사로 왔다 신라불교에 매료
한국학 · 한문 · 불교학 천착
〈한국전통사상총서〉 영어 번역 참여

〈화랑세기〉 논쟁을 주목한 것도 이때부터다. 2002년에는 미국 아시아학회에 이 논쟁을 처음 글로 소개하기도 했다.

맥브라이드 교수는 한 일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사본 내용의 영어 번역본과 진위 논쟁 분석서 발간이 당장의 목표"라며 "〈화랑세기〉 필사본을 남긴 재야 사학자인 박창화(1889~1962)의 80권이 넘는 다른 역사, 문학류 저술들을 더욱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맥브라이드 교수는 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전통사상총서〉 영어 번역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재직중인 브링엄영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동아시아역사와 불교를 가르치는 것이 흥미를 느낀다고 했다.

"저는 근현대세계사와 동아시아 전통 및 불교를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수행과 믿음, 신앙을 배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복잡하게 얽인 문화의 테두리 안에 서로가 공존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을 느끼거든요."

이나은 기자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인 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12년 7월 7일 – 7월 13일 [6박 7일]	우 또다나 사야도 [통역:일창스님]	15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 작 날 – 7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7월 13일 금요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2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필기도구, 세면도구는 선원에 비치됨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설법·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합반 :
(1)매주 목요일 (2개월과정)
(2)훈련식 교육임으로 하시라도 등록 가능함
◆ 특 혜 :
(1)3인이 함께 등록할 경우 원하는 일시에 맞추어 드림
(2)개인지도, 출장지도 가능함 – 직접 상담 결정함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국민 011-24-0405-181 | 농협 217049-51-010252 예금주 : 김철회

漢文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을 다시한번 소개합니다!

귀의삼보 하옵고!
그동안 겸용의식집으로 염불과 경전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다는 스님들과 법사님들 불자님들의 격려의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과 다소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다시한번 겸용의식집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합니다.

1. 기존염불(漢文念佛)과 한글염불(경전내용)을 염불 순서대로 구성하므로 한문과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2. 경전의 뜻으로 염불을 구성하므로 수지독송을 하면 경전공부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염불에 불편이 없도록 운운은 없게하고 초심자도 다른 부분을 넘길 필요없이 한권의 책으로 순서대로 염불하면 된다.
4. 6권으로 분류하여 실용화하고 염불할 때에 책장으로 불편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염불에 추가책이 필요없게 하였다. (1 예경,각청 / 2 천도, 시식 / 3 수계, 방생 / 4 장의 / 5 점안 / 6 독송집)
5. 기본염불의 한글화나 경전내용 공부는 한국불교의 과제인데 방법으로 염불의 한 부분을 예를 들어 소개하면 (삼보통청)에서 삼청을 하는 청사를 ②청은(漢文念佛)로 ①청은(한글염불)로 한다면 별도의 노력 없이도 경전공부와 한글염불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화주문 : 054)974-1345. 011-277-8024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 성묵스님께 출가하여 스님이나 법사님 또는 전문적으로 불교공부를 하고 싶은 분 계시면 연락바랍니다.

금불 장엄사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803-1
주지 성묵 합장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질지라도 지치는 일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잘 닦인 수행자는 모든 중생의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지치치 않는다. - 보적경 -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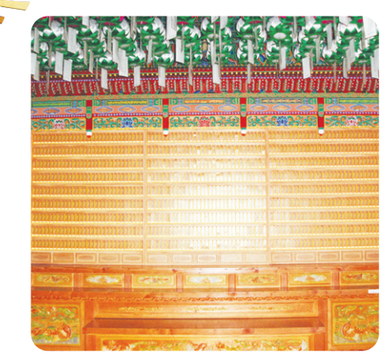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용주사 LED 인등


윤장대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오색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왕생극락접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








공 단 등


영 가 등


종등


종등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大)




(小)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 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 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 2004-8214 Dau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학생들 불경 소리가 듣고 싶다”

석재(石齋) 서병오를 회상하며



석재 서병오의 ‘사군자’

한반도 유사 이래로 최고의 예술가를 딱 한 사람만 꼽으라면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물론 조각에선 석굴암의 세존상을 만든 이를 따라가긴 힘들 것이다. 금속공예로는 다뉴세문경보다 정교한 거울을 만들기도 힘들 것이다.

회화로는 몽유도원도를 그린 안견(安堅)이나 진경산수화를 개척한 겸재(謙齋) 정선을 꼽거나 가장 화려한 색채와 정교한 도안과 완벽한 구도를 자랑하는 고려불화를 그린 이름 없는 화공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납(本納)은 개인적으로 조선 말에 대구에서 태어난 석재 서병오 선행을 최고의 예술가로 선택하고 싶다. 詩(시) 書(서) 畵(화) 文(문) 琴(금) 基(기, 바둑) 博(박, 장기) 醫(의)의 여덟 가지에 능해 팔능거사(八能居士)라는 별명을 지닌 석재는 1892년 9월에 태어난다.

석재, 스님들에게 교육 받으며 명필 ‘팔능 거사’로 성장 사찰교육의 중요성 일깨워

한민족의 격랑기(激浪期)였던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살며, 호방하고 활달한 예술혼을 맘껏 펼친 서병오는 독립운동에도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있건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다.

문예 분야에서 사대부의 삶을 지향하여 시서화에 두각을 나타낸 대표적인 인물이자 영남화단의 중심에 우뚝 서있던 인물이 석재다. 석재는 숙부인 서상혜(徐相蕙)에게 양자로 입적하여 생가만석(生家萬石)과 양가만석(養家萬石)의 2만석 재산을 물려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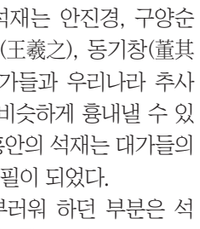
그리하여 사람들은 석재의 의 8가지 재주를 합하여, 10만석꾼이라고 불렀다. 어린 시절 서동(徐童)이라 불렸던 석재는 영리한 개구쟁이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다. 이런 석재도 아버지의 엄한 훈육에는 꼼짝없이 따라야 했다.

당시 석재의 집안은 누대로 대구 팔공산 동화사(桐華寺)에 시주하던 신도였기에 석재의 부친은 석재를 동화사에 보내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경치를 벗삼아 호연지기를 키우도록 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매일 아침 하인이 대구 읍내에서 새벽에 떠나 동화사에 점심때쯤 도달하면 그 때까지 전지 8장을 앞뒤로 빼곡하게 글을 써서 하인에게 보내어 부친이 검사하곤 하였다 한다. 동화사 스님들의 가르침과 부친의 엄한 훈육으로 석재는 안진경, 구양순(歐陽詢), 왕희지(王羲之), 동기창(董其昌), 등의 중국명가들과 우리나라 추사(秋史)의 글씨를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홍안의 석재는 대가들의 글씨 못지않은 명필이 되었다.

본납이 제일 부러워 하던 부분은 석재가 어린 시절에 동화사에 와서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부분이다. 본납이 2년여 동안 머무르던 스리랑카에는 일요일 만 되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절에 모여서 스님들로부터 불교교리를 배우곤 하는 것을 보곤 했다.

스리랑카의 국교로서의 불교와 85% 이상의 국민들이 독실한 불자로서 450년간의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들의 종교 탄압를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실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불교교육을 시켜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요일만 되면 스리랑카의 사찰들에는 학생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참으로 부러운 교육제도가 아닐 수 없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각 사찰에도 어린 학생들의 불경 읽는 소리를 듣고 싶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四物 ‘두드림’에 포교 원력 담아

‘이뭣고’ 총예술 감독 부명 스님



四物을 연주용으로 제작 특허

진정한 행복 찾기 과정 보여줘

(사)이뭣고 설립, 지방공연 계획



‘이뭣고’는 사물의 두드림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화두풀기와 더불어 불교문화를 알리고자 기획됐다. 7월 1일까지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공연된다.

법고 목어 운판 범종이 무대 위로 올랐다. 6월 21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은 타악퍼포먼스 ‘이뭣고’ 공연으로 뜨거웠다. 한껏 고조된 공연장 관객들은 박수 치며 이색 퍼포먼스에 흥겨워했다. 사찰에서나 볼 수 있는 사물들이 타악기로 변신해 관객들을 찾은 ‘이 뭣고’ 뒤에는 문화 포교에 앞장서겠다는 부명 스님(사진 왼쪽 · 인천 백령도 몽운사 주지)의 원력이 숨어 있었다.

“절집의 법고를 보며 공연으로 만들면 훌륭한 포교가 될 거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많은 대중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원을 품었죠”

스님은 이후 조계종 포교원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포교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교회 성당 등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모두가 젊은이들과 문화적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였어요. 절 집안은 너무나 훌륭한 국보 보물이 많지만 이것을 어떻게 현대문화와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잖아요. 현대와 소통은 이제 불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스님은 젊은층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포교를 구상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법고 운판 목어 범종을 무대 위로 올리는 연구에 들어갔다. “절 집안 사물은 무게와 부피가 엄청나 무대 위로 올리기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와 성형을 시작했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나무 합성섬유 등 다양한 재료를 섞어 미니멀하면서도 원래 사물 소리를 내는데 근접한 타악기를 만들었죠. 이들은 현재 특허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3년여 동안 악기를 개발하고 각본을 쓰고 단원을 모집하는 등 스님은 본격적인 공연 제작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뭣고’는 6월 1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막을 올렸다.

‘이뭣고’는 70억 인구를 대표한 행복의 기준이 다른 사람 6명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아 간다는 것이 주요 줄거리다. 오직 돈이 행복이라는 사람, 돈보다 쾌락이 최고라는 사람, 태어날때부터 행복이 이어져야 한다는 사람, 자신만을 믿는다는 사람. 권력이면 다 된다는 사람. 고통을 벗어날 길을 찾아야 행복하다는 사람 등등.

생각과 상황이 전혀 다른 이들이 우연한 기회에 ‘이뭣고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어 템플스테이를 하는 동안 법고와 목어, 운판, 범종 등 사물(四物)의 소리를 통해 느끼면서 그간 각자 찾고자 했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오감과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는다는게 주 내용이다.

“제가 스님 신분으로 공연을 만들다 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대본에 있어 보완할 점들을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들어 수정할 생각입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 가을에는 시즌 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앞으로 일반 퍼포먼스, 대중극, 불교 소재 공연 등 3가지 버전을 구상해 이뭣고를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경남 양산과 대구 등에서의 지방 공연도 계획중에 있다.

“현재 ‘(사)이 뭣고’를 설립해 많은 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강화, 재정확립을 통해 더 좋은 공연을 만들어 대중과 소통하며 불교를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망자와 산 자 모두에게 행복 주고파”

108 살풀이 공연 펼치는 이영빈 관무용단 단장

불가에서는 생과 사가 따로 없다고 한다. 하지만 희노애락에 집착해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서 죽음이란 슬프고 애달프고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떠나는 자도 떠나보내는 자도 위로가 필요한 법이다. 49재는 바로 이런 이별의 과정에서 망자를 여여히 떠나보내고 산 자를 위로하는 의식이다.

불교 관무용단이 49재 살풀이 무료 공연을 시작했다. 108회 공연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사찰 공연을 펼치고 있는 관무용단 이영빈 단장은 “저 혼자서 지난 5년간 49재에서 살풀이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재능을 세상과 나누는 기쁨을 알았죠. 올해 들어 제가 우리 단원들에게 49재 공연을 제안했어요. 모두들 흔쾌히 수락했죠. 영가를 위로하는 이 의식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음에 모두 기쁘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이렇게 49재 공연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출가해 스님으로 입적한 친아버지 때문이다.

“늘 아버지는 출가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쉰 살이 되던 해 결혼기념일에 어머니와 이혼 도장을 찍으셨고 스님이 되셨어요. 당신의 뜻을 알았기에 저희는 흔쾌히 아버지를 보내드렸고 2006년 승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의 49재에서 춤공양을 올렸어요.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춤으로 행복을 주자고 결심을 했어요”

이후 이 씨는 사찰 49재를 돌며 춤을 췄다. 그리고 불교계를 대표하는 무용단 하나쯤 만들고자하는 원을 세우고 관무용단도 설립했다. 어렸을 때부터 참선과 명상을 해오며 무용을 전공했던 그녀의 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앞으로 그녀의 행보는 바쁘다. 그동안 불교 무용단에 총력을 기울여 오던 그녀는

스님으로 입적한 아버지 49재 후 춤으로 보시행 ‘결심’ 후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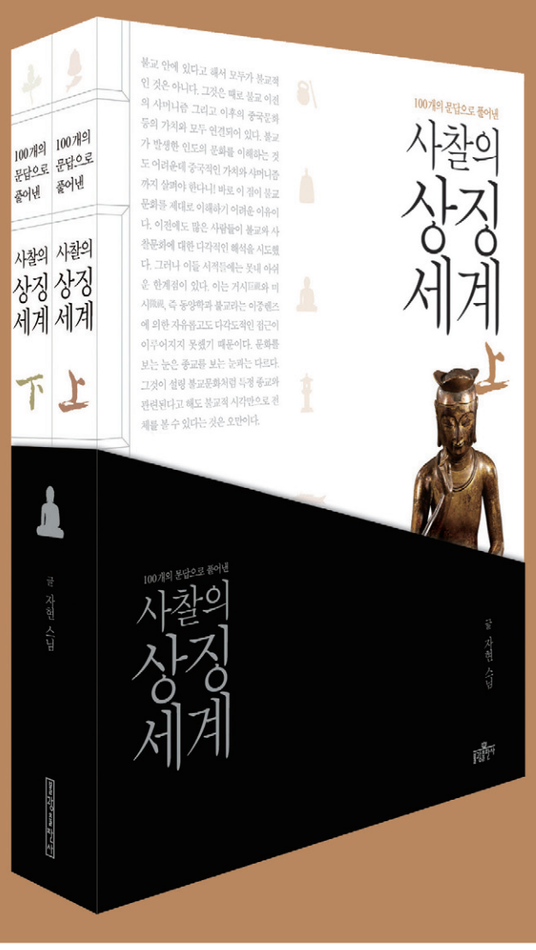
뮤지컬 제작을 통해 대중을 찾아가고자 한다. “무용단은 계속 유지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더 다양한 영역을 개척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무용 등을 결합한 뮤지컬을 기획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스스로 자립해 좀 더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또 불교계 연합 무용단을 결성하는 것도 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영빈 단장의 살풀이 공연중 한 장면

정혜숙 기자

불상은 왜 금색일까?
탑의 층수는 왜 홀수일까?
부처님의 수염은 왜 파란색일까?
관세음보살은 여성일까 남성일까?
도대체 절에는 왜 담도 없는 문이 있는 걸까?
동지에 왜 절에서는 달력을 나눠줄까?



100개의 문답으로 풀어낸
사찰의 상징 세계 (상·하)
글 자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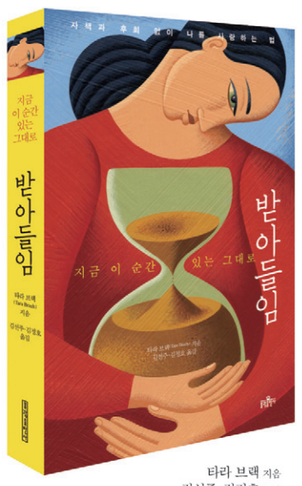
때론 오해가 빚어낸 역사가,
때론 가슴 절절한 신앙이
오롯이 담겨 있는
‘사찰’에 대한 종합 안내서

사찰을 이해하기 위해 샤머니즘, 인도, 중국의 문화를 씨줄로 불교, 유교, 이슬람, 기독교의 문화를 날줄로 대입해 가며 300여 장의 사진과 함께 풀어낸 크로스오버 문화서

상하 각 320쪽, 312쪽 | 올컬러
가격 각 22,000원

틱낫한, 혜민 스님이 추천한 심리치유의 바이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심리학 베스트셀러 1위

아마존닷컴 심리치유 분야 8년 연속 베스트셀러
Radical Acceptance 한국어판!

• 고통스러운 감정에 빠져서 끌려다니거나, 그 고통스러운 감정과 싸우느라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안아주세요. 조금 슬퍼도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도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거예요. - 혜민 스님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꼭 내 얘기를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 독자 서평

타라 브랙 지음
김선주·김정호 옮김
19,8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사찰음식서 자연과 가족 소중함 배워

사찰 음식 시연회 지역민에게 큰 '호응'

먹거리의 안전성 논란이 거세지는 요즘 사찰 음식이 그 어느때보다 주목 받고 있다. 이제 사찰음식은 먹을거리 위험에 놓인 대중들에게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주는 열쇠가 되고 있다. 진관사의 '마을(村)과 마음(心)이 어울리는 진관사 사찰음식 시연회'와 서산 부석사의 '사찰음식 잔치'는 전통음식의 소중함과 환경을 일깨우는 새로운 문화 포교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진관사(주지 계호 스님)에서 개최된 시연회는 사찰음식 체험과 시식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사찰음식을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됐다. 이번 시연회가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인근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사찰을 찾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다. 진관사 사찰음식연구소장 법혜 스님은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 체험 가족을 모집했어요. 아빠들이 가정에서 요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40세 이하 아빠와 자녀 200여 명을 초대했죠. 연잎밥과 콩죽을 직접 만들어 보며 전통 음식과 환경에 대한 고마움을 일깨우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초청 가족은 물론 인근 주민 7백 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일으킨 이번 행사는 진관사 사찰음식연구소 회원들이 주축이 됐다. 회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사찰 음식 홍보에 적극 나선 것이다.

진관사 사찰 음식 연구소는 지난 2010년 7월 개소해 현재 4개 반을 운영하며 사찰음식 전수와 보존 ·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진관사는 G20 정상회담 서울 개최 당시 종교지도자를 초대해 사찰음식 시연대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후 경제인-대사관 부인 교류 모임인 가든클럽 회원들을 초청해 시연회를 열기도 해 사찰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 스님)는 지난 6월 9일 사찰음식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사찰음식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

진관사, 아빠와 자녀 등 체험 실습
서산 부석사, '공양청' 잔치 열어



사찰이 지역민을 위한 사찰음식 축제를 개최해 자연 음식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6일 개최된 진관사 사찰음식 시연회 장면.

사에는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시식회, 쑥 인절미 만들기 등이 진행됐다. 사찰음식 잔치 역시 부석사 내 사찰음식 연구 모임 '공양청' 회원들이 주축이 됐다.

주경 스님은 "서산에 전국 체전이 열리면서 사찰 음식을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개최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공양청 회원들도 이번 행사를 통해 큰 자부심을 얻은 듯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공양청은 매달 강사를 초빙해 강연을 갖는 등 사찰음식 전수와 보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 모임은 주지 주경 스님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주경 스님은 "예전에 비해 절집이 공양주들도 자주 바뀌고 세대도 바뀌면서 고유의 음식맛을 잃어버리고 있다. 젊은 신도들이 사찰 음식 고유의 맛을 이을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공양청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이다 보니 강사 섭외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가정 선생님, 조리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조인해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사찰음식 축제는 지역민과 함께하며 우리 식탁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 사찰이 대중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사찰의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반갑고 의미 깊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시선은 즐겁고 마음은 '행복'

리모델링으로 태어난 템플스테이정보센터 '홍보관'

요즘 견지동을 오가는 사람이면 동자승, 전통 등, 나무 빗살 창틀, 기왓장 등 전통 무늬와 소품으로 꾸며진 이 공간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정보센터 1층 홍보관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가장 눈에 띄는 전시는 역시 닥종이 인형으로 만든 동자승 시리즈다. 책 읽고 축구하고 연잎을 들고 합장하는 각각의 동자승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미소를 머금게 한다. 템플스테이 체험을 재현한 인형도 흥미롭다. 스님과 함께 발우공양을 하면서 한 방울의 물과 한 톨의 쌀에도 감사함을 배우는 이 장면은 템플스테이에 대한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불교용품 판매 코너도 주목할 만하다. 유리 진열대에는 액자 작품은 물론 나전 연필, 향꽂이, 향로, 단주, 목어옻칠수저 세트, 불교액세서리 등 30여 종의 불교 용품이 진열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끈다. 불교문화사업단 홍민석 팀장은 "기존 커피숍과 안내센터 등으로 구성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 했다. 커피숍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지만 정작 한국 문화와 불교 문화를 알리는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모호한 점이 있었다. 이번 공사를 기점으로 템플스테이 등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자 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템플스테이 홍보관의 동자승 시리즈

전통문양 인테리어로 전시 강화
외국 관광객 상담 부스도 마련

이번 리모델링의 특징은 전시와 함께 안내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구성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상담코너에는 조계종 국제불교 소식지 '세계일화' 편집장 진서 스님이 외국인들의 상담을 도맡고 있다.

이제, 7월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템플스테이 홍보관은 ▷템플라이프 개발 ▷불교문화용품개발 등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히말라야의 품에서 찾은 '환희심' 화폭에 펼쳐

강찬모 개인전 공평갤러리서
수차례 네팔 여행하며 영감 얻어

히말라야 설산 짙푸른 하늘에 달이 올랐다. 어느새 주변으로 몽글몽글 별들이 둘러싸면 세상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듯 따뜻하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는 우주의 중심이 되고 환희의 세계가 된다. 그것은 알 수 없는 진리의 세계를 찾아 헤매던 자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밝고 주변은 온통 환하다. 세상의 막다른 골목에서 찾은 평화의 기쁨은 그렇게 화폭에 촘촘히 수놓아져 세상을 밝힌다.

오랜 시간 히말라야를 찾아 온 강찬모 작가의 개인전이 7월 3일까지 공평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히말라야와 자연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 60점이 전시된다. 강 씨가 히말라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부터다. 늘 부처님 말씀을 몸소 체득하며 살아가던 그는 네팔이 그리웠고 히말라야가 무작정 보고 싶었다.

그렇게 룸비니 등 부처님 7대 성지를 여행했고 히말라야를 찾았다. 그는 단박에 이곳이 바로 부처님 품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 작가는 "무작정 네팔을 찾아 히말라야와 룸비니 등을 여행하며 알 수 없는 환희심을 느꼈다. 이후 수차례 히말라야를 찾으며 그 느낌을 작품에 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한다.

이제 히말라야는 그에게 있어 작품 세계의 원천이자 영감의 근원이 되었다. 그렇게 매년 네팔을 찾으며 그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색채의 추상화를 통해 부처의 세계에 다가가고 있었다. 이번 전시에는 '빛의 사랑', '산의 울림' '별이 가득하니 사랑이 끝이 없어라' '환희심' 등 히말라야와 자연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태양을 주변으로 물고기 잠자리 나비 사람 등을 표현한 '환희심'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우주의 질서를 강렬한 색채로 표현했다.



강찬모 作 '환희심'. 작가는 7월 3일까지 공평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강 씨는 올해 10월과 12월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히말라야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충만한 감사와 그리움을 작품에 담을 것이다.

(02)3210-0071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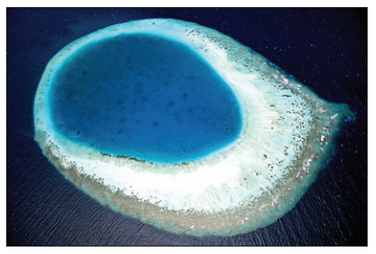
지구에 대한 성찰 '렌즈'에 담다

얀 아르튀스 베르트랑의 특별전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항공사진작가 얀 아르튀스 베르트랑의 특별전이 8월 26일까지 대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다. '하늘에서 본 지구-It's My Hom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작가가 지난 20여년간 하늘여행을 통해 렌즈에 담은 사진 작품 220여 점이 선보인다.

작가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생명(동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사진과 비디오 등 미디어아트를 통해 전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구 사진과 동물 사진은 물론 세계 70개국 항공사진을 영상으로 제작한 영화 '홈(HOME)'도 상영돼 눈길을 끈다.

또한 지난 6년간 한국 상공을 비행하며 촬영한 사진도 출품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우리 땅의 모습 30여 점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글과 어우러진 이야기가 있는 전시도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몰디브의 눈

전시를 주최하는 하늘에서 본 지구 조직위원회는 "얀의 사진은 사진작가나 관람객이 아니라 말 없는 지구가 말하게 하고 동물들이 말하게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생명들의 합창은 어느덧 우리 인간과 지구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혜숙 기자



저자 성범 스님

살아 있기 때문에 아프다

도심포교당의 수행일선에서 들려주는 평범한 삶의 지혜!

죽었다고 여겼던 사람이 아픔을 느끼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합니다.
이렇게 아픔을 껴안을 수 있다면 아픔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픔을 극복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통 아닌 것을 고통으로, 불행 아닌 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바꾸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범스님은
1988년 통도사로 출가, 1989년 석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활산 성수선사에게 선을 배우고 문경 봉암사, 묘관음사, 복천암, 개심사, 정혜사 등 제방선원과 사량도 지리산 등지의 토굴에서 정진하였다. 마곡사 공주포교당 지도법사로 포교활동을 하였고 현재 대전 구봉선원 주지로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에는 금강경해설서 '꽃을 시샘하지 않는다'가 있다.

구봉선원 - 대전 서구 관저동 1086(2층) / 042)543-3722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콧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고품격 여름방학 특선 (인천공항, 김해공항 출발가능)
양곤 바간 헤호 6일 요금문의
출발일 : 7월 23일, 7월 25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2일]

■ 미얀마 성지순례 * 고품격 상품 *
일 정 : 양곤 바간 헤호 6일 190만원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7일 210만원
* 전 일정 특급호텔(세도나, 뜨레져, 후핀)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마차), 업그레이드 식사

■ 중 국 성지순례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7일 129만원 / 6월~7월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 6월23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I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 전체 일정 모든 경비 포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애서가愛書家가 사랑한 책들



그 남자의 책장, 무엇이 특별했을까
고광영 지음
참글세상 펴냄
1만5천원

前 불교시대사 대표 고광영(사진)의 유고집이다. '삶에 힘이 되어주는 고광영의 책 이야기' 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써온 책 이야기 44편을 모은 서평집이다. 이 책은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책의 일부로 다뤄야 한다. 과정에 참여한 인연들이 단순한 '스텝' 의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책' 의 의미와 함께 고인에게 바치는 헌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후배인 석길암 박사가 흩어져 있던 원고를 모았고, 도반인 한양대 이도흠 교수가 책 속의 '책갈피' 와 '내용요약' 에 힘을 보탰다. 저자의 아내인 사기순 씨(불교시대사 기획위원)가 엮었고, 저자가 평생 일했던 불교시대사의 자회사 참글세상이 펴냈다.

2011년 4월 18일, 불교를 아끼고 책을 아꼈던 저자는 5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가깝게 지냈던 법인(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스님은 "이제 보살 고광영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나 그가 남긴 '책사랑' 과 '일체존재에 대한 연민' 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곳저곳에 흔적으로 남긴 '책 사랑 이야기' 들을 찾아 엮어서 이렇게 책이 만들어졌다. 이 일을 고광영의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남편 못지않게 불교 출판에 대한 애정이 깊고 탁월한 편집자이기도 하였던 사기순이 맡아서 하였으니, 남편 생전에 다하지 못한 사랑까지 듬뿍 더해져서 책이 더욱 빛날 것이다. 그러니 이 책은 고광영과 사기순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 현재에 이어 둘째 아들인 셈이다."고 서문에 썼다. 이 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온 책이다. 저자는 불교와의 깊은 인연으로 월간〈현대불교〉 기자를 시작으로, 월간〈봉은〉 기자를 거쳐, 불교 전문출판사인 불교시대사에 입사하여 대표까지 지냈으며, 〈불교평론〉 편집장을 역임한 언론이자 출판인이었다. 도반이었던 이도흠 교수는 "어찌 되었던 그는 지금 여기 없다. 대신 글과 생각은 남았다. 한국불교의 중흥과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에 대해 함께 꿈꾸던 것들은 이제 남은 이들의 몫이다. 그가 썼던 글 가운데 서평을 한 것을 모아 유복자처럼 출산시키려 한다. 사람이 죽으면 흙, 물, 불, 바람으로 흩어진다고 했는가. 그의 살은 흙으로 되었다가 나무로, 다시 종이로 변하였고, 그의 피는 잉크가 되었고, 그의 체온은 글 속의 기운으로 빛나고, 그의 행동은 책갈피를 들출 때마다 바람으로 분다."고 서문에 썼다. 이 책을 읽는 것은 책갈피마다에서 이는 그의 바람을 맞는 것이다. 그 남자의 책장엔 어떤 특별한 책들이 있었을까. 총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된 책은 불교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신동흔의 〈살아있는 우리 신화〉, 신영복의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 도미야 이타루의 〈나는 이제 오랑캐의 옷을 입었소〉 등의 책을 통해 동서양의 고전을 넘나들고, 김종래의 〈우마드(womad)〉와 시오노 나나미의 〈남자들에게〉를 통해 매력 있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도 전한다. 한편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을 통해 여전히



前 불교시대사 대표 고광영의 유고집
생전에 써놓은 서평 44편 모은 것
남편 그리며 아내가 만든 책

우울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되돌아보고, 최성현의 〈좁쌀 한 알〉에서는 무위당 장일순의 삶을 조명했다. 저자는 해당 책마다 '책갈피' 면에서 중요한 문장들을 뽑아 소개했고, '내용요약' 면에서는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놓았다. '책갈피' 와 '내용요약' 만 읽어도 책 한 권의 내용을 대충은 알 수 있게 해놓았다. 유용주의 〈그러나 나는 살아가리라〉에서는 삶 자체가 미덕임을 힘주어 말하고, 주자청의 〈아버지의 뒷모습〉에서는 돌아가신 부친에게 살갑지 못했던 지난날을 반성한다. 〈마시멜로 이야기〉,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 〈소호카의 꿈〉, 등의 자기계발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랐던 세상살이는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마지막 구절, "요즘 화두는 웰빙이다. 몸에 좋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하기 전에 명의나 명약을 찾기 전에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볼 일이다. 죄 짓고는 못 사는 법이다." 라는 것에 잘 나타나 있다. 이현의 〈기적의 도서관 학습법〉, 정민의 〈미쳐야 미친다〉, 이승복의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 등 평소에 아내와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다. 책의 마지막에 소개된 책은 잭 콘필드의 〈깨달음 이후 빨랫감〉이다. 저자는 이 책을 소개하면서 "깨달음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고 했는데, 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이 책을 통해 그의 삶과 뜻은 계속될 것이다. '삶에 힘이 되어주는 책 이야기', 책의 부제처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책은 한 줄기 위안이 되고,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 남자의 책장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여든 되서 쓴 시

여든이 되어 보렴

한계주 지음 | 시학 펴냄 | 8천원



여든이 되어서 시를 쓰기 시작한 수필가 한계주의 첫 번째 시집이다. 〈사랑만 하다 가기도 짧은 인생〉, 〈모천으로 돌아가다〉, 〈백제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등 수필만 써왔던 수필가 한계주의 첫 번째 시집이다. 아마도 여든부터의 이야기는 '시' 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는 이제 여든 둘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 그저 고맙고 // 세상 별거 아니다 싶어 / 그저 우습고 // 아이들 잘 살아주니 고맙고 / 부모 형제 잊지 않으니 더욱 고맙고 //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 화나는 일 없어 좋고 //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여든이 되어보렴 · 1' 여든. 쉽지 않았던 나이. 이젠 어렵지 않은 나이. 쉬워진 '여든' 이지만 모두 '여든' 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편 한 편 시를 읽어가며 든 생각이다. 여든의 시선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에 대한 고마움에 닿아있고, 시는 시인이 여든 해 동안 써왔던 언어들 중에서 여전히 가슴 속에 살아 있는 언어들을 찾아내는 '작업' 이었다.

수필가 한계주의 첫 시집
여든이 되어 느낀 삶의 단상 101편

'여든' 은 / 일흔아홉에 하나를 더하는 / 숫자가 아니다 // 열을 여덟 개 똘똘 말아 / "옛다 먹어라"하고 / 가슴 한복판에 던져진 폭탄 세례 // "넌 아니야" 하고 / 등을 돌렸는데 // 돌렸다 생각했는데 / 그 여든도 가고 있다 -여든-'

'여든' 도 마찬가지였다. 가는 것을 아쉬워했다. 여든이 되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 '씁쓸한 여든 살', '여든의 기억', '여든, 잔치는 끝났다' …. 시집엔 101편의 시가 실려 있다. 삶이 던진 질문들, 풀지 못한 의문들. 하고 싶었던 것들. 깨달은 것들. 엄마. 당신. 마흔넷 젊디젊은 나이에 우리를 두고 가신 아버지. 그리운 것들. 이별했던 것들. 시. 근심했던 것들. 선생님. 열반송 하나 남기지 않고 / 수의도 관도 / 만장도 없이 /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법정 스님. 주리반타가 사는 운문사. '관조' 라는 골조를 채워가는 언어들은 따뜻하면서도 노련하다. '여든' 이 그런 것 같다. '장(場)을 접을 나이에 / 손바닥만 한 멍석을 편다 // 달 속에 토끼가 놀고 / 사다리 타고 별을 따러 가던 / 그 자리에 선다 // 별에 닿을까 / 허공을 휘저어 본다 // 내 깊은 마음 어디엔가 떨어져 숨어 있는 / 별 하나 건져 올릴 수 있다면 // 너와나 / 따뜻한 마음 한 자락 / 나눠 가질 수 있다면 -별-' 시인은 뒤늦게 손바닥만 한 멍석을 펴고 마음 어디엔가에서 별을 건져 올리고 있다. 여든의 시인이 쓴 시 '여든' 이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3~6/19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2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3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4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5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6	사찰의 상징세계	자현	불광출판사
7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	대행	한마음출판사
8	받아들임	타라 브랙	불광출판사
9	놓아버리기	아잔 브라흐마	궁리
10	불교공부사전	곽철환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참음이란 무엇인가…내가 '참음' 이 되어라

항복기심-참는 연습

영곡 스님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2천5백원



"왜 이러한 괴로운 상황이 하필 나에게 오는가" '참음' 에 대한 이야기다. 책은 총 6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과 2장에서는 우리가 왜 참아야 하는지, 참음이란 무엇인지, 누가 언제 어디서 참아야 하는지, 무엇을 참으며 무엇으로 참아야 하는지, 어떻게 참는지와 같은 6H 원칙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후반부의 3장에서는 참음의 공덕을, 제4장에서는 참음의 완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참음의 모태인 자애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인 영곡 스님은 7년 전 부산에서 '금강경' 강의를 하다가 인욕선인(忍辱仙人)의 설화를 접하게 되면서 참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 참음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기 위해 묶어놓은 자료가 책으로 나오게 됐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란 능히 참는다는 뜻으로 능인(能忍), 또는 감인(堪忍)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감인토, 즉 능히 견디어 내어야 하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참아야' 하는 세계에 와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세계에 살고 싶은데 왜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도 않은 이러한 세계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일까요?" 저자는 평탄하지 못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고 출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생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다. 참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미부터 차근차근 짚어간다. 참는 자는 누구인가. 참음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참음의 여러 분류 가운데 〈좌선삼매경〉의 분류에 따라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님은 참음에 종류와 단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참음에는 경전과 각종 주석서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두 가지 참음(二忍), 세가지 참음(三忍)부터 열 가지 참음(十忍) 등이 그것입니다.

"'최상의 참음' 이란 참음을 실천하여 나아가서 그 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곧 '궁극적 참음' 이며 '완벽한 참음' 이요, 참음의 완성입니다. 참음의 완성은 '내가 참는다' 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음' 이 되어 '참음' 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참으면서 참는 줄 모릅니다." 결국 모든 법문은 '실천' 이라는 명제 앞에 선다. 참음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실천인 것이다. 참음을 알고만 있는 것은 책을 들고만 있는 것과 같다. '항복기심', 각자의 마음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어야 한다. 내가 내 마음을 정복하는 순간이 '참음' 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인 영곡 스님은 무주군 덕유산 자락 깊은 곳에서 태어났다. 자신의 업보를 알게 된 스님은 오랫동안 마음에 맺혔던 원망의 부정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을 깨달아 본격적인 참선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조계종 수좌인 저자는 여름 · 겨울철 결제 때마다 선원에서 안거수행을 하고 있다. 해제 때는 신도들에게 경전을 강의하거나 번역을 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가장 많은 법화경 사경 및 독송!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단순히 경전을 베껴 쓰기만 해도 이 정도이니 하물며 경전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뜻의 본질을 알아 설한 대로 수행하는 사람의 복덕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붓다북과 인터넷 서점에서 법화경 사경을 사시는 모든 분들께 사은품으로 붓펜을 드립니다.

행복을 부르는 법화경 사경
(한글·한문) (전7권)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1,760쪽 / 65,000원
한문 원문 및 한글음 사경에 우리말 번역 수록

우리말 법화경 사경 (전5권)
혜조 역 /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940쪽 / 40,000원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혜조 역 / 국판양장 / 금장 630쪽
가죽: 20,000원/ 가죽·지퍼: 25,000원

고급스럽게 꾸민 새로운 장정!
유려하고 현대적인 우리말 번역!

독송용 한문 법화경
국판누박양장 / 금장 600쪽 / 18,000원

〈가죽〉 〈가죽·지퍼〉

붓다북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불교도서, 음반, 용품 전문쇼핑몰

“수행할땐 많은 짐 내려 놓으세요”



놓아버리기
아잔 브람 지음
혜안 스님 옮김
궁리 펴냄
2만5천원

“수행 중에는 무언가를 축적하거나 어떤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계발해서는 안됩니다. 그 대신 모든 짐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을 계발해야 합니다. 일상서 우리는 무거운 여행가방 같은 많은 의무의 짐을 들어야 합니다. 수행 할때는 많은 짐을 내려놓으세요.”

이 책을 쓴 저자 아잔 브람은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었던 캠브리지대 출신의 이론물리학을 전공한 공학도다. 그는 영적인 삶에 대한 갈망을 가슴속에 품고 아잔 차 스님의 제자가 돼 태국에서 오랫동안 수행했다. 이어 호주로 건너가 남반구 최초의 사찰인 ‘보디냐나 사원’을 세웠다. 여기서 그는 불교명상에 관한 깊은 경험과 심오한 통찰을 명쾌한 설명과 뛰어난 유머감각으로 잘 버무려낸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그의 법문은 사원의 홈페이지나 유투브를 통해 매년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그의 가르침은 진정한 행복과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 책은 삶에서의 행복이나 깨달음을 위해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 명상법을 제시하며 불교명상을 통해 도달되는 깊은 정신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다. 아잔 브람 특유의 위트와 유머가 가미돼 비교적 경쾌하게 책장이 넘어가지만 그 내용만큼은 결코 그리 가볍지 않다.

불교명상에 관한 초보자라면 그저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명상 서적 정도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불교명상에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이 있는 수행자가 이 책을 읽게 되면 놀랄지도 모른다. 그동안 어떤 책에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이 이 책에서 제시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수행을 통한 초월적 지복의 상태인 ‘선정’에 도달하는 방법과 선정 상태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놓아버리기’란 어떤 의미일까? ‘놓아버리기’에는 매우 다양한 차원들이 존재한다. 우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아버리기’는 ‘진정으로 합리적인 인간되기’라 말할 수도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사람들은 보통 그들이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들을 후회하고 자책하기도 하며, 미래에 대해 걱정한다. 왜 그럴까? 이것은 우리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부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꽉 잡으면, 실체가 없던 과거와 미래가 형상과 무게를 갖게 되고 우리를 힘들게 짓누르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우리의 인식과 생각 대부분이 과거 혹은 미래와 관련된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과거와 미래라는 불필요한 짐을 놓아버리기 때문이다.

과거와 미래를 놓아버리고 현재 이 순간에만 깨어 있으면 이전에는 경험 못했던 정신적 충만감, 행복을 느끼게 된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을 놓아버리면 당연히 행복해진다는게 저자의 논리다. 이렇게 ‘놓아버리기’는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행복을 가져오는 한 방법이다.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정말 심각하다.

불교명상 경험 통찰과 유머로 설명
‘놓아버리기’는 합리적인 인간되기
마음 활용하려면 그 원리 이해해야
‘놓아버림’, 멈춤 통한 달콤한 경험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을 통제하고 조종하려한다. 이는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컴퓨터를 잘 이용하려면, 그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하게 응용해보면서 능숙해져야 하는 것처럼, 마음도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시켜보면서 마음을 다루는 데 능숙해져야 한다.

그러면 괴로운 감정이 닥쳐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 마음을 감지하면 이것을 쫓아버리려만 한다. 하지만 이렇게 반응하면 우리 마음은 상처를 입고 더욱 엇나가게 된다. 괴로운 감정이나 생각들이 밀려온다면 먼저 이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라 받아들이며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놓아버림’ 혹은 ‘멈춤’을 통해 경험하는 달콤함이다.



아잔 브람은 수행중에는 기꺼이 포기하는 마음을 계발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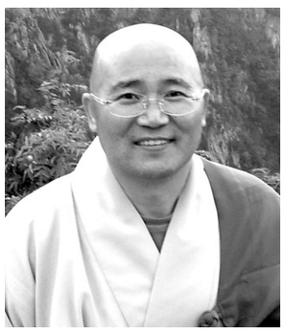
많은 수행자들도 마음에 관해서 일반인들과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부단히 애쓴다.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것이 바로 불교수행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시와 에세이로 조명한 합천 해인사



시간의 선물
성원 스님 지음
담앤북스 펴냄
1만 4천원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

올해 초 저자가 주지를 맡고 있는 제주 약천사에서 스님을 만났다. 몇 번 보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그 이유가 궁금했다.

돌아서 오는 길에 그 해답이 생각났다. 뱃 속 깊이부터 우러나오는 스님의 너털웃음이 수행자로서 소탈함을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시간 남짓 동안 나눈 스님과의 대화중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스님입니다”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어떻게 저리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또한 부러운 마음도 들었다.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이번에 출간한 스님의 책 곳곳에서 행복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역시 이 책 머리말 끝머리에 자신을 소개하며 스님은 당당히 독자들에게 또 밝혔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문 성원’이 이 책을 썼다고.

지난 7년 전부터 현재까지 월간 〈해인〉지에 표제시를 써 온 작가인 성원 스님은 자신이 1991년부터 97년까지 약 6년간 머물던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의 단상을 80편의 시와 8편의 에세이로 옮겼다. 주제는 ‘부도’ ‘외나무다리’ ‘총림의 문’ ‘석탑’ ‘석불’ ‘범종’ 등 해인사 성보물들을 비롯해 ‘그리운 당신’ ‘구도’ ‘삶의 그림자’ 등 해인사서 살면서 느낀 삶의 생각들이다.

시를 쓴 방식이 독특했다. 〈해인〉지서 해인사 관련 사진들을 보내면 스님은 그것을 보며 시심을 발현했다. 과거 해인사 승가대학서 수다라 편집장까지 지낸 이력 때문일까? 오히려 이 방식이 과거 해인사서 공부하고 수행정진하며 느꼈던 추억들을 새록새록 꺼내 볼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한다.

성원 스님은 “이 책에는 해인사의 사계절 풍경과 성보물들에 대한 시 뿐만 아니라 해인사에서 일어났던 대소사건들도 들어 있다”며 “특히 해인사 승가대학서 큰 가르침을 받았던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지난 1월 입적하셨을 때 개인 사정 때문에 찾아뵙지 못해 마음에 걸렸는데 ‘다비식’ 사진을 받고 시로 옮기면서 그 송구스러움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었다”고 회고 했다.

그래서일까? ‘다비’라는 부제의 시에는 그리움의 여운이 담겨 있다. “한 생을 두고 태워도 태워도 마저 태우지 못해 마감한 생의 뒤안길 다시 태워야 할 지독한 삶의 찌꺼기/ 버리고자 잊고자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 밀착되어지는 나라고/ 이름 불리운 차라리 타인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세월에 변하지 않는 단단한 기상을 전하면서도 부드러운 스님의 시 한 수, 명상의 글 몇 줄을 찬찬히 읽어 가노라면, 평소 놓치던 자성의 소리가 내면서 맑게 들려오는 듯하다. 풍성한 나무 그늘 아래 편안히 앉아 있는 느낌을 주는 스님의 글은, 바쁘게 앞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걸음 쉬어가는 마음의 휴식을 준다.

7년간 〈해인〉지 표제시 묶어
해인사 관련 80편 시와 에세이
‘다비’ 지관스님 입적 슬픔 표현
잔잔한 시심 마음의 휴식 전해줘

특히 ‘시간’에 대한 평소 생각을 시로 옮긴 글에서 그런 휴식의 감정이 돋아난다. “일생 스스로 거둬 들인 시간 그 긴 세월 위에서 길을 나선다/다시 나서는 길은 돌아오지 않는 길이 아니다 돌아와 자리할 빈 공간도 시간도 없는 그 곳/ 다시 열리지 않는 두 번 다시 닫혀지지 않는 시간의 두께/마땅히 조여 매어도 나아갈 곳 다시 어디 있을까”

“시를 통해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시간속에서 조금이나마 삶의 시간을 늦추며 살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는 성원 스님의 말을 들으니 왜 스님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지 고개가 끄덕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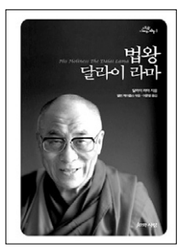
성원 스님은 현재 제주 약천사 주지 겸 서귀포불교대학 교수, 한국국제협력단(KOPICA) 자문위원, 유니세프 서귀포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달라이 라마가 전하는 부처님말씀

법왕 달라이라마

달라이 라마 지음 | 앨런 제이콥스 엮음
知와 사랑 펴냄 | 1만2천원



법왕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갸초는 현존하는 주요 종교 지도자들 중 하나다. 그는 성년 이후 삶의 대부분을 친절과 연민을 전파하고 인류 난제들에 대해서 실용적이고도 영적 조언을 하는 데 바쳐 왔다. 이 책은 달라이 라마의 많은 책과 강의뿐 아니라 좌담과 시에서 선별한 감동적 글을 한데 모은 문집 형식으로 그의 인류애, 지혜, 유머, 용기 등을 엿볼 수 있다. 부처님의 진리를 분명하고 간결하며 읽기 쉽게 표현한 달라이 라마의 글들을 소개하고 있어 메시지가 설득력 있게 전해진다.

이 책은 ‘진정한 친구, 연민’에서 시작하여 ‘티베트 여성 불자의 파워’에 이르기까지 달라이 라마의 25가지 가르침들을 네 주제별로 엮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친절, 사랑, 연민, 이타심과 같은 주된 불교의 가르침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티베트, 세계평화, 환경, 과학, 여성, 교육 등의 문제가 다뤄진다. 또한 달라이 라마의 노벨평화상 강연과 인터뷰 내용, 몇몇 시와 기도문 등도 수록됐다. 달라이 라마가 설파하는 다양한 가르침과 더불어 누구나 그를 사랑하고 숭배하게 만드는 따뜻한 마음, 깊이, 엄숙함, 위트, 문학성 등이 잘 드러나 있다. 달라이 라마는 지구의 안녕을 보살펴야 하는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자연환경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보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김주일 기자

마음속 울림 큰 군법사 에세이 74편

내 심장이 기억합니다

김재윤 지음 | 생각과 나눔 펴냄 | 1만5천원



이 책은 군종법사로 있는 저자가 자신을 반추하며 세상과 사람에 전하는 진솔한 고백이다.

저자는 말한다.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영혼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인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 고마운 사람들에게 가슴속 진실을 고백하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진정한 성공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고통을 준다면 부자이고 명예가 있어도 그건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책은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마다 시를 실어 울림을 더욱 깊게 하고, 지은이 자신이 직접 그린 동화속 풍경 같은 삽화까지 담아, 읽는 재미와 감동을 더하도록 구성했다.

이렇듯 잔잔히 펼쳐지는 74편의 소담스런 이야기는 행복과 희망이라는 가치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깝게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저자 김재윤은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직지사에서 사미계를,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각각 수지한 뒤 영천 3사관학교에서 군종법사 55기로 임관했다. 법명은 형지(炯至)다. 현재는 호국 대성사 주지 법사로 있다.

김주일 기자

64형으로
나눈 체질의
궁금증 무료

사람을 보면 64형으로
나누어서 나의 체질을 알수있으며
모든병의 원인과 성격변화를
줄수있는 체질한약차는
복용시 본인이
좋다는걸 느낄수있고
맞는음식 맞는과일
맞는차가 궁금하신분
연락하세요.

스님들의 수행과
건강에 특혜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0-9373-3778

풍기정품
홍삼액기스 인삼
직접재배가공하여.양심을 속이지
않고만든 100mlX60포(한달분)홍삼액기스.
산삼배양근추출액(레드파워)홍삼편.
홍삼청국장. 직접재배하는인삼
※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 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이상을 숙성발효시켜만든 홍삼액기스입니다.



■ 영농법인 풍기정품인삼제조창 풍 삼 정
TEL 054)636-2174 / 016-815-2174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2012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기념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전통 범음범패 (바라,작법) 과정
학 인 모 집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1. 교육과목 :
기초 - 도량석, 아침종송, 사시마지, 저녁예불, 각단예불, 목탁, 요령, 북,태징, 동광쇠, 타법
기본 - 천도재의식 : 1. 시련,대령,관욕,39위.
2. 봉청짖소리,대령소(고혼소)복천게, 향화청(짖소리),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짧은소리
3. 상단, 관음시식, 상용영반
4.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요잡바라, 화의재바라
5. 나비춤(도량게.다게)
고급 - 생전예수제,수륙재,방생,시다림. 종사영반 , 다비식, 종사이운, 괘불이운
2. 개강일시 : 수시모집
3.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2시~오후 6시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별도)
5.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서강빌딩502호)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1매
7. 접수기간 : 상시
8. 연 락 처 : 051)442-1818 / FAX : 051)442-1817
010- 2554-5582 (총무국장)
010-9467-0346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해동성국 대발해는 어떤 나라였을까?

동북아 여러 부족 지배한 대발해

1. 고구려를 이은 동북아 대제국

김부식은 고구려의 해체 이후 그 유민들 중 고구려 고씨(高氏)의 별종(別種)인 대씨(大氏)가 세운 '대발해'를 독립된 '국명'(國名) 또는 건국조인 대조영을 독립된 '본기'(本紀)로서 기술하지 않았다. 다만 신라의 「최치원전」에서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대)발해에 대해 "의봉(儀鳳) 3년(678) 고(구)려 유민들이 태백산 아래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우고 (대)발해라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일연은 『삼국유사』「기이」에서 '말갈 발해' 조목을 시설하여 대발해가 한국사임을 분명히 하였다. 고구려가 망하자 약 20여 만 명의 고구려인들이 당나라로 끌려갔다. 유민들은 당나라로 끌려가면서 당의 정략에 의해 동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졌다. 이들 중 일부 유민들은 요서의 영주(營州)를 중심으로 고구려 부흥운동을 도모하였다. 유민들 일부는 고구려 장군이었던 대(걸)중상(大乞仲象)과 대조영(大祚榮)을 따라 고구려의 부흥운동에 전념하였다.

때가 무르익자 고구려 유민들은 말갈인들을 거느리고 대(걸)중상은 678년 소국에 준하는 정치세력을 형성시킨 뒤 684년에는 진국(震國, 小渤海)을 건국하였다. 이 소발해(진국)는 다시 대중상의 아들인 대조영에 의해 '대씨의 발해'이자 '광대한 발해'인 '대발해'(大渤海)로 이어갔다. 대조영이 건국한 대발해는 '고씨의 고구려'를 계승한 '후고구려'이자 '고씨의 별종'인 대씨가 세운 대제국이었다. 대발해

고구려 고씨 별종인 대씨의 제국
고구려 복원과 유민포용 의미

의 건국은 종래 동북아시아 지역을 통치하였던 고구려의 복원과 당나라에 맞서는 새로운 제국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고구려의 해체 이후 낯선 영주(營州)로 떠나 객지의 삶을 살아야 했던 유민들과 고구려의 지배를 받던 속말말갈과 백산말갈 등은 이 지역의 글안(거란)족들과 반당(反唐) 전선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제국의 건설에 전력하였다.

696년 반당 봉기로 추장 이진충(李盡忠)과 손만영(孫萬榮)에 의해 글안국이 건설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고구려 유민들과 고구려의 지배를 받던 말갈족 등은 동북쪽으로 이동했다. 이들을 뒤쫓던 당나라 장수 이해고(李楷固)가 이끄는 대군과의 천문령(天門嶺) 전투에서 대승한 대조영은 동모산으로 이동해 대발해를 세웠다. 대조영은 홀한해(경박호) 가까운 곳인 상경용천부(東京城)를 수도로 잡았으므로 나라 이름을 '홀한해'를 달리 말하는 '발해'라고 불렀다. 그런데 '작은 바다'를 나타내는 보통명사 '발해'는 길이가 약 55킬로미터, 폭이 약 10킬로미터의 타원형으로 된 '경박호'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때문에 이 호수를 바다처럼 넓다고 여긴 '홀한해'를 제국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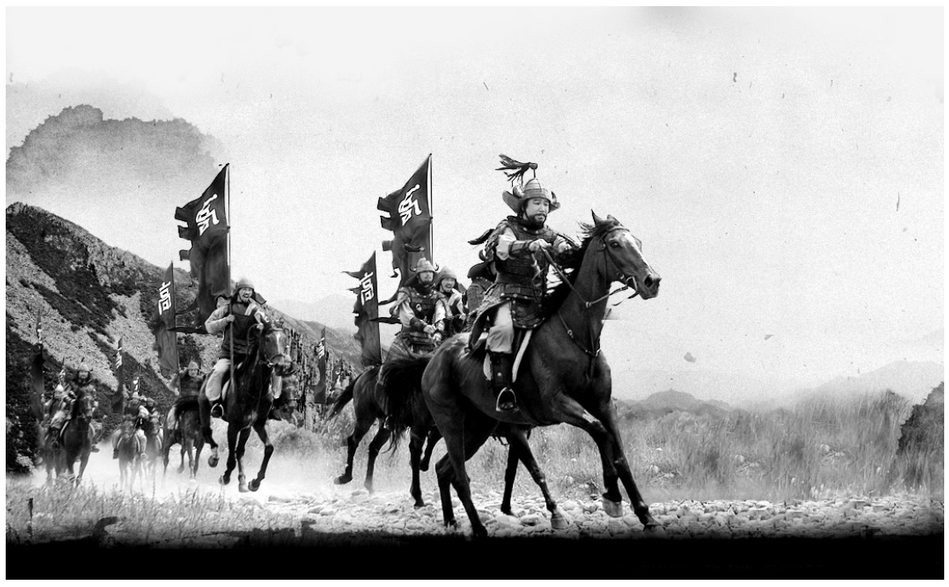
해서 676년 고구려 유민들이 형성시킨 소국에 준하는 정치세력과 대걸중상이 684년 동모산 중심으로 세운 소발해(진국) 등과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약 260여 년 간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부족을 지배했던 대제국의 위상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대발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되면 대발해가 멸망한 뒤 열만화가 세운 후발해인 정안국(定安國)과 몇몇 발해국들과 글안이 유민을 이끌고 세운 위성국 동단국(東丹國 등과도 변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대씨가 세운 발해'를 '대발해'라 한 것은 '고씨가 세운 구려'를 '고구려'라고 한 것에 부응한 표현인 것이다.

2. 한민족사 최초의 해외 원정

대발해는 초조인 고황 대조영부터 제15대인 애제(大??, 906~926)까지 약 230여 년간 존속했던 동북아시아의 대제국이었다. 태조인 고황(698~719재위)을 이은 대무예(大武藝, 719~737)는 냉철한 판단과 대담한 전략으로 주변의 당나라와 흑수(黑水)말갈 및 글안(거란)과 해(奚)족 그리고 신라와 왜(일본)를 제어하여 신생 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때마침 흑수말갈이 당 현종을 찾아와 조공을 바치며 관리 요청을 하면서 대발해를 배신하였다. 현종은 흑수말갈을 꾀어 관작을 주면서 흑수말갈에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였다. 대무예는 동생 대문예를 보내 흑수말갈의 토벌을 명했다. 하지만 동생 대문예는 당에 인질로 살았던 경험을 토대로 당과 등지는 것이 나라에 좋지 않다며 형의 명을 어기고 당에 투항하여 작위를 받았다.

대무예는 동생 문예를 방치했다가는 나라의 정국이 흔들릴까 저어하여 당 현종에게 국서를 전달하며 동생 문예를 죽이라고 요청했다. 현종은 문예를 죽였다고 거짓으로 알리면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이 사실을 안 대무예는 당나라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꾀하기로 하였다. 때마침 당에 인질로 가 있던 대무예의 아들인 태자 대도리행이 급사했다. 당은 대발해 배후에 있는 흑수말갈과 남쪽에 있는 신라와 삼각동맹을 맺고 대발해를 포위했다. 대무예는 당나라 중심의 질서에 맞서기 위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일본으로 파견된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동해를 건너 일본과 교류를 꾀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당-신라-흑수말갈의 삼국의 제휴를 깨기 위해 기습전을 펴기로 했다.

무황 대무예는 서해로 나아가는 유일한 항구인 압록강의 박작구에 수군을 결집시켰다. 고구려의 빼어난 수군 전통을 계승한 대발해 수군 정예병 2만은 장군 장문휴(張文休)의 통솔에 의해 산동성의 등주(蓬萊)를 공격하였다. 대발해 수군들은 우수한 군사력과 속전속결의 전략으로 등주자사 위준(韋俊)을 죽이고 산동성 일대를 한동안 지배했다. 이 전투는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첫 해외 원정에서 승리한 전투로 기록되어 있다. 당 현종은 나당 전쟁 이후 한동안 소원한 관계에 있던 신라를 부추겨 대발해를 공격하게 하였다. 당 현종은 김유신의 손자인 김윤중(金允中)을 장수로 거명하면서 10만의 병사를 보내 대발해를 공격해 주도록 하였다. 군사를 이끌고 출



초조 대조영부터 약230여년간 존속한 발해의 역사는 우리민족사의 북방제국 중 일부로 남아있다. 사진은 드라마 '대조영'의 한장면.

병한 신라군은 대발해 국경에서 큰 눈을 만나 싸워보지도 못하고 반 이상의 병사들을 잃고 회군하였다.

당 현종은 토벌군을 1만 명을 모아 무황의 동생 대문예에게 진두를 맞겨 형 무예에게 맞서게 하려

당과의 전쟁 승리 · 해동성국 칭해져
불교문화 기반한 대제국 완성

하였다. 이에 무황은 암살단을 낙양의 천진교로 파견하여 문예를 습격하였으나 그를 죽이지 못하였다. 무황은 (마)도산(都山)으로 군사 1만을 거느리고 몸소 중원으로 진격해 나가 당나라에 대한 적극적인 응징을 꾀하였다. 당 군은 수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자 산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수성전으로 버텨냈다. 결국 무황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한 당 군은 심각한 손상을 받고 궤멸되었다. 당시 전쟁에 참가한 당나라 장수 「오씨묘비명」에는 "관리와 백성들이 달아났다"[吏民逃] 혹은 "본업을 상실했다"[徙本業]고 적혀있다. 결국 세계 최강이었던 당 군은 전멸하였고 무황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후 당나라는 대발해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대발해를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산동성의 등주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정치 외교전에서 승기를 잡은 대발해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3. 바다 동쪽의 강성한 대제국

무황을 이은 문황 대흠무(大欽茂, 737~793)은 대발해 역사상 가장 강대한 영토를 확보하였다. 내치(內治)가 강화되고 국력이 공고해지면서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확립하였다. 송나라의 사서인 『책부원구』는 그가 "말갈과 불열과 철리부족을 복속시키고 북쪽으로 강역을 크게 확장시켰다" 적고 있다. 그는 불교식 황명이자 존호인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大興寶歷孝感金輪聖法大王)이라는 존호로 불리어졌다. 문황이 즉위하여 쓴 독자 연호인 '대흥'과 '보력'은 문황 자신이 사용하였던 연호였다. 연호의 반포는 황제의 고유한 권한이자 제국으로서의 위엄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다. 774년 문황은 유신(維新)을 단행하여 연호를 '대흥'에서 '보력'으로 개원했다. 그리고 스스로 '고려국'(高麗國)이란 국호와 '대왕'(大王) 및 '천손'(天孫)과 '황상'(皇上)이란 칭호를 사용하였다. 이윽고 통치 후반기에 들어선 그는 국력을 크게 신장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자 좀 더 과감한 불교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문황의 이 호칭은 당나라 측천무후에 대한 적극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측천무후는 종래의 존호에다 '금륜성신황제'(金輪聖神皇帝)를 덧붙였다. 이어 '월고금륜성신황제'(越古金輪聖神皇帝)로 칭하였고 다시 '자씨월고금륜성신황제'(慈氏越古金輪聖神皇帝)로 일컬었으며, 또다시 '천책금륜성신황제'(天册金輪聖神皇帝)로 바꾸어 부르게 했다. 문황 역시 측천무후가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전륜성왕 설화를 이용하여 붙인 불교식 황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금륜'은 사천하를 통치하였던 '금륜왕'을 의식하였던 것을 의미한다. 전륜성왕은 일곱 가지 보배를 성취하고 네 가지 덕을 갖추어 수미산을 둘러싼 동남서북 4주를 통일하고 정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제왕을 말한다. 그리고 '성법왕'은 과거불인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을 가리키며 전륜성왕과 관련이 있다..

그가 '대왕'과 '천손' 및 '황상'의 칭호와 맞물려 전륜성왕 설화를 채택한 것은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수도를 비롯한 5경(돈화, 중경, 상경, 동경, 남경) 등에 세었던 다수의 사원들과 유적 유물 및 정혜 · 정효 공주 묘비의 유물들 그리고 팔련성과 반랍성 등을 중심으로 한 이불병좌상(二佛竝坐像)의 광범위한 분포 등에서도 확인된다. 기록에 의하면 상경 용천부에는 9개의 절을 짓고 절 앞에는 석들을 세웠다고 한다. 현재는 6미터 높이의 석등 1기가 남아 있다. 대발해 황실은 여타의 제국과 달리 건국 이래 네 차례나 수도를 옮겼다. 동모산 아래 '구국'(敦化 지역)에서 도읍을 한 대발해는 3대 문황 천보 연간에 '구국'에서 '중경'(中京)으로 천도한 뒤, 다시 '상경'(上京)으로 수도를 옮긴 뒤, 또 다시 동경(東京)으로 천도하였고, 5대 성황은 즉위하자마자 상경으로 수도를 옮긴 뒤 이곳은 국망 때까지 수도로 자리했다.

대발해는 상경용천부를 중심으로 압록도와 영주도, 거란도와 신라도 및 일본도 등 다섯 갈래의 길을 개설하여 교역하였다. 일본의 구법승인 원인(圓仁, 794~864)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등주에는 신라관과 발해관이 나란히 있었으며", 대발해의 대표적 수출품은 "부여의 사슴, 막힐의 돼지, 솔민의 말 등이었다"고 한다. '담비가죽'(貂皮) 등의 특산물은 일본에서 크게 팔려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한다. 고구려 장수 이정기(李正己)가 세운 제(濟, 평로치청번진)나라에는 '솔빈의 말'을 수출하여 안록산의 난으로 위기를 맞은 당나라를 압박하게 하였다. 대발해를 멸망시킨 글안은 유민들을 요양(遼陽) 지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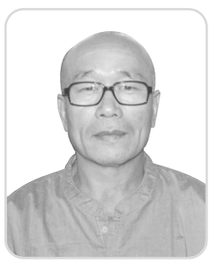
등주에 발해관 기록으로 영광 전해
국망國亡 후 유민 고려에 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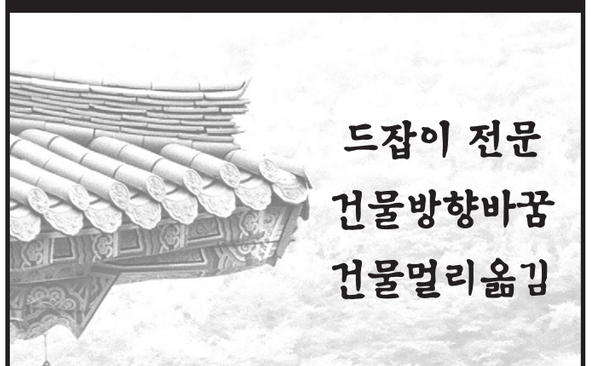
강제 이주시키고 상경성과 여러 절들 및 관련 기록들을 불태웠다. 그 뒤 글안은 대발해 강역을 잠시 동단국이라 하여 지배하였다. 발해 유민 일부는 고려에 귀부하였다. 국망 이후 여러 차례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지역이 말갈의 후신인 여진족의 무대가 되면서 대발해 관련 기록은 더욱 더 묻혀 버렸다. 여진은 이곳에 금(金)나라를 세웠고, 금을 이은 후금은 뒷날 다시 청나라가 계승했다. 그 뒤 이곳은 한국인들이 일군 간척지 동간도와 서(북)간도의 일부만이 반도와 이어지면서 독립운동의 무대가 되었다. 일본은 위성국인 만주국을 세웠으며 현재는 중국에 통합되어 있다.

참고문헌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신호열 역주, 『삼국사기』(동서문화사, 1978; 2010).
김문경 역주, 『입당구법순례행기』(중심, 2002).
역사스페셜, 「발해는 왜 동해를 건넜나」(1998. 11. 7)
한국사전, 「발해2부작: 대무예와 대흠무」(2008)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爭安寺 心靈治癒院
(사찰등록번호 : 504-8268565)
건강 · 소망

각종 난치성 말기환자
의학적 치유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
(방문치유 및 요양치유 전문)
경북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215-1
자연휴양숲 최절경
상담전화 010-6810-6158
道律 스님 합장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츰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게, 다게, 향화게, 오공양, 옴남, 기경이, 법고
▣ 사 물 : 법당북,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퉁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 의 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합장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으로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심의필번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어리석은 자의 재주와 힘은 전혀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되어 자신의 복과
지혜마저 파괴하고 만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증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모든 통증해결

오십견,허리,무릎,관절,
빙의,신병,눈병 등...
(스님의 원력
으로 즉시효과)
지장사 범성스님 합장
010-9243-0113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법당 유무선 마이크

고성능이 100만원 초반대
소리를 들어본 후 공사결정
중고고가 매입
전통사찰 200만원대
한성음향
010-4440-8687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011-412-8040 법광

대중 불자 스님들께

심신 일체병고 -
암, 당뇨, 혈압, 비만 ··
고민, 고통을
신불산 불국토 활인 도량에서
심신 양자생선법체증으로
근본치유회복 건강무병성불하세요
心佛정사 道炫 합장
011-855-8180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천명리강의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작명 개명 전문

보석암
주지 금봉
010-4063-0087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주)
017-206-0113

부전스님 모십니다
(개원사)
010-2515-0664

천고비전 육임학을 공부하실분
정통으로 성심껏 지도 하겠습니다
011-729-601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고양시)
010-4727-0311

부전(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사무장(女)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성)
010-8954-8033

배우자 구함

남 59세. 농장 운영 겸 회사원
텃밭 가꾸며 외로움과
노후를 함께 할 홀로 되신
진실한 여성 인연 바랍니다
(평일만 19시 이후 통화 됨)
010-4074-307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보시금 130만원)
055)375-0142
011-880-6606

공기좋고 조용한 기도도량
힘들고 거처할 곳
마땅하지 않은 스님
토굴삼아 기도하며 임종
전까지 거처할 스님
(50-60세, 비구스님)
법납 25년 이상
010-3466-2470

심 와 기 도

• 업장을 소멸시키고 운도 바뀌게 하는
심와기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 명리, 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신심있는 공양주(60세 이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31)585-4626

기 적 의 물

■ 만병치유의 자화육각수, 지상수,
암반수가 나오는 각 지역 사찰
한 곳만 지정하여 최저비용으로
설치가능
■ 국내최초, 자장황토 '氣'토굴 쑥뜸방 설치)
010-4191-0455
무아스님 합장

경북지역 천년고찰 공양주 모십니다
011-527-06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3-67세까지)
신심있는 분으로
가족같이 지내실 분
(경기도)
010-5035-1050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 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큰 법력으로 사물,바라무,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천도되게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구병시식 및
불상 불화. 점안과 각종 불공의식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찾아 뵙겠습니다
010-3854-8107
네이버, 구글 비구무불 검색
트윗 kangmubul 검색
영축산 토방 50대 비구승 무불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목 처사님도 함께 모십니다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전통사찰입니다
(보시는 상담 후 결정)
상담전화 033)682-8100
(야간) 019-262-64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연령대는 40이상,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불자님
월급 관련은 면접 후 결정
월 4회 휴무.근무 6개월때
월급의 100% 보너스
사성암 종무소
061-781-4544
010-4709-4343

체질과 역학을 연구
궁금증 문의상담
전화 010-8805-5959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스님(행자)모집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10-9562-8228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
프리랜서 직원 모집합니다
40세 미만
모집인원 : 00명
02)365-7747 / 010-9468-171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 - 65세)
대구 옥포 보림사 (비구니 사찰)
053)614-452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055)375-0142
011-880-6606

상구보리하화중생
깊은산중 계곡 청정도량
관리할 30 ~ 50대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54)335-6689

경관좋은 산사에서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부산근교 양산시 물금
(대한불교조계종)
010-4542-1899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운암사
• 법 명 : 운암 (속명:황영규)
• 주 소 :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306

• 사찰명 : 문수사
• 법 명 : 현덕 (속명:장철수)
• 주 소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424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팩스 접수 가능)

■ 기도 · 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김윤경승복
since 1980
김윤경
승복 · 우리옷
www.kyksb.co.kr
◎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기능성이 잘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신행단체복, 템플스테이 수련복, 소품 일체 등
◎ 공장 직영 도소매,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객님들께 신뢰를 지키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듯이, 앞으로도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어울리는 좋은 옷을 제작 · 보급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주요품목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일체
※ 승복일체, 법복, 좌복, 기타 주문제작 받습니다 (공장직영 도소매)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 서울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페션지원센터 801호, 903호 / 전화 02)495-7779
제 주 점 : 제주 제주시 이도2동 416-2 / 전화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국민은행 057-21-0932-817 (예금주 김윤경)
E-mail : kyksb58@naver.com

불 자 정 보 26 | 894호 | 전면광고

2012년 6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법당 : 35(목)
- 요사 : 60평
- 삼성각 : 5평
- 부지 : 2200평
- 가액: 약 30억이 소요됐으나 사정상 경남 부산, 양산, 창원지역 20억 정도 건물이나 사찰과 교환하고저 합니다

- 위치 : 경기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부지 : 80평
- 가액 : 2억

- 위치 : 경남
- 법당 : 25(목)
- 요사 : 75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8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경남 사천 아름다운 토굴(급)

- 총 부지 : 630평
- 건물3동, 법당25평, 요사(방5칸)
- 사천읍내 5분거리
- 가액: 1억8500(은행 7천)

대 사찰 급 양도(반값)

- 총 부지: 약 1000평(평지)
- 건물8동,목조40평 2동, 요사채 방(12개)
- 사천왕 •종가: 대북, 대종
- 진주공원 부근,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총가액: 9억(은행 6억가능)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엑 스 퍼 트

http://www.kisbulsa.co.kr E-mail : kisblsa@naver.com

- **전국 사찰, 포교당 암자 양도 양수해드립니다.**
  사찰 양도,양수를 결정하셨다면 「사찰 엑스퍼트」에 의뢰하세요.
- 철저한 비밀 보장.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계약체결시까지 홍보.
- 매물 홍보의 최적화.(사진촬영)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 엑스퍼트」를 입력하세요.

010-8980-4789

도심안의 산중사찰

- 대:97평
- 건:95평(기도방10개)
- 1층65평(법당2개)
- 2층30평(큰법당)
- 도로옆나대지(지분등기)
- (현재주차장운영)
- 양도가액: 8700만원
- 부산동구 범일동
- 부산 동구 범일동(양도 및 전세절충)

010-5511-7000

포교원안내

- 위치 : 동대구역,고속터미널부근
- 5층건물중 3층
- 평수 60평(법당,방3,거실, 공양간,욕실)
- 삼존불,탱화(상단/신중 /칠성/산신)
- 소불 200불, 전통나무불단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88만원 (시설비 3천 7 백만원)
- 모든비품일체양도, 법회즉시가능

010-4634-301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염포동
- 상가, 시장, 주거지 밀집지역
- 4층 43평, 옥상이용, 창고1 별도있음
- 시설 5개월된 미개원
- 전세 5백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별도(모든 집기) 답사 후 절충

052)287-81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2리 240번지
- 평수: 54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2동 각 13평, 5평
- 가액: 1억 7천만원 (꼭 하실 분 절충가능)

011-571-8961
010-2739-3816

최고의 암자터 급 안내

- 위치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월계리 소재
- 최고의 명당, 도로접
- 임야 4830평
- 가액: 4천만원

010-4396-7737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명곡동
- 전 1,200평, 2500평, 3600평
- 평당 65만원
- 물좋고 양지바르며 태풍의 피해가 없는 명당땅
- 원로스님, 유명지관이 추천하는 명당 창원 통합시 인구 110만명의 도심속의 주변야산 200만평 속의 금세기 최상의 큰 절터

010-9393-894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논산 IC 2분거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연못 조경 완벽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004-1492
041)741-1492

대형사찰터안내

- 위치: 영주시 단산면 좌석리
- 대지 전 합 2만 7천평
- 주택 3동 다수의 농가주택
- 소백산정상구인사반대편 국만봉
- 상월봉신선바위아래청정계곡상류
- 가액: 합 35억

010-3288-1317
서울권 상담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월 6월
- 상가건물 2층 • 방2개, 33평
- 아미타, 삼존불, 신중탱화, 지장불, 3년전 개금
- 보증금 800만원 월 50만원
- 총 3000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1-340-5963
010-2964-8723

도심속산중사찰

- 위치 : 경기도 파주읍
- 대웅전 24평
- 요사채50평, 방3,큰주방1,욕실1 난방, 심야보일러
- 대로변에서 5분거리 주변은 산
- 보증금 3천만원 월1백만원(조정가능)
- 시설비(양도도 가능)

010-4517-5502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신암동
- 3층건물중 2층(45평)
- 삼존불,산신, 각탱화, 소불270,지장관음
- 친견실,방1,공양간,창고, 수세식화장실,세면실
- 에어컨, 집기일체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3000만원(조정가능)

010-5555-8744

사 찰 안 내

- 부산시 금정구 지하철 10분 이내 거리
- 1층 요사채(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2층 법당
- 신축개조, 법당, 단청일체
- 삼존불 은행목불, 원목불단, 108소불 있음
- 1층 약사불, 포대화상
- 2층 산신, 용왕, 독성 별도
- 위치좋고 옆 공원 산세 좋음
- 스님 건강 관계로 9억(절충가능)

010-2503-0776

포교원(급)안내

- 위치: 충남 천안시 대흥동
- 5층 80평, 엘리베이터 有
- 천안역 3분거리 •관음, 칠성, 산신, 용궁 모셔져있음, 후불탱화,신중탱화
- 법당, 큰방1, 에어컨2대, 냉장고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조정가능)

041)558-6658
010-4781-8658

포교원안내

- 위치 : 동대구역, 고속터미널부근
- 5층건물중 3층
- 평수 60평(법당,방3,거실, 공양간,욕실)
- 삼존불,탱화(상단/신중 /칠성/산신)
- 소불 200불, 전통나무불단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88만원 (시설비 3천 7 백만원)
- 모든비품일체양도, 법회즉시가능

010-4634-3015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염포동
- 상가, 시장, 주거지 밀집지역
- 4층 43평, 옥상이용, 창고1 별도있음
- 시설 5개월된 미개원
- 전세 5백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별도(모든 집기) 답사 후 절충

052)287-81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도계동 소재
- 대형 3층 상가 內, 2층 43평
- 삼존불 및 법당시설 완벽
- 상가內 포교당 양도
- 가액: 1억 7천만원 (시세보다 저렴)

010-4668-655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 평수: 4층 건물에 2,3층 사용
- 모든 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390-6654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 526평
- 사찰이나 전원주택지
- 평당 80만원 •30평 허가나 있음
- 절충가능(최대1억5천만원 융자 가능)

017-855-6717
017-856-234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지산동 아파트 단지
- 평수 : 4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법회 즉시 가능

010-7726-2358

아담한 토굴안내

- 강릉시 사천해수욕장 뒤 아담한 토굴
- 큰 불사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
- 대지 텃밭 합 약 250평 (1년도지 20만원 야채는 자급자족)
- 법당 외 방 4개, 목욕탕 1개 화장실 2개, 종1, 집기일체
- 양도 가액 3,970만원(절충불가)

010-2461-3014

사찰(급)안내

- 위치:부산 서구
- 평수 45평, 법당 45평
- 삼존불, 후불탱화, 칠성탱화, 신중탱화 외 모셔져 있음
- 가액: 답사 후 결정

010-2499-23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소개동
- 평수 40평(사찰등록)
- 구조: 스님방 따로 (욕실, 화장실,주방포함) 공양간 별도있슴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비품일체)

010-8940-5858
055)252-317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맞은편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 주방가구 일체
- 30평, 방2, 주방,샤워실
- 가액: 보증금 6백만원, 월 59만원
- 시설비1천만원, 주방기구 일체

010-2208-7749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기장군 청강리
- 평수: 65평, 3층의 2층
- 천수천안, 후불, 신중
- 방3, 주방, 탈의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010-8948-26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어 및 사용면적 약 500평
- 총 3억 5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1-9108-558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목포시 산정동 (사거리 코너 건물)
-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탱화
- 칸막이 사무실1칸, 작은방, 화장실2
- 집기일체 양도 • 4층의 3층, 43평
- 길건너편 아파트 1400세대 공사 착공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2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3535-246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개정리 성주 고령 국도변
- 대지 102평
- 법당 2층 슬라브 15평
- 칠성, 산신, 삼존불, 아미타부처님
- 생활관 34평, 대중방 3개
- 공양, 주방, 다용도실, 스님방1
- 심야보일러, 석유보일러, 집기류일체
- 가액: 8천만원

011-9577-3779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 대지 : 196평
- 주차창, 텃밭 175평, 법당 15평
- 야외 지장보살입상, 요사채방5, 심야보일러
- 가액: 1억8천5백만원

011-769-702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공업 로터리 부근
- 10층 빌딩의 3층
- 평수 : 60평
- 시설 A급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9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9335-5535

농 가 주 택

경북 영양군 입암면 마을에서 산쪽으로 외딴곳
남향 대지 124평, 앞에 건물 18평
뒤에 건물 18평, 차진입 급수 전기
즉시 입주 가능함, 주소 공개 주인직
가액: 4800만원

010-8899-8899

사 찰 안 내

- 위치 : 청도 (대구에서 30분거리)
- 평수 130평
- 건평 42평(인법당)
- 가액: 1억 6천만원(절충가능)
- 남향 교통편리
- 비구니 스님 적합

010-2501-3671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50평
- 법당 : 35평(목조)
- 요사 : 70평
- 가액 : 20억

- 위치 : 경남
- 부지 : 4000평
- 법당 : 35평(목조포집)
- 요사 : 30평
- 가액 : 6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불교용품점(급)안내

불교 용품 전문점 (중, 대형)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성업중 . 개인 사정상 급 양도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가액: 상담 후 결정

010-6397-9449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 산 168-2 :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8차선대로변
- 3층건물 3층, 법당 25평, 방3개 공양간1, 화장실2
- 2층 옥상 마당같이 넓은 25평 사용
- 총평수 100평
- 설비: 영가단, 후부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불기 일체
- 가액: 전세 7천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864-1095

전원주택.실버.요양지적지

- 사천시 사남면 가천리 67번지.현 전원주택
-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갖춘 정남향
- 스틸하우스 1동 23평
- 컨테이너 건물 2동 8평
- 나무때는 황토방 1동 3평
- 대지 : 554평, 1억 9천 5백만원

011-9517-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 40대가능
- 가액: 5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사찰(급)안내

- 포교하기 좋은 곳
- 위치: 충북 제천시 중심가
- 대지 80평
- 요사채 실 평수 30평
- 법당 15평
- 가액: 1억 7천만원
- 당일 포교 가능함
- 절충 불가 주인직접

011-792-896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201-2
- 층수 : 1층 건물 • 건평 약 30평
- 전용 주차장 5대 • 뒷마당 약 20평
- 보증금 500만원(월 60만원)조정가능
- 불사금 500만원 (연등 200개, 관음, 냉장고 3대, 에어컨 2대, 일체생활 구비되어 있음

010-4134-4535

사찰(급)안내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근처
- 대지 224평
- 법당 30평, 산신각, 옥외화장실2개, 하우스 1동
- 주차장, 텃밭, 천연염색 가능
- 대출 1억 가능
- 가액: 2억 7천만원

011-9588-5923

포 교 원 (급)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2층) , 30평
- 포교원 운영했던 건물로 법당 상단및 주방시설되어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만원

041-558-1198
055) 265-7998
016-589-3408

포교원(급)안내

- 위치 :도봉구 쌍문동
- 4호선 2분거리
- 평수: 주택건물 2층
- 대지 85평 요사 95평
- 가액: 11억 5천만원

02)588-611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소재
- 나대지 533평, 법당 23평, 경관 전망 좋음
- 요사채 23평 • 가액: 2억 6천
- 구미 15분거리, 도심지역 사정상 급 양도

- 전원주택, 요양원 부지, 선방 최적지 경관 전망 좋음
- 833평 • 가액:1억 5천만원

꼭 하실 분 절충가능

010-4514-3136(스님직접)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법대로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법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 - 아함경 -

마음 길들이기

아잔 차 스님 (태국)

〈4〉 지혜로 가득찬 '빈마음'

사랑·탐욕·분노가 오면 온 곳으로 돌려 보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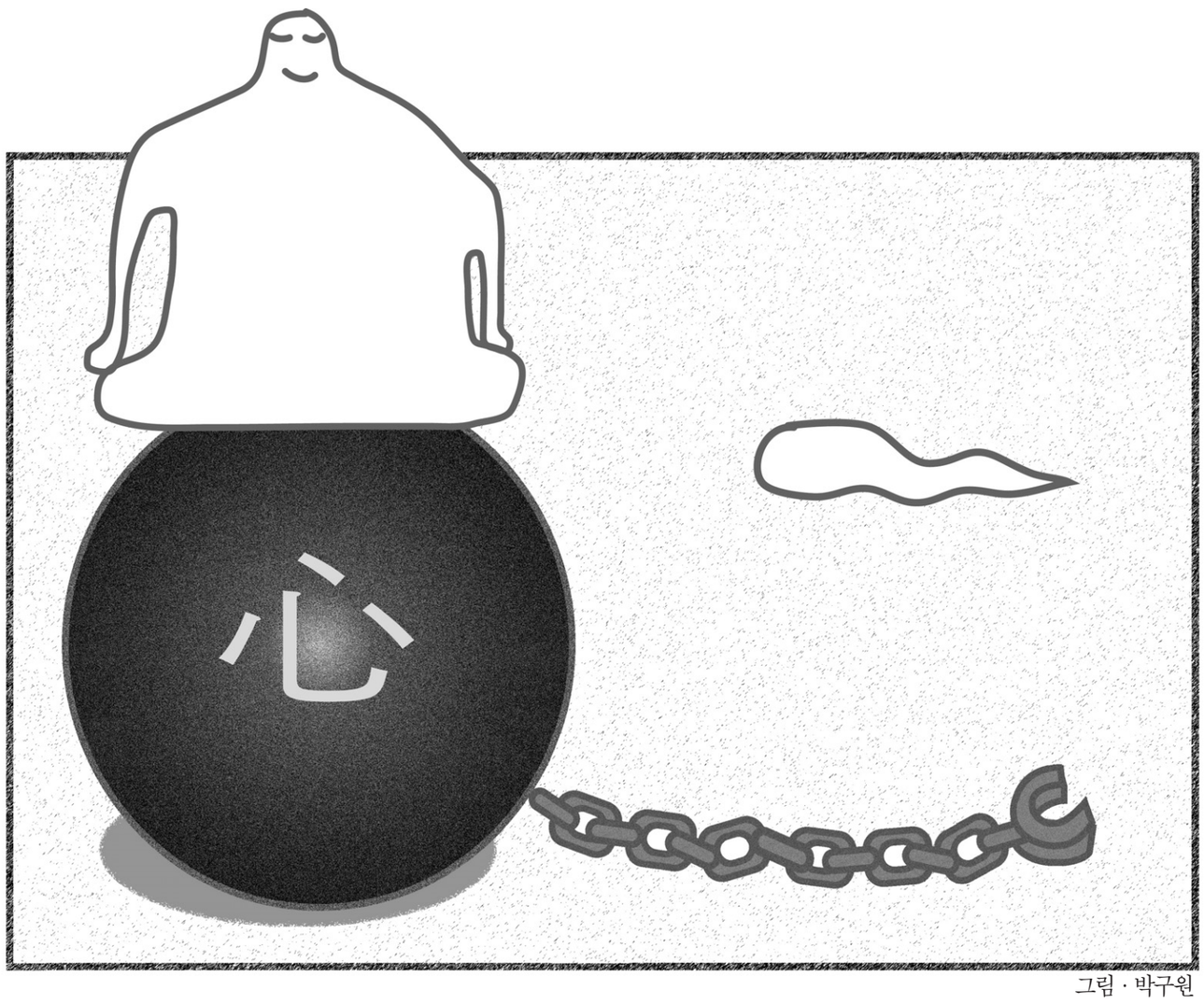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무거운 바위와 같은 자아의식 '아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아만 즉 '나'라는 자아 의식은 바로 그 무거운 바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바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만을 버릴 것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만을 결국 놓아버릴 수 있다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길들이는 데 있어서는 칭찬이나 비난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을 원하고 비난을 원치 않는 것은 세속의 길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칭찬받을 만한 때에는 칭찬을 받아들이고, 또 비난을 받을 만할 때에는 비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키울 때 항상 야단만 친다면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야단을 칩니다. 현명한 사람은 야단칠 때와 칭찬할 때를 잘 압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알기 위해 지성을 발휘하십시오. 마음을 보살피는 데 좋은 방편을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을 닦는 데 있어 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잘 길들여지면, 그 마음 덕분에 우리는 괴로움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괴로움은 바로 여기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괴로움은 언제나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며,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괴로움은 바로 여기 마음에서 생겨났습니다. 또한 바로 이 마음에서 없어집니다.

마음이란 이와 같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생각이 나고, 또 어떤 때는 나쁜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음은 속임수 투성이입니다.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그 대신 마음 자체를 만드는 조건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 조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조건들은 단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것이 선하건 악하건 또는 다른 어떤 것이건, 결국은 그러한 방식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조건들을 붙잡고 있지만 않는다면 그것들은 원래 있던 그대로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물리게 되고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바른 견해(正見)'을 가지면 오로지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삼매가 생기게 되고 지혜가 그 뒤를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항상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법을 들려주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법문중 일부는 이해가 되고 일부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쉽게 저는 선정 수행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이 옳게 생각되든, 그르게 생각되든 간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도 스승이란 입장 때문에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를 겪어왔습니다. 나 역시 어디를 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지 들을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법문 듣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렇듯이 이번에 여러분들도 한 선생으로부터 법문을 듣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앉아 듣고 있는 동안 시간은 너무도 빨리 흐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법을 갈망하고 있으므로 이렇듯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것도 지니고 있지 마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수행하면
비어 있는 집과 같아 빈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 지혜로 하게 됩니다"

"마음을 만드는 조건을 바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세요
그 조건을 붙잡고 있지만 않으면
삼매가 생기고 지혜가 뒤를 이어
바른 견해正見를 갖게 되며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남들에게 말하는 것이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영감을 느끼게 되고 쉽게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이 나이를 더 먹게 되고 또 여전히 법을 갈망할 때 법의 향기는 유난히 감미로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며, 다른 스님들을 대표하는 표본이 됩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자기 자신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리지도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 즉시 생각을 그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법을 닦는 길은 무수히 많습니다. 선정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또한 의심이 일어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쓸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의 의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바른 이해를 갖게 되면, 어디에 앉아 있든 어느 곳을 걸어가든 거기에는 평화와 평안이 있습니다. 어디서 선정을 닦거나 그곳은 정지(正知)를 내는 장소가 됩니다. 선정을 앉거나 걸으면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그리고 모든 장소가 우리에게는 공부가 됩니다.

正知 · 正念일때 생멸을 볼 수 있다

거기에 항시 정지가 있습니다. 거기엔 항시 정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정신과 육체의 생멸을 볼 수 있으며, 그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을 흔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들을 언제나 되돌려 보내버립니다. 사랑이 오면 그것을 다시 온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탐욕이나 분노가 다가와도 다시 온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것들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것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곳으로 그것들을 잘 호송해 주십시오. 어떤 것도 지니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수행하면 여러분은 비어 있는 집과 같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는 빈 마음으로,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로운 비어 있는 마음입니다. 이를 '빈 마음'이라고 하지만, 아무 것도 없다는 의미에서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은 없어 비어 있지만 그 대신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혜로써 하게 됩니다. 지혜로써 생각하고, 지혜로써 음식을 먹습니다. 오로지 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르침이며 여러분께 이것을 드립니다. 전 이것을 여러분이라는 테이프에 녹음한 셈입니다. 법을 듣고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 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것도 굳이 기억하려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고 오로지 듣기만 하면, 지금처럼 얘기가 흘러 가는 대로 그저 끊임없이 따라가며 곰곰이 음미하면, 그때 우리는 바로 녹음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가 지나서 다시 '틀어놓을 때' 모든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 것도 남지 않고 사라질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녹음기를 틀자마자 모든 것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모든 스님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법의 언어를 배우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끝〉

이 글은 (사)고요한 소리에서 펴낸 보리수잎 시리즈 중 2편 〈마음 길들이기〉의 내용입니다.

불자정보 894호 |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포교당 75평
- 대명5동58-7 [지하철30m]
- 8차선 대로변 버스정류소 앞
- 4층 건물에 3층
- 보 1000만 월세 75만=관리비 수도세포함
- 5존불 법당만 45평
- 시설비 1700만 조정가

053)657-0151
010-2273-763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담양군 고서면
- 무등산자락
- 평수 약 500평
- 한옥1채, 가옥1채, 자연경관 수려함
- 가액: 1억 2천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4608-5945

숲속의 터, 절, 전원주택
- 위치 : 총평수:전,답 1300평
- 지방도로 접해있음
- 정 남향,택지조성 되어있음
- 터주위 3면이 숲으로 형성됨
- 보전관리,경관이 수려함
- 택지상단에 암반우물있음
- 가액:8천3백만원(절충가능)

010-2493-245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 135평
- 법당 14평, 개금 삼존불
- 후불, 칠성, 지장, 신중, 영가단
- 심야전기
- 주차장 완비, 도로에서 200m
- 가액 : 9천 5백만원(조정가)

010-4146-6556

포 교 원 안 내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75-10
- 평수 10평가량
- 2층의 2층
- 법당, 집기일체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7579-271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근교
- 서울 1시간 거리의 60여년 창건역력
- 삼성각, 종각, 대법당
- 2층 종무실, 요사채2동
- 건평 총 146평
- 종교용지 364평, 임야 1,690평
- 양도가액: 5억 3천만원

010-9669-1358

포교원(급)안내
- 위치: 안산시 월피동
- 평수: 26평
- 법당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662-5527

포교원안내
- 서울 강북세무소 뒤, 기업은행사거리
- 버스정류장 앞, 위치 최상
- 평수 25평, 2층상가 건물에 2층단독
- 법당, 방, 거실겸 주방, 욕실
- 에어컨 2대, 정수기1대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10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2069-1587

사 찰 안 내
- 물좋고 공기 좋은 경북 왜관 사찰
- 부지 : 2천 500백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대출 1억 6천포함
- 총포함 4억 9천만원

010-7246-01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대구역 맞은편
- 법당, 방2, 주방, 샤워장, 마당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 스님이나 법사님 가능

010-8019-8966

포 교 원 안 내
큰스님께서 두 절을 운영하기 힘들어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 위치: 경남 창원 마산 합포구
- 평수 1층 40평, 교통편리
- 시설완비, 즉시법회운영가능함
- 주차장완비, 전월세조정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있음 시설비 약간

010-7197-8216
017-580-24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최요지
- 평수 22평
- 모든시설완비, 최고의 조건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시설비 합 500만원

010-8315-2100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 대지 150평, 전 170평
- 건물 18평 (조립식)
- 마을끝 산자락에 위치
- 바다보임, 산세수려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요망
- 가액 : 9천만원

054)787-2697
010-3518-395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임야 2500평, 야산 5000평, 대지 1500평
- 건평 110평, 법당 50평, 요사채 60평, 산신각
- 주차장 2,000평
- 소나무 많고 산세 좋음
- 가액: 7억 5천만원

010-9433-3543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5.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현우경' 이야기 (26)

억울함을 벗은 남자의 사연

왕의 지혜로운 판결로 누명 벗은 단니기

어느 나라에 단니기라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집은 매우 가난했다. 그는 소가 없어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니기는 한 부자를 찾아가 소를 빌려 수확을 마친 뒤, 주인에게 돌려줬다. 이튿날, 소 주인이 단니기를 찾아왔다.

"소를 돌려주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왜 아직 돌려주지 않는 것이오."

"소는 이미 돌려드렸습니다."

"나는 소를 받은 적이 없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 어제 집 앞에 소를 놓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실랑이 끝에 결국 소 주인이 단니기를 데리고 왕을 찾아가 소 값을 변상받기로 했다. 단니기는 소 주인과 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말먹이를 만났다. 말먹이는 단니기에게 자신의 말을 잠깐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말이 갑자기 도망치려 해, 단니기는 말에게 돌을 던졌다. 그런데 말 다리에 돌이 맞아 부러지고 말았다. 말먹이도 소 주인과 함께 왕을 찾아가 변상 받기로 했다.

단니기는 자신에게 자꾸 억울한 일이 생기자 속상한 마음에 주막에 들러 술을 마셨다. 그는 취기가 오르자 잠시 평상에 누워 쉬어 가기로 했다. 그런데 단니기는 갓난아이가 누워있는 이불인지 모르고 깔고 앉아 아이를 죽이고 말았다. 아이 엄마도 소 주인, 말먹이와 함께 왕을 찾아가 단니기의 죗값을 묻기로 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나…. 왕도 분명 나의 억울함을 몰라주고 죽이려 할 것이다.'

단니기는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도망가기 위해 담벼락을 넘었다. 그런데 하필 담 아래서 일하던 직공 위로 떨어져 직공이 죽고 말았다. 이번엔 직공 아들도 단니기의 죗값을 물겠다고 왕을 찾아가기로 했다. 사람들은 왕 앞에 단니기를 데려갔다.



삽화 · 강병호

왕이 물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 왔느냐."

"이 자가 제 소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너는 소를 돌려주지 않았느냐."

"저는 이 사람에게 소를 돌려주었습니다. 주인도 소를 보았지만 그냥 문 앞에 두었고, 소가 제 발로 도망친 것입니다."

"너희 둘 다 잘못이 있다. 단니기는 직접 말하지 않았기에 혀를 뽑아야 하고, 너는 소를 보고도 돌보지 않아 눈을 뽑아야한다."

소 주인이 깜짝 놀라 말했다. "제 눈이 뽑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은 말먹이가 말했다.

"너는 무슨 일로 왔느냐."

"저 사람이 제 말의 다리를 부러트렸습니다."

"말먹이가 저에게 말을 잠시 맡아 달라 했는데 말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말을 잡기 위해 돌을 던졌는데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왕이 말했다.

"말먹이는 저 사람에게 말을 부탁했으니 혀를 뽑아야 하고, 단니기는 말 다리를 부러트렸으니 손을 끊어야겠다."

결국 말먹이도 단니기의 죄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음은 아이 엄마가 사정을 말했다.

"저 자가 제 아이를 죽였습니다."

"너는 왜 남의 아이를 죽였는가."

"너무 억울해 주막에서 술을 마셨는데, 이불 밑에 아이가 있는 줄 모르고 깔고 앉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으니 아이 엄마는 단니기를 남편으로 맞이해 다시 아이를 낳은 후, 저 자를 쫓아 내거라."

단니기를 남편으로 맞이하기 싫었던 아이 엄마도 단니기의 죄를 묻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직공의 아들이 단니기 죄를 말했다.

"저 자가 일하고 있던 저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너는 왜 직공을 죽인 것이냐."

"제가 죽는 것이 두려워 담을 넘어 도망치려다 직공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 단니기를 아버지로 삼아 살거라."

"저 자가 저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싫습니다. 그냥 화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단니기는 왕의 지혜로운 판결로 억울함을 벗게 됐다. 왕은 그 후로도 억울한 중생들을 구제해 훗날 부처가 됐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요즘 불자님들이 참된 발심을 하여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해도 바르게 이끌어주는 곳이 드뭅니다. (중략)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님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입니까.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님의 가피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각권 10,000원
☎ 031-534-3373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국제품질 시스템 ISO 9002 규격에 따라 제조되었습니다 (인증번호 AC-01808)
품질보증
자원안전확인시고발호 B07TH077-B002A 공산물품 및 유물품 · 장택제 자원안전확인 신고기관명: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자원안전확인고일 : 2008.1.14
내외래 스포츠제품 최고 3년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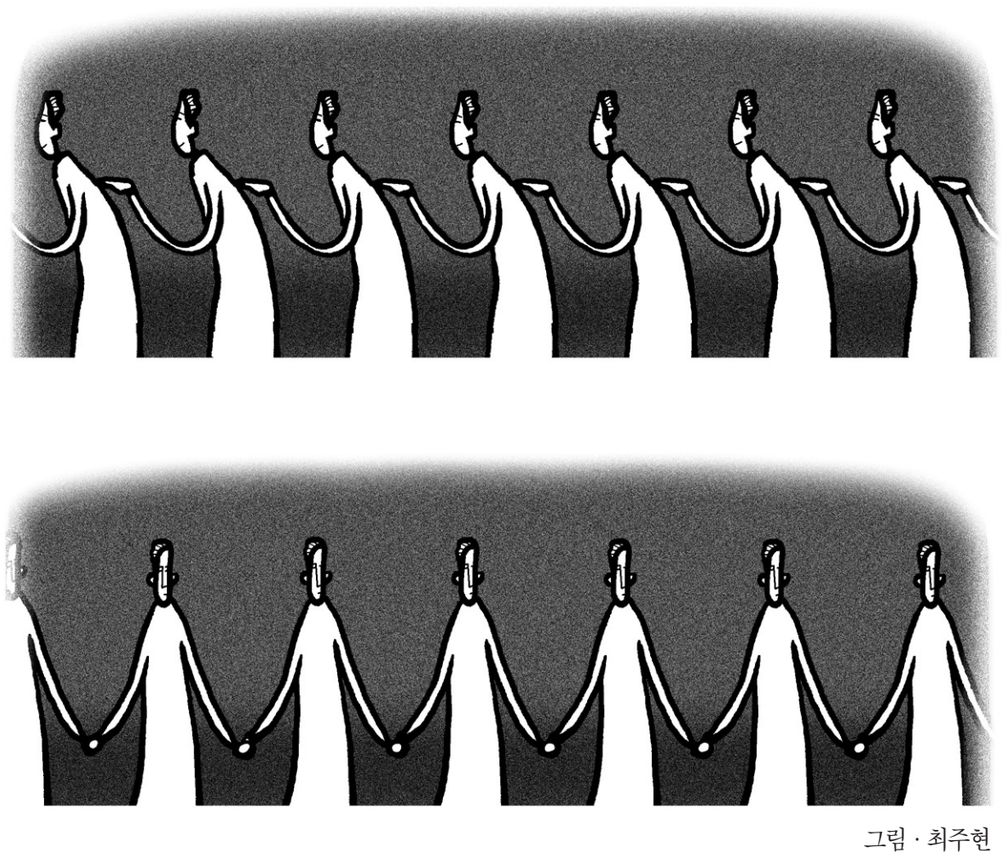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네이버에서 「영일상사」를 검색하세요.


대행 스님

여러분의 고고한 생명과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이번 호부터는 큰스님 법문 내용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해 드립니다.


그림 · 최주현

마음 비우면 행복해질까요?

문) 인생의 행복이 뭘까요? 처음에 가정을 이룰 때 잠시 행복을 맛보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 걱정, 자식 걱정으로 사는 낙이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답) 여러분이 자랄 때 빼고 늙은 뒤에 빼고, 살면서 얼마나 행복을 느꼈습니까? 행복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저것 자는 것 빼고 이것저것 걱정하는 것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행복이란 그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어느 때고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백이 자기를 즐겁게 행복하게 해 주는 겁니다. 마음이란 너무나 광대하고 무변해서 마음이란 이름은 하나 가졌지만 그 마음이라는 이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씁니까. 그래서 마음은 없는 게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돈도 안 내고 쓰는 마음이라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해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부부지간도 자식지간도 모두 누구나 대신 살아 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파 주고 죽어 주고 깨달아 주고 똥 눠 주고 잠자 주고 또는 밥 먹어 주고, 이러는 거 대신해 주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각기 모두 이 마음을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묘하고 미묘한지, 여러분은 자식들이 잘못하면 배울 시기에 배우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저런다고, 배울 시기에 못 배우면 뭐, 깡통을 차느니 뭐 어쩌느니 하고 욕을 합니다. 뭐 깡통을 찰 녀석이라든가, "너는 평생에 그럭하고 지내려느냐." 하고 욕을 막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아내든지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아, 이 세상에는 그냥 만난 인연이 아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는 거 가만히 보세요. 금방에는 금이 있고 넝마전에는 넝마가 있고 깡통전에는 깡통이 있고 무쇠전에는 무쇠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말입니다. 상점에 가 봐도 사과는 사과대로 놓여 있고 배는 배대로 놓여 있고 끼리끼리 모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연에 따라서 다 만난 인연들인데 만날 탓을 해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인연을 만난 거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연이 됩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만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인연에 따라서, 똑같은 차원에 따라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남의 탓을 한단 말입니다.

당신이 그 따위로 하니까 망했다는 둥 또 잘됐으면 내가 잘해서 잘했다는 둥,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무슨 애정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싸우는데. 점점 식어가지. 그러니까 행복은 없어지는 거죠. 행복을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서 행복한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끼리끼리 만나서 그러는데, 자식들도 부모가 싸우는 거 보고 그대로 배우거든요. 싸우기만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보지 않는 것 같고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다 그대로 영향이 미친단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또. 그렇게 하면은 모두가 파산이 되고 또는 행복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잘못했다면 아내가 '아, 이것도 끼리끼리 만나서, 내가 있으니깐 저 남편을 만난 거니까 모든 게 내 탓이다.' 하고 들어오면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준다면 그렇게 잘못하다가도 '아,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는데도 이렇게 부드럽게 해 주니….' 하고 따뜻한 데로 고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부인이 그럴 때 남편이 그러고, 자식이 그럴 때 부모가 그렇게 하고, 그걸 자식이 잘못한다고 부모가 "요놈의 새끼! 어디 가서 자빠져 잤느냐. 어디 나가서 이렇게 있었느냐."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말이란 행동으로 붙들거나 말로 붙들어서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고장난 거는 마음으로 고쳐야죠. 마음으로 '너만이, 주인공은 둘이 다 똑같아.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데….' 영 영(0)은 만 개를 갖다가 한데 놓아도 영(0)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자식이다 부모다 하고, 전기가 가설이 돼 있는 것처럼 가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자식과 둘이 아닌데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너만이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 너만이 지혜로울 수 있잖아. 너만이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게 살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그렇게 관한다면 저절로, 마음이 거기까지도 불이 들어와서 저절로 집에 들어와서 착해질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모든 게 마음으로서 마음의 조작입니다. 잘못되는 것도 마음이요, 잘되게 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마음의 조작이니만큼 마음으로서 서로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빛보다도 더 빨리 연결이 됩니다.

동생들이 힘들다고 손을 내미는데…

문) 제가 맏이이긴 하지만 결혼한 동생들이 조금만 힘들면 저에게 손을 내미니 한두 번은 좋았지만 지금은 너무 얄밉고 힘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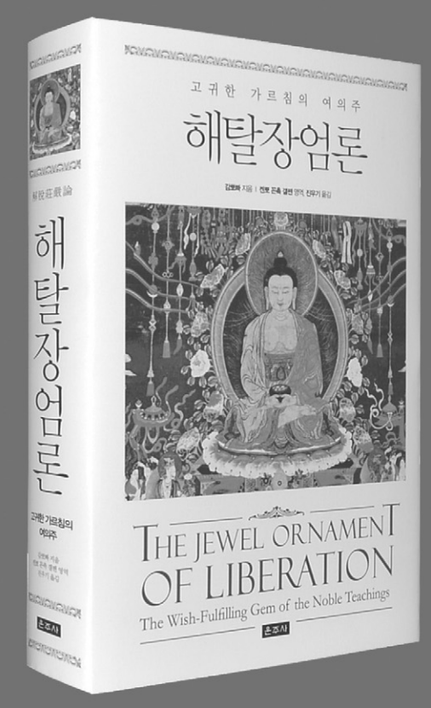
답)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에 마음을 착잡하게 또는 어둡게 두진 마십시오. 고고한 생명과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모습만 바꿀 뿐이지, 우리의 이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남한테 얻으러 다니지 않고, 영원히 남한테 짓밟히지 않고, 영원히 담 밑에 돌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남한테 짓밟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바로 올바로 진실하게, 남을 주더라도 무주상 보시로서 주어야, 바로 내가 상을 두지 않고 주어야 상을 두지 않는 그 물건이 바로 나한테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것도 한 통장에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맏이로서의 동생 일곱을 다 키웠답니다. 물장사를 해서 키웠답니다, 밥장사를 하고 물장사를 해서. 그랬는데 그 키워놓은 동생들이 언니는 그 고생을 해서 참, 공부도 못하고 동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그렇게 했건만 그 고생하고 자기네들을 공부시킨 것도 모르고, 그것이 핏방울인 줄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자기는 구경 다닐 거 다 다니고 없으면 손 벌린답니다.

동생들은 그렇게 자기처럼 고생하지 않으면서, 부모만 그리웠지 고생하지 않고 잘 공부해서 결혼해서 잘사는데도 때에 따라선 조금만 부족하면 와서 막 압박을 하고, 언니는 그렇게 벌어서 쓰면서 왜 주지 않느냐고 그런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올바로 사람이 그 뜻을 알고 나간다면 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아주 괴로

☞ 30면으로 계속

티벳불교의 대표적 수행서이자 기본 교과서!



해탈장엄론
- 고귀한 가르침의 여의주 -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티벳 최초의 람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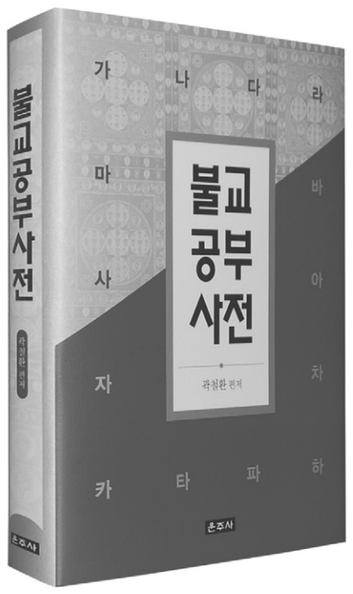
불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에게 회향하기까지의
전 단계를 이끌어주는 안내자!

티벳불교의 위대한 스승 감뽀빠의
가장 중요한 저서로,
밀라레빠로부터 전승된 '마하무드라'와
아띠샤로부터 비롯된 '보리도차제법'을
하나의 체계로 융합하였다!

감뽀빠 저, 진우기 역 | 신국판 양장 | 628쪽 | 값 28,000원

사전식으로 구성한 불교 입문서!

사전의 역할뿐 아니라 불교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불교공부의 길잡이!



불교 공부 사전

- 불교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표제어를 선정하고, 그 표제어와 관련되는 다른 항목들도 함께 설명함으로서 표제어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 각 표제어들이 경전이나 논서, 선어록 등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찾아 제시함으로서 그 의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곽철환 편저 | 국판 양장 | 404쪽 | 값 20,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내 한 점의 마음, 바로 이 중심에 부처가 있습니다

☞ 29면에서 계속

워했답니다. 그러다가 내가 설법하는 것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얘, 바로 쟤가 쓰는 것이 바로 부처가 쓰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저 애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니까 그냥 내가 써보자.' 하고서 자기도 없는 걸 빚을 져 가면서 사는데도, 장사를 하기 때문에, 에라 하고 집어 주고서는 '이것도 시주다.' 하고선 줬더랍니다. 주니까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 보니까 그저 조그마한 거 뭐라도 팔려서 고걸 메꿔 나갔답니다.

그랬다고 하면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넓게, 부드럽게, 사랑할 수 있고 둘로 보지 않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날까지 그 불쌍한 동생들을 키워왔건만 오늘날에 보니까는 내 동생이 언제 적의 내 동생도 아니고 내 동생 아닌 것도 아니고, 모두가 남들이 남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쓸 때 쓰는 것이지 그렇게도 내가 안 써야만 하겠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애가 잘못된 거를 아니, 내가 타이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건만 왜 내가 그렇게 내 속을 썩여 가면서 그렇게 싸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제 싸움 안 하렵니다." 그러면서 고마워하더군요. 그러니 우리가 남을 주어서 쓰는 것도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러나 공자, 노자도 얻으러 온 사람도 주지 않을 사람은 주지 않아야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건 나도 똑같이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 뜻을 모르고, 고마운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앞에는, 남한테 기대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천만 냥을 보태 주어도 그건 온데 간데가 없고, 오히려 반성하는 기간이 늦어져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지 않는 것도 공덕이 되고, 주는 것도 공덕이 되고 이러는데 모든 걸 공덕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이 한 점의 마음, 바로 이 중심에 부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체 만법의 만 부처가, 그리고 만 생활이 다 이 한 점의 마음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나고 들고 하는 것이 이 한 점에 있기 때문에, 내 한 점의 마음을 알아야 모든 것을 그렇게 오관을 살펴서 정밀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올바로 진실을 안다면 그게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바로 나 자체를 모르고 진실치 못하고 거짓으로만 나가거나, 나의 어떠한 이름이나 직위만 탐을 내는 그러한 가상스러운 인생살이는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나부터 진실하고 나부터 알아야 모든 살림살이가 아마 적당하고 소소영영하게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에 안 맞으면 말이 하기 싫어져요

문) 저는 성격이 원만하지 못해서 상대가 제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말이 하기 싫어지고 그러다보니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남편도 자식들도 저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좀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요?

답) 왜 이런 게 있지요? 그 속으로다가 '아이구, 저놈이 저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하다가도 그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정에 의해서 뭐가 있어요. 꼭 사정이 있단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식하고나 부부지간이나 부모지간이나도 말을 해서 놓으면은 이것이 풀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말은 없이 속으로 말은 안 하고 이것을 그냥 꾸욱 웅크려 물고선 그거를 아예 풀질 못하고는 있으면 영 그게 착이 되고 업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런 게 다 병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웃으면서 말을 이렇게 해 버리는, 그 함이 없이 하는 말, 남이 듣기 좋은 말로 웃으면서 그냥 하면은 그쪽에서도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던 거야." 하고 말이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해가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기 생각만 했지 남의 사정 있어서 그런 거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한 번쯤 돼 보고 다시 한 번 안으로 굴려서 좋은 말로 옮기도록 노력해 보세요.

마음으로 안으로 굴리지 않는다면은 그 길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굴림에 의해서 앞날이 펴지고 앞날이 밝아지지, 거죽으로만 '얘야, 너는 어떡하고 어떡하고 어떡하고' 말이 많고, 이거는 똑바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오히려 비뚜로 나가는 수가 100% 될 수가 있죠. 남편도 자꾸자꾸 이것을 이렇게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세상에 이렇게 해 가지고 삽니까." 하고 그렇게 해 봤던들 오히려 그런 걸 번연히 알면서도 이것은 주장을 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파괴가 됩니다, 알면서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 햇빛이 따뜻하게 아주 쨍쨍 쪼여 보십시오. 그러면 입었던 옷도 훨훨 벗어 버립니다, 원리가. 그러나 아주 그냥 강하게 추위가 닥치고 모진 바람이 몰아닥칠 때는 반드시 옷을 더 껴입고 더 옹그리고 더 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식이 돼 봐 주는, 내가 자식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서 한번 안으로 굴려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또 남편이 어떡할 때 내가 한번 남편이 돼서 다시 한 번 바꿔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의 굴림이 여러분의 삶의 의지와 보람 있는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햇빛이 따뜻하게 아주 쨍쨍 쪼여 보십시오.
그러면 입었던 옷도 훨훨 벗어버립니다, 원리가.
그러나 아주 그냥 강하게 추위가 닥치고 모진 바람이 몰아닥칠 때는
반드시 옷을 더 껴입고 더 옹그리고 더 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식이 되고 남편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고
한번 안으로 굴려보는,
다시 한 번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의 굴림이
여러분의 삶의 의지와 보람 있는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한 분만 모시는 이유

문) 다른 절에 가면 신중단이니 지장전이니 관음전이니 대웅전 외에도 여러 보살님들을 모시고 있는데 스님께서 부처님 한 분만 고집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답) 양 무제가 그렇게 절을 짓고 별의별 짓 다 하고, 옷을 갖다 주고 먹을 걸 다 갖다 주고 그렇게 시주를 많이 했는데도 달마 대사는 서슴지 않고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공덕은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타신을 찾아서 빌면 모든 것을 태산같이 차로 실어다가 놓고 빌어 봐도 그건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본다면 그 나무 몸체와 가지와 잎새, 그 모든 것을 위해서라면 어디다 물을 줘야 됩니까? 뿌리에다 물을 줘야 바로 이파리도 싱싱하고 모든 게 다 싱싱하고 열매도 굵고 크게 열립니다. 뿌리에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그렇게 가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기 뿌리에다 주질 않고 항상 남의 이름을 찾고 모습을 찾고 온통 야단입니다. 이 이름 찾고 저 이름 찾고, 칠성을 찾아서 명을 길게 해 달라고 빌질 않나, 또는 지장을 찾아서 좋은 데로 가게 해 달라고 그러질 않나, 또는 용신을 찾아서 물에 가더라도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해 달라고 그러질 않나, 지신을 찾아서 길에 가다가 급살을 맞지 않게 해 달라고 하질 않나, 약사를 찾아서 병을 낫게 해 달라고 그러질 않나. 그저 요기 놓고 빌고 조기 놓고 빌지 않으면 마음들이 개운칠 않아서, 만약에 요기 놓고 요기 놓질 않으면 '아이구, 우리 남편이 잘 안되면 어쩌나. 우리 자식이 잘 안되면 어쩌나?' 이런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 관습에 의해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한 아버지에다가만 약속을 하면 됐지, 한 아버지에게만 약속을 하면 그 아버지가 남편 노릇 할 때에 또 할 거고 자식 노릇 할 때도 할 거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이 따로 있고 남편이 따로 있고 아버지가 따로 있고 할머니가 따로 있고 형님이 따로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모두. 부처님의 마음이, 그래서 생각을 내셔서 이름을 지어 놓은 것이 동방에는 아촉이요, 서방에는 아미타요, 이 세상 사바세계에는 관세음이요, 지천국에는 지장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병고에 휘달리는 데에 응해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약사보살이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놨단 말입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 갑니까? 한 부처님이 하시는 거나 한 가정에 아버지가 하는 거나, 이게 비유를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다 얘길 해도 되는 건데 그만 요기 갖다 놓고 빌고 조기 갖다 놓고 빌고….

그것이 어디서 생긴 거냐. 이조 때 불교를 탄압할 때, 스님들이 도대체 먹고 공부할 수가 없어서 산신이니 독성이니 칠성이니 죄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예전에는 정성을 들이면 쌀 한 말이면 큰 됫박 말이었죠. 부처님한테 그거 한 말만 갖다 놓으면 뭘 먹고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다가 갖다 놓고 빌어야만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이상에는 좀 그것을 알아서 좀 벗어나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영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종교에 자유스럽고 한데도 말입니다.

삼독심에 대해서

문) 불교의 견해에서 보면 공부의 제일 큰 장애가 삼독심이라 알고 있는데요, 탐진치 삼독을 끊기란 참으로 보통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독심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 탐진치는요, 남의 걸 탐을 내고 집착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뛰다가 물에 빠지는 격이죠. 그런 거를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생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욕심부리고 그러는 거, 그런 모든 걸 욕심 안 부리게 하는 것도 너뿐이야. 집착 안 하게 하는 것도 너뿐이야. 주인공, 너뿐이야. 집안에, 가정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아프면 낫게 해주는 것도 너뿐이야. 의사들이 봐 준다고 해도 50%밖에는 못 봐 주니 50%만은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일임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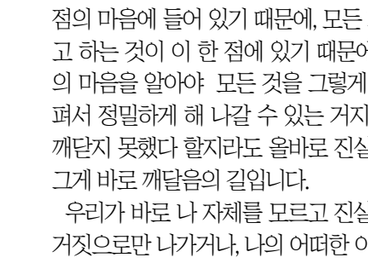
삼독심이 있다고 삼독심은 뭡니까, 뭡니까 그러다 보면 언제 여러분이 살다가 죽어도 모를 겁니다. 자기 주인공에 모든 걸 관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체험을 하게 되고 자기와 자기가 통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환하게 알아져요. 그러니 이 빛보다 더 빨리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시대에 그것을 언제 배워서 언제 살다가 가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 욕심부린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집착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잘못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본래. 전부 알고 계시죠? 그걸 좀 대담하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인공, 이런 거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너만이 그렇게 안 하게 나를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일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삼독심이라는 생각도 뛰어넘어야 될 수 있는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상위 0.1% 만이 경험할 수 있는
명품을 99%의 모든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00년의 향기
SINCE 1920

松剛堂
송강당


송강 경옥보

◎ 한의원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왜 공진보를 권하는가? (수험생의 필수품)
수험생들의 피로회복, 뇌세포활성화, 집중력과 암기력을 강화해주며 밤을 새워도 피로가 없다.
강남에서 고3 수험생이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2~3시간만 수면을 취해도 공진보 복용 후 15분이 지나면 바로 생기를 찾는다.

◎ 공진보를 먹으면 술이 물이 된다?
간기능저하로 인한 질환(지방간, 간경변)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간의 해독 능력이 좋아진다. 간이 좋으면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 성장기 청소년의 성장발육,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체질 개선
만성피로, 기력회복, 폐결핵 등 만성 호흡기질환에 효능이 매우 탁월함
◎ 당뇨, 갑상선, 간이 허약하신 분 복용 후 그 효능에 놀라실 것입니다.

현대아산병원,
부산시관광쇼핑센터,
홍콩 3개 쇼핑몰 입점

주문 전화 019-590-0009



송강/대명 공진보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 의 : 010-8442-4444 (상 담)
■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불자 세상보기

"한국 창조론에 항복" 세계가 조롱



정윤선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

"진화론 퇴치 첫 성과, 고교 교과서에 '시조새' 사라진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기독교계 언론인 국민일보 1월 4일 자에 올라온 적이 있다.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이하 교진추)가 작년 12월 5일에 "과학자 131인의 서명을 받아 시조새에 관한 기술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청원"한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고등학교 과학교과서 출판사들에 답변을 요청하고 반 이상의 출판사가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하겠다는 답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진화론 삭제" 논란이 가열된 것은 5월 17일자 서울신문에 "게으른 생물교과서, 진화론 개정 공격받다"라는 기사가 실리면서다. 교진추가 시조새 삭제 성공에 힘입어 3월 말에 다시 제출한 "말의 진화계열은 상상의 산물이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교과부와 일부 출판사에 의해 다시 수용된 것이 발단이었다. 이번에는 "187명의 과학자가 서명"했다고 한다.

결국 6월 5일에 세계적인 과학지 '네이처'에 "한국이 창조론의 요구에 항복했다"라는 기사가 실리며 한국은 세계 네티즌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그제서야 한국 과학계는 반응했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한국 과학자 86%가 교과서 진화론 삭제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시·도 교육감의 교과서 수정·보완 시한인 9월 말 이전에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키로 했다. "교과부의 연락을 받았을 당시 종교관련 단체가 아니라 학계 의견인 줄 알았다. 교과부가 출판사에 떠넘길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구했어야 한다."라고 한 출판사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면 진화론 삭제 청원을 낸 '과학자'들은 누구인가?

교진추는 '한국창조과학회의 교과서위원회'와 '한국진화론실상연구회'가 통합되어 2009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한국창조과학회는 보수 개신교계의 지원을 받아 교과서에 기독교 창조관을 싣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했다. 이제 MB 정권 말기에 그들의 30년 노력이 결실을 보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회 초대 회장(한동대 총장 김영길)을 비롯해 많은 회원들이 우리나라 최고 과학교육연구기관 중 하나인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교수 출신이고 KAIST내에 창조과학 전시관이 설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김영길 총장은 '과학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은 공로'로 KAIST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기까지 한다.

이러한 사이비과학에 대해 과학계는 더욱 적극 대응해야 한다. 시조새에 관한 수십 년 전 이론이 실려 있는 교과서를 방치해 공격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한 반응도 너무 느렸다. 외국의 과학지에 한국의 과학정서에 대한 우려가 표명된 이후에야 반응을 하는 무책임성은 그들이 한국과학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 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물리학연구소가 없는 유일한 국가임을 과학기술자들은 알고 있다. 그들은 또 과학교과서의 내용을 바꾸는 데는 교과부 담당자들의 관료주의라는 큰 산을 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패배주의에 빠져 관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WFB 한국대회 절반의 성공…개선 과제

여수 WFB 한국대회서 6월 15일 중국과 티베트 문제가 불거지며 중국불교계가 철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나흘간의 일정을 뒤로하고 막을 내렸다. 전 세계불자들이 불교가 세계의 사상적 대안이 되기를 서원한 WFB한국대회.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 속에 대회를 겪으며 느낀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티베트 관심 불러 일으킨 계기

진옥 스님 WFB한국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집행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을 먼저 토로한다면 시간의 촉박함이 있었다.

중국과 티베트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예상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조율을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행사 당일 중국 종교국의 강경한 자세로 대회 진행에 옥의 티를 남겼다. 결과론적으로는 중국의 무례함을 드러내 티베트에 대한 관심을 갖게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티베트 대표를 초청하지 않았으면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일각의 목소리는 공식지부로 대회 원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자비와 평화의 부처님 정신에서도 벗어난 것이라 본다.

티베트 대표 퇴장과 관련 WFB총회에서 한국 집행위와 상의가 없었단 점은 유감이다.



국제행사에 대한 경험 부족

이치란 WFB태국본부 집행이사

이번 WFB대회에서 세계불자들은 한국불교전통과 한국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마지막날 진행된 화엄사와 송광사 성지순례는 세계불자들이 한국불교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날이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22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돼서인지 국제행사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 외에 국제불교교류 측면에서 본다면 한중일 삼국불교에 치중해 온 점이 한계를 드러낸 대회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제 한국불교는 한중일 삼국 교류에서 시야를 보다 넓혀야 한다. 한국불교계가 WFB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전세계 불교도들이 한마음으로 뭉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층더 성숙해지고 국제대회에서 역량을 키웠다는 의미로 삼았으면 한다.



대회 위한 대회 되지 않아야

이민용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WFBY사무총장으로 22년 전 한국대회현장에 있기도 했지만 WFB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몇몇 스님 기여도에 따라 WFB지부에 종단이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모습, 대회 전반이 승단 위주로 돌아가는 점은 변모해야 한다.

이번 학술대회만 본다면 세계불자들이 진지한 대담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포럼이 아닌 준비된 것을 낭독하는 수준에 벗어나지 못했다. 통역 문제부터 시간, 커뮤니티 부족 문제 등이 다각도로 노출됐다. 또 모처럼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학술포럼도 한국 색채가 보다 더 드러나야 했다. 이점에서 본부와 집행위, 일선 학자들 간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본다. 향후 대회가 수십억을 들여 하는 말잔치, 대회를 위한 대회가 되지 않게 불교계가 노력하자.

社說

쇄신의 씨앗은 뿌려졌다

조계종 제1차 쇄신계획의 첫 분수령이었던 중앙종회가 쇄신입법들을 모두 통과시키고 폐회됐다.

총무원장 발의로 제출된 △'종무원법' 일부 개정안 △'사찰운영위원회법' 전문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 △'예산회계법' 일부 개정안과 이월 안건이었던 선거법 제정안은 쇄신 계획의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사찰에는 사찰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사부대중이 모두 사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일선 사찰 예산회계 원칙들이 명문화돼 전문회계사를 통한 감사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영수증 발급도 추진된다. 선거법 제정안으로 종단의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종책에도 종단이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종도들의 관심이 높았던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 삭제' 종헌 개정안이 부결돼 종법 개정안에 가서 축소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집행부 견제가 이유라고 하지만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굳이 축소를 고집해야 했는가 싶다.

그럼에도 이번 임시 중앙종회는 조계종 쇄신으로 가는 초석을 놓았다는 데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총무원의 쇄신 종책이 탄력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 6월 7일 발표된 쇄신계획은 특별한 것이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논의돼왔던 의제들이었다. 쇄신계획은 이를 실현하자는 선언이고, 종회의 의결은 쇄신의 선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이제 쇄신의 씨앗은 뿌려졌다. 남은 것은 총무원의 효율적인 종책 실행과 사부대중의 실천만이다.

'출가학교 열풍'의 메시지를 읽자

조계종교육원(교육원장 현응)이 7월 1일부터 9일까지 미황사서 개원하는 청년 출가학교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호응도가 가히 폭발적이다. 지원 마감 결과 250명이 접수를 마쳤다. 평균 경쟁률이 6대 1을 넘는다. 지원자 이력도 화려하다. KAIST, 서울대, 화가 지망생, 의대생 등 다양하다. 그렇다면 젊은 인재들이 산사로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대의 멘토로 구성된 우수 강사진과 전액 무료라는 파격 지원이 이들을 산사로 이끌었다는 분석이 많다. 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미국 햄프셔대 교수 혜민 스님, 조성택 고려대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이렇듯 멘토 열풍, 출가학교 지원 쇄도 등의 사회문화적 현상은 이 시대 한국불교가 해야할 역할이 무언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행복에 목마른 현대 지식층에게 불교라는 큰 버팀목이 필요했던 것이다.

바로 한국불교는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집착과 번뇌를 떨쳐 낼 수 있게끔 정신적 안정을 선사해야 할 것이다. 중앙종무기관에서도 이 시대의 요청을 깊이 새겨 최근 일어났던 일련의 불미스런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돼지 않게 해야 한다. 승풍진작의 열기와 이원화 돼서는 결코 안된다는 말이다.

우리 불교계에 출가학교의 열기는 30여년 전에도 있었다. 법정 스님이 송광사 수련원장 시절 '단기출가' 수련회를 개설했을 때도 이미 3개월전에 입소자가 마감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종교가 다르거나 갖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곳서 불자가 된 경우도 많았다. 이번 출가학교의 열기가 단발성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된다. 정법불교의 당간을 바로 세우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한국불교가 이 시대의 영원한 멘토가 돼도록 우리 불자들이 힘을 모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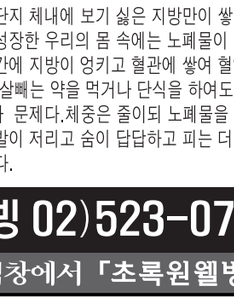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法 법과 果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법과활용(Application)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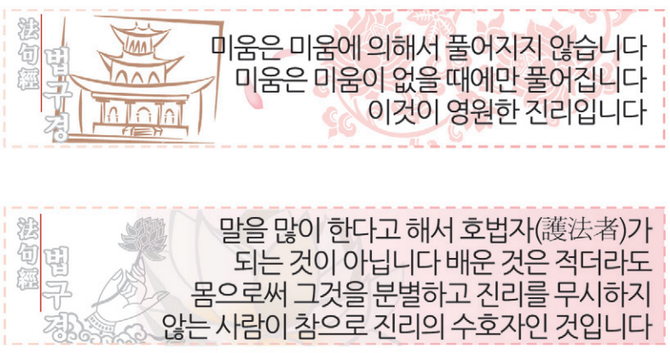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사찰 홍보·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